



7

1977

문학예술출판사

조선문학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 기관지

1977. 7 호

(루게 357)



◆◆◆◆◆◆◆◆◆◆ 차 례 ◆◆◆◆◆◆◆◆◆◆

조국방문시초	2
사랑의 밤	9
사랑을 안으라	10
바다를 막는 사람	20
우리 문학을 주체의 인간학으로!	28
종자의 예술적가공과 인간관계	29
사회주의현실주제와 중편소설	33
3 대혁명소조원을 형상한 작품창작이 활발히 벌어지고있다	38
충성의 꽃이여!	39
시운전의 날에	40
빛나라, 금수강산아!	41
말없는 이 땅에	42
물소리 가슴에 젖어들어	43
깊은 바다	44
사랑을 다해 (외 1 편)	55
아바이전사	56
위대한 태양의 빛발아래	57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다함없는 충성의 마음	6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30 뉘기념 전국문학예술작품현상모집요강	64

조국방문시초

정화흠

감격의 이날

참으로 기다린 날입니다.
철부지 그때로부터
하루같이 기다린 날입니다.

내 어린시절 모기불가에서
아버지에게서 들은 장군님의 이야기
길쌈하는 어머니결에서
밤깊도록 들은 전설적인 이야기

작은 가슴에도
장군님이 그리워 보냈답니다.
그럴 때면 아버지는
의례히 먼산만 바라보고
어머니는 일손을 멈추고서
눈물을 지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서 커서 장군님을 뵈러 가자》고

그 아버지 돌아가시고
어머니도 떠나시고
지금은 내가 아버지되어
그때처럼 자식에게
수령님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이럴 때면 자식들은 두눈 반짝이며
신통히도 같은 말을 합니다
어린시절 모기불가에서
내가 아버지에게 보채던 그때처럼

참으로 얼마나 기다린 날입니까
이역의 하늘아래에서
슬플 때나 기쁠 때나
그리움에 눈시울을 적시며
40여년을 하루같이
그리도 마음속에
안타까이 기다리고 기다린 오늘입니다.

극장이 터져날듯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속에
만면에 인자하신 웃음 지으시고
위대한 수령님께서 나오십니다.

내 그토록 뵈고싶었던,
아버지 어머니도 것처럼 마음속에 그리던
전설적영웅 민족의 태양이신
김일성원수님께서 나오십니다.

꿈같은 자리에서
어버이수령님 저의 손을 뜨겁게 잡아주십니다
어린시절은 땅만 허비고
철이 들어서는 남의 땅에 끌려가
눈물만을 흘리던 이 손을.

어찌하여 이렇게도 따듯이 잡아주십니까
나라 위해 벽돌 한장 쌓은적 없는,
가렬한 전쟁의 그날에도
총 한번 잡은적 없는 이 손을...

아버지 뭇도 잡아주십니다
어머니 뭇도 잡아주십니다
자식의 뭇도 잡아주십니다
대대의 소원이 다 풀리도록

아 하늘에도 땅에도 비기지 못할
어버이수령님의 사랑
끝없는 행복에 어깨를 들먹이며
그만 목이 메여 나는 읊니다.

이제는 원이 없습니다
또 무슨 원이 있으오리까
원이 있다면 오직 하나
통일된 강산에 수령님을 모시는
그 원뿐이옵니다.

목숨은 버리어도 저버리지 못할

어버이수령님의 크나큰 사랑
길이길이 전하됩니다
해와 달이 다하도록 충성하는 길에서

너무나도 꿈만 같은
이날의 이 감격, 이 사랑을
대대손손 길이길이 노래하됩니다.

조국이 보인다

동해창과 헤치며
《만경봉》호 달린다
그리운 조국으로
물결도 조국의 기슭으로
어서 가자 부르며 정답게 설레이는데

아직은 멀었는가
바라보아도 바라보아도
보이지 않는 조국
조국을 보고싶은 마음들이
어서 달고싶은 심정들이
발돋움 키돋움하는 안타까움이여

일각이 천추구나
안타까운 시간이 흘러간다
한초 또 한초
그 누가 웨치는 소리
《조국이다...

조국이 보인다!》

수평선 저 멀리
안개속에 떠오르는 조국의 산발
얼마나 보고싶던 조국이었더냐
나는 나도 모르게 부르짖는다
《조국이 보인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 만세!》

순간 흐려지는 눈
쏟아지는 눈물
참아도 참아도
억수로 쏟아져내리는 눈물...

아, 조국!
눈물속에 그리운 조국이 보인다
수령님 계시는 사회주의조국이.

조국땅에 내가 왔구나

드디어 내가 왔구나
꿈결에도 불러보던 그리운 내 조국에

얼마나 보고싶던 조국이었더냐
얼마나 거닐고싶던 조국땅이었더냐
꿈이냐 생시이냐
아, 조국땅에 내가 왔구나

현해탄 거칠은 물결우에
피눈물 뿌리며 끌려간 이 몸이
이역땅 찬바람속에 사는 이 몸이
오늘은 위대한 수령님의 품에
이토록 따뜻이 안겼구나

하늘도 땅도 아름다와라

바람도 꽃바람 웃음도 꽃웃음
위대한 태양아래 락원이 솟은
청춘을 자랑하는 나의 조국이여

잘 왔다 잘 왔다고
속삭이는 바람소리
대동강의 물소리
흘러가던 구름도 머리우에서
정답게 반기며 맞아주누나

생각할수록 꿈같구나
꿈이거던 깨지 말라
이대로 천년이고 살고싶구나
거닐다가 이대로 조국땅의 돌이 된대도
내 무엇을 더 바라랴

수령님 계시여 받는 이 행복
이 행복에 나는 운다
눈물속에 수령님의 영상을 우러르며
발목이 시도록 나는 걷는다
자나깨나 불러보던 조국땅우를

가슴이 터지도록 나는 부르네
위대한 수령님의 만세를
내 이 만세를
언제나 심장에 새겨
세월의 끝까지 부르리라
세월이 끝나도 나는 부르리라

만경대를 찾아서

만경대!
만경대!

얼마나 보고싶던 집이었더냐
얼마나 그리웠던 집이었더냐

인사를 드리노라
첫 인사를 드리노라
만경봉 푸른 언덕이여
어린시절 수령님 큰뜻을 키우신
학습터, 씨름터, 군함바위여
무지개 잡으시려 오르고 오르신
언덕우에 높이 솟은 푸른 소나무여

참으로 그리웠노라
내 이역의 찬비속에 살면서도
한시도 잊은적 없었더라
슬플 때도 그랬노라
기쁠 때도 그랬노라

더우기 꽃피는 4월이면
안타까운 마음 참을길 없어
이 초가집 아득히 조국의 하늘가에 그리면서
어린것과 손잡고 언덕에 올라
눈물로 만경대의 노래를 불렀나니

아, 이 집이었구나
아버이수령님 탄생하신 집이

위대한 집이여
이 집이 있음으로 하여
새날은 밝았고
나의 조국은 인류가 그토록 바라는
지상의 낙원으로, 인간의 낙원으로 되었구나

이 집이 있음으로 하여
조선은 세계에 빛을 뿌리고
오늘은 억압받고 착취받던 5대륙의 인민들이
민족해방, 계급해방, 인간해방의
주체의 기발 휘날리며 자주주의 구호도 높이
어깨걸고 줄지어 나서지 않았느냐

노래소리 울려 퍼진다
여기서도 저기서도
-만경대는 조선의 고향
만경대는 주체의 고향
만경대는 인류의 고향
아, 이 노래속에
조선은 더더욱 빛나리라
주체의 태양은 영원히 찬란하리라!

대성산혁명렬사릉앞에서

-동서천리를 넘나들던 바람도
여기 와선 숨어들고 고개 숙이고
만리창공에 흘러가던 구름도
안개되어 여기에 내리는가

바람도 고개를 숙이고
구름도 안개되어 내리는 여기
대성산혁명렬사릉앞에
나는 발길을 멈춘다

열아홉, 스물, 스물한살
너무나도 젊은 나이들이다
아, 여기에 잠들기에는
너무나 애젊은 청춘들이다

꿈인들 얼마나 컸으랴
해방된 조국땅에 수령님 모시고
빛나는 세기의 상상봉에서
천년만년 살고싶었을 그들이 아니었더냐

하지만 그들은 갔다
오히려 웃으면서 떠나갔다
청춘도 미래도 고스란히
조국과 인민에게 바치고서
수령님을 위해 바치고서

쳐다보기에는 너무나 송엄하고
부르기에는 너무나 가슴저미는
그 이름 이름들

조국과 더불어 빛날 이름들이여
어느덧 흐려진 눈길 저 멀리
그들의 모습 떠오른다
헤쳐온 눈보라의 수만리길이
조국진군의 그날
붉게 핀 진달래 끌어안고
다시 오마, 눈물짓던 모습 모습들이

가던 구름도 밋는다
부는 바람도 밋는다
그들의 음성 들려오는듯
혈전만리우에서도
교수대우에서도
마지막순간에 부른
김일성장군 만세소리가...

아, 그처럼 살아야 할 이름들이여
청사에 길이 빛날 청춘들이여

봉화산기슭

종소리 울려 퍼진다
캉캉했던 조선에 새벽을 부르던
종소리 봉화산기슭에 메아리 친다.

강도 일제의 쇠사슬에 얹매여
천신만고 괴롭받던 조선
일떠선 투사들도 갈피를 못잡아
주먹으로 눈물만 훔치던 그때

아침저녁 들려오는 종소리
어느분이 울리시는가
쨍- 쨍-
대동강얼음장도 금이 가고
아득히 뻗은 천산만수도
머리들고 화답하며 설렷더란다.

일어서라 강토여!

잠을 깨라 동포여!
-반도 삼천리는 우리의 집
제 손으로 쇠사슬을 끊어버리고
조선의 독립을 찾아야 한다
반일민족해방투쟁의 탁월한 지도자
김형직선생님께서 올리신 종소리여
잊지 말리라 이 종소리,
-조선이 독립하지 않으면
다시 돌아오지 않으리라!
어리신 시절 다지신 수령님의 그 맹세
이 종소리 들으시며 키우셨고
이 종소리 가슴에 새기시고
항일의 만리길에 오르셨거니

소나무숲사이로
산새들도 오늘은 즐거이 우짖는다

저멀리 맥전벌을 스치던 바람도
열파강을 지나서 여기로 오는구나
이 종소리 싁고서 남녘으로 가려는가

영광을 드리노라

민족주의운동에서 공산주의운동으로
전환의 종소리 울려퍼진 땅이여
오늘의 락원동산 터전을 닦은
지원의 유서깊은 봉화산기슭이여

만수대예술극장에서

문을 열고 들어서니
금강산이 솟아있네
깎아지른 절벽에서 내리쬐는 구룡폭포
물줄기는 깨어져서
억만진주되어 흩어지는듯
사람마다 마주보며 하는 소리
《여기가 어디요?》

계단을 올라서서 앞을 바라보니
백옥을 묶어서 하늘을 피웠느냐
만이천봉은 봉마다 눈부시고
골짜마다 폭포소리 메아리친다
발걸음 멈추고 사람들 하는 소리
《여기가 어디요?》

또 한문을 들어서니 무지개 비껴있네
무지개 사라지자 《락원의 노래》
샘물처럼 흐르는 맑은 노래
지상에서 구름우에서
선녀들이 춤을 추네 노래부르네

오, 황홀, 황홀
이젠 사람들도 입을 다물었네
물어도 말이 없고 대답이 없네
황홀속에 넋을 잃고 꿈을 꾸는듯

세상엔 극장도 많다 하지만
예술도 천만가지 있다 하지만
이 극장을 보는 순간엔
여기서 예술을 보는 그 순간엔
극장도 예술도 부끄러워하리라

미를 창조하는 사람들이여
예술을 자랑하는 인사들이여
여기에 오라
여기를 보기전에는
미도 예술도 론하지 말지어다
주체예술의 전당
만수대예술극장을 보기전에는.

김종래전기기관차공장에서

정말 여기서 태어났단말인가
《붉은기》호 첫 전기기관차가
전쟁의 재더미가 쌓였던 그때
어쩌면 이런 기적이 솟아났을가

《백년을 지나도 복구를 못한다》
《전기기관차는 더욱 어렵도 없어》
짓어대던 미제의 부리같은 코대를
어쩌면 그토록 속 시원히 꺾었을가

《다 위대한 수령님의 은덕이지요
수령님의 교시대로만 하면
세상에 못해낼 일 없지요》
어느새 왔는지 옆에 서있는
한 노동자의 나직한 말소리

아, 그였구나
기술도 자재도 없던 그 시기

첫 전기기관차 《붉은기》호 만들어
어버이수령님께 기쁨을 드린
영웅조선의 영웅아바이가

나는 미처 몰랐더라
자랑을 자랑으로 여기지 않는
너무나 소박한 그였기에
조국의 공장이면 어디서나 볼수 있는
수수한 로동자였기에

《나는 해방전엔 탄부였소
탄부가 어떻게 기관차를 만들겠소
<붉은기>호를 만든것은 내가 아니라
위대한 어버이수령님이십니다》
아, 티없이 맑은 그의 충성심
들을수록 고개가 저절로 숙여지는
영웅아바이의 심장의 목소리

시련의 고비는 얼마나 많았으며
투쟁의 낮과 밤은 얼마나 보냈으랴
살아도 충성, 죽어도 충성
어버이수령님께 다진 그 맹세
바로 그 맹세가 아니었더냐
《붉은기》호가 첫 고고성을 터친것은,

영웅아바이 가리키는곳을 본다
화염속에서
작렬하는 불꽃속에서
이글거리는 쇠덩이를 내리치는 저 로동자도
아름드리 쇠를 깎는 저 처녀선반공도
모두다 천리마조선의 영웅들이 아니냐

《충성의 열도를 최고도로 높이자!》
《400% 돌파!》
《500% 정상화!》

나불은 속보에도
충성의 붉은 꽃이 활짝 피었구나

그렇다, 이들이 있기에
나라의 동맥은 청춘이구나
기적소리 드높이 굽이굽이 울리며
조국통일로 조국통일로
오늘도 렬차는 달리고있거니

나도 이들을 따르려다
나의 필봉에도
충성의 붉은 꽃을 피우려다
어버이수령님께 충성다하는
영웅조선의 로동계급들이여!

모란봉

모란봉에 오르노라
모란봉에 오르노라
발밑에는 대동강 맑은 물이
푸른 언덕 비껴실고 꽃잎을 싣고
청류벽을 스치며 유유히 흘러가네

얼마나 좋으나
백화는 만발하여
어버이수령님께서 60여성상
나라 위해 걸어오신 불멸의 그 자욱을
송이송이 아름답게 수놓고있네

꽃도 좋거니와
산도 좋아라
굽어보면 룡라도
창공에는 천리마
아, 모란봉!
꽃속에 솟아있는 금수의 산이여
한송이 꽃도 무심할수 없구나
이름모를 저 꽃도
수령님의 사랑속에 곱게 피었고

영원한 봄을 이 강산에 안아오신
수령님의 만수무강 축원하고있거니

꽃물결이 설레이네
나비가 춤을 추네
잔술이 둘러싼 넓은 잔디밭에선
기쁨에 겨워 행복에 넘쳐

조국의 하늘은 어디 가나 맑건마는
신천의 하늘만은 무겁게 보이누나

바람이 인다
한줄기 비내린다
원한은 아직도
하늘에 사무쳐 굵이치는가

무너진 벽에 방공호속에
그때에 허빈 그 손톱자욱 피자욱들
총칼로도 탄알로도 지을수 없는
미제를 저주하는 원한의 숨결이어

세월은 흘렀어도
아직도 풍겨오는 휘발유냄새
불속에서 웨치는
102명 어린이의 울음소리
400 어머니의 통곡소리

아, 하늘도 땅도
함께 노할 이 분노여
끝수에 오장에
뼈의 마디마디에
사무치는 이 원한이어

내 저주로써
이 원한이 가셔질수 있다면
나의 힘, 나의 지식, 나의 지혜
내가 지닌 모든것 하나로 합쳐

치녀들이 춤을 추네 수령님을 노래하네

노래하자 모란봉아
함께 노래부르자
주체의 시대는 얼마나 좋으냐
수령님 계시여 너의 모습 아름답고
래일은 더더욱 빛나려니

신천땅을 찾아서

오직 저주의 노래만을 엮어가리라

내 죽어서
이 원수를 갚을수 있다면
백번 다시 고쳐죽으리라
죽어 원수들을 《지옥》에 끌어들여
천백배의 피값을 받아내리라

사람의 탈을 쓴 승냥이떼
미제의 숨통을 끊어버리자
양키가 이 세상에 남아있는 한
《신천》은 계속되리

저 남녘땅을 보시라
악귀들은 오늘도
그 땅을 하나의 《신천땅》으로 만들고
겨레들의 피를 빨며 칼을 버리며
북녘에 《새 신천》을 노리고있거니

몰아내자 인간백정 미제를
사랑하는 부모와 처자를 위하여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위하여
남녘밖으로!
지구밖으로!

**(필자는 조국을 방문한 총련
금강산예술단 작가임)**

사랑의 밤

어둠은 바닥없이 깊어가고
산밑에선 이따금 번뜩이는 화광...
결전의 또 하루를 승리로 빛내고
전사들 전호가에 쪽잡을 그리는 밤이었네
먼 장거리전화를 드신 위대한 수령님
벌써 선기가 나는것 같은데
전사들에게 더운밥과 따끈한 국을 먹이라고
몸소 심려의 타이름 보내주신것은

은폐부 등잔불아래 수화기를 든 장령
떨리는 손으로 경건히 옷깃을 여미였네
포화속에서 전사들과 한가마밥을 먹고
한전호에서 허물없이 자고 깨면서도
미처 생각이 닿지 못한것을
머나먼 천리밖에서 헤아려주시는
그이의 깊은 뜻에 가슴설레이며

그 순간 모두들 참호밖을 내다보았네
저멀리 거뒀한 룡선이며 파헤쳐진 언덕들...
저마다 난생처음인듯 느끼었네
그우에 백설처럼 희끗거리는것이
한낱 달빛이 아니라 서리임을,
철이 흘러 어느새 계절이 바뀌고
불길에 타다남은 가독일들도
쫓아보니 축축하다는것을

오, 자애로운 어버이 **김일성**장군님
지새는 전선의 초가을밤
전사들의 어깨에 조용히 내리는
찬서리의 알릴듯말듯한 소리를

제일 먼저 헤아려들으셨구나.
이 세상 누구도 느끼지 못한 그 작은 소리를
마음속에 그토록 크게 들으셨구나.

사람들은 예로부터 스스로 믿어
제삶의 구석은 제가 잘 안다 했지만
아니여라, 정녕 아니여라
자애로운 어버이 그이의 사랑은
제몸을 두고 제생각도 미치기전에
해빛처럼 비쳐와 따뜻이 감싸주어라.

어찌 휘몰아치는 포연뿐이라
한방울의 이슬... 한점의 서리...
한가닥 계절의 숨결에도 앞서
그이의 사랑은 파사로이 비쳐와
전사들을 금싸래기처럼 감싸주시거니
천년을 받아 만년을 누리면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다 알수 있으랴!

오, 깊어가는 사랑의 한밤이여!
결사전의 불바다속에 너는 깃들었어도
그 밤 한없이 포근한 어버이품속에 안겨
전사들은 미제를 통채로 깔고앉는 꿈을 꾸었네
금빛혼장 눈부신 가슴들을 내밀고
푸른하늘 아득히 웃음을 보내며
수령님 높이 우러러모신 승리의 열병식장으로
훨훨 나래돌쳐 달려가고있었네

리금석

사랑을 안으라

림재성

기관차대에 발을 들여놓으면 제일 먼저 눈길을 끄는것이 정비선과 출입고선이다. 기관차들이 렬차를 끌기 위하여 출입고선을 통하여 정거장구내로 나가고 회귀선에서 돌아오는 기관차들 역시 이 선을 타고 기관차대로 돌아온다. 그래서 비행장의 활주로와 흡사한 출고선은 렬차운행표와 함께 시계의 치차처럼 맞물고 돌아가는 기관차들로 하여 밤이고 낮이고 잠시도 비어있은적이 없다. 수송량이 늘어남에 따라 기관차들의 출입은 더 빈번해지고 분으로가 아니라 초로 계산되는 정확성을 보장하고있는데 이곳 종업원들은 출입고선에서 움직이는 기관차를 보고도 시간을 알아맞추곤한다.

《1211 렬차견인기가 출고하는데 좀 다그쳐야 되겠는데.》

《아니, 벌써 17 시 35 분이란말인가 허.》

또는 《12 시 3 분인데 왜 아직 2407 렬차견인기가 정비선에서 꾸물거리고있는거야?》 하고 근심하기도 한다.

기관차정비선 또한 한가한 때가 없다.

정비작업을 끝내고 출발을 대기하는 기관차, 정비작업이 한창인 기관차, 정비차레를 기다리는 기관차들이 여럿대 어울려 돌아가는 이곳은 검차원들과 수리공들, 승무원들의 청높은 목소리가 언제나 떠들썩하다.

그러나 기관차대장으로부터 취사원, 병원 준위에 이르기까지 출입고선과 실험실사이의 넓지 않은 공지에서 녹슬어가고있는 결선로(정비선에서 갈라져나왔다)에 대해 관심을 두는 사람은 많지 못했다.

3대혁명소조원 오향문이도 처음에는 이 선로를 무심히 대해왔다. 그러나 수십대의 기관차로부터 반제품소재창고에 이르는 사업전반을 료해하는 과정에 어느 통계대장에도 올라있지 않는 이 결선로에 대해 이상한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

어느날 아침, 운전실로 나가던 오향문은 실험실 앞에 가서 선로를 찬찬히 살펴보았다. 사람의 손길이 미치지 않아 잡초가 드문드문 나고 자갈과 모래흙에 묻힌 선로는 각이한 규격의 레루로 무어졌는데 마모한도만은 하나같이 초과한것들이다. 그러니 철길소대에서 레루를 회수하자고 성화를 먹이지도 않았을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이 무거운 증량품을

수매소의 파철더미에 메고 가볼 용단을 내릴만한 사람은 더욱 없었을것이다.

(이 선로는 왜 놓았을까?)

오향문은 철심이 특골처럼 흉하게 드러난 콩크리트침목을 발로 탕탕 굴러보며 머리를 기웃거렸다. 이때 실험실의 키높은 창문이 기척없이 열리면서 물이 확 쏟아져나왔다. 하마트면 물벼락을 맞을번했다.

《이크!》

한발 뒤로 뉘름 물러서며 고개를 돌리니 질겁을 하는 너자의 목소리가 빨간 머리수건과 함께 창문 뒤로 사라졌다. 한차만에 다시 얼굴을 내민 빨간 머리수건의 이마는 동그랗게 커진 눈으로 오향문을 바라보았다. 실험공처녀였다.

《미안해요... 젖지 않았어요?》

《아하 이 동무가! ...》

오향문은 구두코의 물방울을 야단스레 털며 악의 없이 눈을 흘겼다.

《글쎄 거기에 사람이 있을줄 누가 알았겠어요. ... 그런데 제서 무얼하세요?》

《아까운 레루가 녹슬구일것래 좀 봤지요.》

《레루를 걷어가려는게 아니예요?》

처녀는 약간 근심스레 물었다. 부드럽던 눈에는 경계하는 빛까지 어렸다.

《왜 안되우?》

《.....》

소조원이 그까짓 낡은 레루 몇대 회수하지 못하겠느냐는 표정이다. 그러나 다시 얼굴을 쳐들었을 때 그의 눈에는 웬일인지 동정을 불러일으키는 어두운 그늘이 비껴있었다.

《작년에 자재과장동지가 레루를 걸겠다고 하는 바람에 문찬동무가 대판싸우기까지 했어요.》

《문찬동무가 누구요?》

처음 듣는 이름이다.

《실험공이였어요. 저... 그 <종합출력제고장치>를 창안한 동무말이에요.》

오향문은 머리를 끄덕였다. 그도 렬차의 견인능력을 배나 높일수 있다는 그 굉장한 창의고안에 대해 어느 정도 파악이 있었다. 그러나 최문찬이란 이름은 잘 떠오르지 않는다. 그렇다고 모른체해서 처녀를 실망하게 하고싶지는 않았다.

《그 창의고안이야 첫 시운전에서 벌써 실패하지 않았소.》

《그렇지만 실패의 원인은 찾았거던요.》

처녀는 거의 부르짖다싶이 말했다. 듣고보니 잡초속에서 녹슬어가고있는 이 결선로에는 문찬이라는 사람의 수고가 여간만 깃들어있지 않았다. 류동하는 기관차에서 실험을 해보려고 한대 한대 구해온 레루로 이어놓은 결선로였다.

《그러나 대장동지가 기관차를 보장해주지 않아 끝내...》

말끝을 맺지 못한 처녀는 갑자기 목을 움츠리더니 창뒤로 숨어버렸다. 웬일인가 해서 뒤를 돌아다보니 저쪽 정비선쪽에서 허진배대장이 이쪽으로 걸어오고있었다. 오른쪽 어깨에 비해서 왼쪽이 약간 처진 그는 부석부석한 얼굴이며 어김없이 하루에 한번씩 면도칼을 대는 푸르스름한 턱때문에 여간만 엄하게 보이지 않았다.

《최문찬이라는 동무가 있습니까?》

수인사가 끝나자 오향문이 물었다.

《그런 공상가가 한사람 있습니다.》

허진배는 목 하나 움직이지 않고 한쪽 눈귀만 쏘아보았다. 인입선과 소조원의 질문, 그것으로서도 상대방이 무엇을 말하며 무엇을 묻고있는지를 너무나 잘 아는 허진배였다. 그러나 그는 자기가 소조원의 물음에 너무 경박한 대답을 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으로 굳은 표정을 풀었다.

《말겨진 일이나 전념했으면 좋겠는데 밤낮 연구요 실험이요 하구 돌아가지요. 학자님이 되시려는지...》

한마디로 말해서 들켰다는것이다. 그래서 마음을 가라앉혀주려고 가공반의 선반을 맡겼지만 제 버릇 개주지 못한다는것이다.

《만나서 이야기는 해보았습니까?》

《본인에게 담화준비를 하라구 단단히 일렀습니다. 중대장동무의 얘기를 들어보면 개인리기주의도 있답니다.》

허진배는 정말 골치가 아파 못견디겠다는듯이 머리를 가로 흔들었다.

이날 오향문은 해종일 마음이 심란했다. 그가 도면과 기술문건을 료해한데 의하더라도 《종합출력제고장치》라 이름지은 기술혁신안은 확실히 경제적인의의가 큰 창의고안이다. 그런데 그 창의고안자의 한사람이 책임일군들로부터 웅당한 지지와 고무를 받지 못하고있다. 그가 변민속에서 몸부림치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니 하루해가 갑자기 길어진듯싶었다. 그러나 오향문이 만나본 최문찬이는

전혀 다른 성격의 소유자였다.

《기관차만 보장해주면 이번에는 틀림없이 성공한다니까요.》

최문찬의 첫 대답은 이러했다. 그는 동무들이 전부 퇴근한 뒤에 혼자 휴게실에 남아 무슨 도면을 그리다가 소조원을 반갑게 맞았다. 문찬은 상대방이 묻기도전에 가방속에서 꾸겨진 계산용지까지 꺼내더니 자기의 주장을 론증하기 시작했다. 첫 실패에 대해서도 숨기지 않았다.

《충분한 리론적기초가 있고 실험실의 승산있는 담보가 있었는데 시운전에서 왜 실패했겠습니까!》

이마를 덮은 머리를 성급하게 빗어넘긴 문찬은 정력과 지혜가 넘쳐나는 자그마한 눈으로 오향문을 건너다보았다.

《우리는...》 그는 손가락으로 맞구멍이 나도록 도면을 꼭 찢었다.

《방음장치가 된 실험실이 험한 산상의 궤도를 대신할수 없다는 가장 단순하고 명백한 진리를 미처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그 진리를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게 아닙니까?》

《있지요. 그러나 난 기어코 깨닫게 하고야말겠습니다.》

신념에 찬 확고한 말이다. 오해와 불신 속에서 고민하고있으리라고 생각했던 사람에게서 비판의 흔적조차 찾을수 없다. 오향문은 문찬의 얼굴을 새삼스럽게 바라보았다. 그는 몸집이 크지 않고 오히려 언짢을 정도로 가냘파보이기까지 하다. 목소리는 아낙네소리처럼 가늘다. 입도 코도 지어 바짝 올려붙은 귀까지 모두가 작고 좀상스러운 그에게서 사람을 놀래울만한 어떤 놀라운 행동을 기대하기란 애초에 가망 없을것 같다. 그러나 사람의 외모가 한량없이 깊고 넓은 정신세계를 전부 반영할수는 없는것이다. 기관차의 견인능력을 단꺼번에 배반이나 끌어올리려고 시도했고 지금도 그것으로의 지향을 포기하지 않은 그자체가 벌써 평범한 일이 아닌것이다.

오향문은 우선 도면을 연구해보기로 하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문찬이도 발치에 있는 꾸레미를 들고 엉거주춤 일어났는데 열려진 귀통이로 마른 국수가 뺨죽이 나와있었다.

《아이들이 하도 먹고싶다기에...》

문찬의 주눅이 든 변명이다. 열정을 담고 이글거리던 눈이 뿌연게 빛을 잃고 허둥거렸다. 오향문은 허진배가 그를 두고 하던 여러가지 좋지 않은 인상

답이 떠올랐으나 내색없이 헤어졌다. 모든 생각이 기술문건에 쏠린 지금 그에게 다른 생각이 없었다.

오항문이 다시 정비중대에 나타난것은 그로부터 한주일후였다. 그는 정비선과 수리선들의 레루를 가로질러 걸음을 재우쳤다. 얼굴에는 맑은 미소가 흐른다. 허진배의 말대로 굉장한 수자앞에서 현훈 증부터 느끼게 되거나 앓을가 하던 그의 우려는 벌써 첫날밤에 사라지고말았다. 첫번째 시운전 때의 자료에 비하면 상당한 진척이 있는 도면들이었다. 짜고 덧쓰고 다시 짜고 한 도면은 서너군데 구멍이 뚫어져있었다. 잉크병을 뒤집어엎었는지 시퍼렇게 얼룩이진곳에는 누데기처럼 덧붙이기까지 했다. 오항문은 전문연구기관의 그것과 대비조차 할수 없는 깨끗치 못한 도면이었지만 한 일군의 왕성한 정력과 기발한 착상, 그리고 대담한 구상을 구석구석에서 느꼈을 때 우선 기뻐다. 그는 문찬의 기술문건에만 매달리지 않았다. 대학교수들과 과학원의 이름있는 연구사들을 찾아가 고견도 들었다. 중앙도서관의 조용한 열람실에서 점심을 건너뛰기도 했다. 《대담한 구상입니다. 한번 해볼만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모교의 이름있는 교수는 오항문의 손을 잡아 정력적으로 흔들어주기까지 했다...

방금 해진 뒤였다. 사위는 조용하다. 사람들의 래왕도 뜸하다. 문찬이 퇴근했으면 어찌나 했는데 마침 있었다. 조용한 휴게실에서 부지런히 계산책을 놀리고있었다. 낮익은 도면이 책상위에 펼쳐져 있었다.

《문찬동무, 대장동지에게 제기해서 실험을 다시 해보지요.》

오항문은 제압담 문찬을 일으켜세웠다. 자기의 기쁜 심정을 어떻게 표현했으면 좋을지 몰랐다. 그러나 문찬이는 그의 이 한마디 말속에 담긴 열가지 백가지의 뜻을 알고도 남았다. 웬일인지 눈곱이 뜨거워졌다.

《대장동지에게 가지요.》

두사람은 밖으로 나왔다. 대장실은 비어있었다. 시계를 보니 참모회의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오항문은 서둘러 밖으로 나왔다. 허진배는 좀체 만날수 없었다. 하긴 참모회의전 이 시각에 그를 만난다는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허진배는 참모회의성원들의 보고에 만족을 모르는 꼼꼼한 성미이다. 모든것을 제눈으로 직접 보고 확인하기전에는 그 누구의 말이나 어떤 통계수자에 도 마음을 놓지 못한다.

정비선으로부터 각 중대들을 돌아보고난 오항문은 운전실앞을 지나다가 허진배의 굵은 목소리를

들었다. 문을 열고 들여다보니 땀투성이가 된 기관사가 허진배앞에 뺨뺨이 서있었고 낮을 창밖으로 돌린 당무지휘원은 호출신호도 없는 사령전화기의 수화기를 공연히 들었다놓았다한다.

《동무는 오늘 기관차를 운전할 자격이 없소. 단 1분을 늦어도 그렇단말이요.》

허진배의 말은 그야말로 면도칼로 자르듯 단호하고 날카로웠다. 5분간 출무지연을 한 기관사에게 처벌명령을 내린것이다. 허진배는 벌써 문턱을 넘어섰다.

《왜 늦었답니까?》

밖으로 나온 오항문은 허진배와 나란히 걸으며 물었다.

《헤이했지요. 요새 속보판에 이름이 몇번 오르더니 벌써 허리띠를 풀어놓는군.》

《혹시 무슨 사정이 있어서 그런건 아닐까요?》

허진배는 머리를 흔든다.

《우리의 시간에는 인정이 없지요.》

허진배는 자기의 단호한 행동을 소조원에게 변명하는것이 아니라 오항문에게 생활에 대한 자기류의 사고방식과 신념을 설교하기 시작했다. 1분, 그것은 그야말로 백사장에 흩어져있는 한알의 작은 모래알에 불과하다. 그러나 모든 공정들이 치차처럼 맞물고 돌아가는 철도의 경우는 1분이 아니라 1초가 귀중한것이다.

때문에 시간에는 인정사정이 없으며 오직 엄격성만이 필요한것이다.

허진배의 론리는 이러하다.

《난 이런 관점으로 자신을 통제하고 아래일군들에게 강한 요구성을 제기합니다.》

《웁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엄격한 시간도 사람들이 자각적으로 동원될 때에만 정확히 지킬수 있지요.》

허진배는 오항문이쪽에 미묘한 눈길을 돌렸으나 입은 열지 못했다. 이것이 그가 소조원에게 대답을 못한 첫번째 말이다.

두사람은 대장실에 들어설 때까지 각기 생각에 잠겨 말 한마디 하지 않았다. 방안에는 기다리기에 지쳐버린 문찬이가 졸고있었다. 머리에서 벗어진 모자가 저쪽구석에 있었다.

《웬일이요?》

허진배는 거꾸시시해서 일어서는 문찬이를 호기심을 가지고 바라본다.

《제기할게 있습니다.》

문찬은 소조원쪽에 얼굴을 돌렸다. 그는 부추기
는 듯한 오향문의 눈길에서 힘을 얻었는지 허진배쪽
에 한걸음 다가섰다.

《기관차를 두주일만 보장해주십시오.》

(또 성화를 먹이는군!) 허진배의 눈은 대번에 모
가 났다. 그러나 그는 목소리를 높이지도 않았고 얼
굴을 붉히지도 않았다.

《문찬동무, 이거 좀 보우.》

허진배는 둥근 공인이 찍힌 추가은행계 획서를 쓱
밀어놓았다.

《월동수송이 벌써 시작되었소!》

《저두 수송문제를 풀자는겁니다.》

《여보!》

얼굴을 문지르던 허진배의 손이 굳어졌다.

《수송문제를 생각하는 사람이 기관차를 보름씩
이나 세우자고 하오. 왜 달리는 기관차에서 실험해
볼 생각은 못하오, 응?!》

문찬이는 증기오른 기관차처럼 한동안 씩씩거리
다가 돌아서고말았다. 황- 하고 출입문 닫는 소리
가 등뒤에서 거칠게 들려왔다. 문찬이의 털썩거리는
발소리가 차츰 멀어지더니 마침내 푹 끊어지고
말았다.

《끝치거리야!》

허진배는 신경질적으로 머리를 흔들며 말했다.
그의 말에 오향문은 자신이 모욕이라도 당한것만
같았다. 그러나 그는 흥분해서는 안된다는 자각이
들어 들썩거리는 마음을 무겁게 가라앉혔다.

《문찬동무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볼걸 그랬습니
다.》

《들어보나마나지요.》

《그래두...》

《내 머리가 왜 이렇게 센줄 아오.》

허진배는 손을 내저었다.

《대장 15년에 무슨 사람인들 상대해보지 않았겠
소. 작가가 되겠다면서 두툼한 책을 옆에 끼구 밤낮
<오-!, 아-!> 하며 다니는 사람이 없나, 축구에 미
쳐 짬만 있으면 경기장으로 내빼는 사람이 없나, 문
찬동무처럼 발명을 한다구 자재요 로력을 내라는
사람도 한둘인줄 아시오. 그 사람들의 응석을 다 받
아보십시오. 기관차대가 아니라 장마당이 되고말지
요.》

허진배의 얼굴에서는 쓰거운 웃음이 사라졌다.

《그저 틀어쥐고 내몰아야 합니다.》

이날밤 오향문은 잠들지 못했다. 허진배에 대한
노여움과 안타까운 생각으로 도무지 마음을 가라앉
힐수 없었다. 전선에서 피를 흘리며 싸우는 병사들

을 위해 부상당한 몸으로 군수열차를 운전한 허진
배가 아닌가. 오향문은 어려서부터 기관사를 존경
해왔고 자신이 기관사가 되기를 희망했다.

...오향문은 강원도의 두메산골에 태를 묻었다.
기차길에서 150여리 떨어진 외진곳이었다. 다섯살
때 전쟁이 일어났다. 전선은 고향마을에서 무척 가
까왔다.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전연지대인민들을 안
전한 후방으로 이주시키는 크나큰 사랑을 베풀어주
시였다. 도보로 수신회, 들추는 자동차적제함에서
머칠인지 모른다. 여기에서 어린 오향문은 기동처
럼 믿고 의지하던 어머니를 잃었다. 울다 잠들고 깨
어나서부터 울었다. 그 다음은 긴 기차여행이 시작
되었다. 그림에서나 본 기차, 그 신비한 세계에 발
을 들여놓은 오향문은 한동안 시름을 잊었다. 그러
나 준엄한 길이었다. 적 비행기는 악착스럽게 덤벼
들었다. 포탄이 비오듯 날아오는 바다가철길은 더
욱 위태롭고 험하였다. 숨막히는 차굴에서 머칠씩
기다리기도 했다. 참을수 없는 외로움이 또다시 밀
려들었다. 어린 오향문은 발버둥질치다가 단발머리
처녀차장의 자장가를 들으며 혹은 무섭게 생긴 구
레나룻의 기관사의 품속에서 잠들곤했다.

어느날, 그날은 궂은비가 내렸다. 열차는 어슬막
에 어느 벌판길을 달렸다. 갑자기 머리우에서 파르
릉-하는 천둥소리가 울리더니 차체가 심하게 흔들
렸다. 기관총소리가 화차지붕우에서 쿵뽉뽉했다.
비행기소리, 포탄 터지는 소리, 어린아이의 울부짖
음소리... 화약내가 코를 찌르는 연기속으로 열차는
그냥 달렸다. 어린 오향문은 한구석에 머리를 틀어
박고 놀란 토끼처럼 파들파들 떨었다. 열차는 무사
히 안전지대에 당도했다. 어른들이 화차에서 우르
르 몰려내리더니 어데론가 달려갔다. 오향문이도
그들의 뒤를 따라 뽀얀 증기에 휩싸인 기관차 있는
곳까지 달려갔다. 열차를 타고온 모든 사람들이 그
곳에 모여든듯싶었다. 웬일인지 근심에 싸인 얼굴
들이다. 누군가 흑- 하고 느껴울기 시작하자 모든
처녀들, 아낙네들, 할머니들이 울음을 터뜨렸다. 남
자들의 눈에도 눈물이 흘렀다. 오향문은 담벽처럼
서있는 사람들을 비집고 앞으로 나갔다. 턱수염이
시커먼 기관사아저씨가 잠자듯 기척없이 누워있었
다. 거무스레한 얼굴이 하얗다. 어제밤, 그에게 마
음어진 할아버지가 욕심쟁이 지주놈을 혼내운 옛말
을 재미나게 들려주던 그 아저씨였다. 오향문은 무
릎을 꿇고 앉아 잠자는 기관사를 살며시 흔들여보
았다. 《아저씨!》 대답이 없다. 또 불러본다. 역시
대답이 없다. 그러자 그는 갑자기 무심증이 살아났
다. 열흘전 어머니도 저렇게 잠자는것처럼 누워있

었다. 피곤이 몰려 깊이 잠든것만 같은 어머니를 웬 일인지 이웃집 아저씨들이 땅에 묻었다. 그리하여 영영 볼수 없게 되었다. 《어머니-》 오향문은 태를 치며 덩굴었다.

기관사의 영웅적희생에 대해 오향문이 깨달은것은 그로부터 쉿 후의 일이다. 그러나 의롭고 용감한것에 대한 동경심은 이때로부터 어린 가슴속에서 소중하게 자라기 시작했다. 그런데 허진배는...? 오향문이 존경해오던 그런 기관사가 아니었다. 둥글고 폭신한 안락의자에 15년간 앉아있는 사이에 인간에 대한 뜨거운 사랑을 간직했던 그의 심장은 짜늘한 재무지처럼 식어버렸다. 허진배의 론리에 의하면 엄격하다는것은 곧 랭담하다는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엄격성이란 가장된 방패물로 자신을 정당화하면서 남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생각하지 않으며 동지의 불같은 지향도 소중히 여길줄 모른다.

허진배에 대한 믿음과 기대가 컸던만큼 실망도 컸다. 그런데 자기는 어찌하여 그에게 따끔한 말을 한마디도 해주지 못하였던가 (동정때문에... 에잇 못난이!) 오향문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창문을 활활 열어제꼈다. 그래도 가슴답답하기는 매일반이다. 난생처음 담배라는것을 입에 대보았다. (쓰거워!) 창밖으로 뻥 던져버렸다. 불뚱 몇개가 꽃보라처럼 확 흩어졌다가 어둠속에 숨박꼭질을 했다. 그 다음은 심연과도 같은 어둠이 벌판과 그의 가슴에 짙게 덮쳐들었다. 갑자기 정비선쪽이 대낮처럼 환하게 밝아졌다. 기관차의 전조등불빛이다. 12046 열차의 견인기가 떠나있는것을 보니 벌써 3시 45분이다. 오향문은 대들보처럼 쪽 뻗으며 맞은편 장수산의 허리를 더듬는 그 불빛속으로 한순간씩 드러나군하는 조차선의 화차들을 보았다. 가슴은 더욱 답답해졌다. 저 많은 화차들에는 기계공장으로 가는 철재와 제철소의 쇠돌, 철을 놓쳐서는 안될 솜뭉이 실려있을것이다. 황철의 용해공들과 나무리벌의 농장원들, 그리고 주부들이 목빠지게 기다리는 귀중한 원료와 자재, 상품들이 때도 모르고 묵고있다.

나라의 수송문제를 놓고 그렇게도 심려하시던 어버이수령님, 미래에 대한 열렬한 지향과 포부밖에 없는 자기들을 혁명전위로 시대의 첨단에 세워주신 어버이수령님, 《일을 잘하고 와서 우리 함께 기념사진을 찍읍시다.》라고 친근하신 음성으로 말씀하시며 눈오는 문밖에 오래오래 서계시던 어버이수령님의 인자하신 모습을 생각하는 오향문은 울고싶도록 안타까웠다.

어버이수령님의 심려를 덜어드리겠다고 아글타글 애쓰는 한 일군조차 변변히 도와주지 못한 내가 어찌 그이의 혁명전사라고 말할수 있단말인가!

오향문은 마침내 밖으로 뛰쳐나왔다. 빈 방에서 몸부림이나 치고있을 때가 아니었다. 허진배와 속을 터놓고 의논해보자. 진실앞에서는 누구나 감동되기 마련이다. 그러나 그는 대장실에 이르기전에 몇어버렸다. 성이 나서 풀떡거리던 허진배와의 까다로울 대면이 두려워서가 아니었다. 방패처럼 내흔들던 추가계획서가 바람벽처럼 그의 앞을 가로막았던것이다. (기관차를 보름씩 세운다... 내가 지나친 요구를 제기하는게 아닌가!)

오향문은 흐뜩 눈-그러나 그 망막에 아무런 표상도 없이 공허하게 느껴지는속으로 어둠속을 망연히 바라보았다.

바람이 불었다. 학수골에서 맹렬한 기세로 불어오는 눅눅한 바람이 차고앞의 백양나무에서 마지막 잎을 털어내고있었다. 바람의 위세에 못이겨 꺾여 질듯이 휘여들었다가는 가까스로 머리를 쳐들고 몸부림치는 그 나무는 마치 고향을 치고 주먹질을 하며 통곡하는것 같았다. 오향문은 그 고향소리 그 통곡소리를 들으며 첫발자욱을 성큼 내디디었다.

오향문은 모험없이는 도대체 기적을 바라지 말라는 어떤 학자의 론리를 전적으로 믿어오지는 않았다. 그러나 달리는 할수 없었다. 달리는 기관차에서 실험테타를 측정하자! 이것이 그의 결심이었다. 고압이 흐르는 기관차의 기계실에서 측정실험을 한다는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오향문은 너무나 잘 알고있었다. 그러나 실험실의 테타를 헌 휴지장처럼 무시해버리는 기관차에서 직접 실험을 해본다는것은 락관할만도 했다. 이런 의미에서 허진배의 한마디 조언이 오히려 고맙기조차 했다. 애를 먹은것은 오히려 문찬기수를 설복하는 일이었다.

《아니, 소조원동무 정신이 있습니까.》

오향문의 결심을 듣고난 문찬은 처음에는 불에 덴 사람처럼 필쩍 놀라더니 다음은 어처구니가 없어했다. 오향문은 근기있게 설복했다. 그래도 막무가내다.

《차라리 설을 지고 물속에 뛰어들지요. 난 못하겠습니다.》

《왜 겁이 나오?》

《예?!》

문찬은 흠칫했다. 대바른 그고보면 어지간히 아픈 말일것이다. 오향문은 아픈곳을 면바로 찢렸다고 생각하고 숨돌릴 틈을 주지 않았다.

《종소, 그럼 내 혼자 하겠소. 이제 보니 문찬동무

두 영 소심하기 짝이 없군.》

《아니, 소조원동무… 생각을 좀 해보자구요.》

문찬은 누구를 원망하는지 입안소리로 툭툭거렸으나 설복은 된 모양이다.

위험, 그것은 사실이었다. 여러개의 대형견인전 동기가 한꺼번에 와르릉거리는 기계실안은 우선 그 귀아픈 소음에 초벌 얼혼이 빠져버릴것 같았다. 그들이 측정해야 할 요소들, 주변에는 바줄같은 동력선이 얹혀있었는데 어둡시그레한 구석에서는 시퍼런 불줄기가 번개불처럼 병곳병곳 살아났다. 압착된 공기에 숨쉬기조차 힘들었다. 오향문은 개폐기 떨어지는 소리가 딱- 하고 울려올 때마다 등골이 서늘해졌다. 그러나 그가 더 마음을 쓴것은 이것이 허진배대장과의 처음이자 마지막대결이 될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었다. 테타를 얻지 못하면 열정에 불타는 한 인간은 영영 매장될것이며 허진배의 관점은 점점 굳어져버리고말것이다. 그로 인하여 혁명에 주는 손실은 얼마나 크고 엄중할것인가. 그러나 그들은 금박장사나 방음장치가 갖추어진 실험실에서는 상상할수 없었던 실험테타를 변화무쌍한 궤도로 달리는 기관차에서 얻어낸것이다. 대단한 발견이다.

과학연구사업에서는 우연한 계기가 땃히고 얹힌 고리를 풀어주는 경우가 있는것이다. 이때의 일을 두고 최문찬기수는 자기의 일기책에 이렇게 써넣었다.

《나는 들꽃의 생태적특성을 온실화분에서 찾고 모대긴셈이다. 이 어리석음을 우연하게 암시해준 사람은 허진배대장이겠지만 실천으로 일깨워준 사람은 물론 3대혁명소조원 오향문이었다.》

그런데 오향문은 시험의 마지막순간에 우려하던 그 참혹한 결과를 빚어내고말았다. 구석진곳에 있는 마지막요소를 측정하던 그는 열차가 분기기를 넘어설 때 그만 몸의 균형을 잃고 허둥거리다가 고압회로를 다쳤다. 전신을 비트는것 같은 아픔을 느낀 오향문은 《앗!》하고 외마디소리와 함께 던져진 짐짝처럼 차체에 구겨박혔다. 감전된것이다. 기관차가 집전기를 내렸다는것만 생각하고 잔류전류의 위험성을 망각했던것이다.

오향문은 가까운 군병원에 실려갔다.

오향문이 감전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맨먼저 달려온것은 허진배였다.

구급처치를 받은 환자는 기척없이 누워있었다. 저압감전에 그 농도도 가벼운것이여서 며칠 푹 쉬고나면 별일없겠다는 의사의 말이 있었으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허진배를 위안하느라 꾸며낸 말일것이

다. 허진배는 간호원마저 돌아가고 혼자 남게 되자 오향문의 가슴에 귀를 대보기도 하고 파열창을 구급처치한 왼팔을 얼없이 더듬어보기도 했다. 바른손으로 들어온 전류가 왼팔을 뚫고나갔던것이다. 허진배는 이마며 목덜미에서 땀이 줄줄 흘러내렸다. 무심중에 던진 실언이 이런 결과를 빚어내리라고는 꿈에조차 생각 못했다.

심중하라. 자중하라. 그리고 무엇보다도 엄격하고 팽철하라. 이것은 기관차대의 공인을 넘겨받은 15년전부터 허진배가 지켜오는 신념이요, 의지였다.

자기가 실수 없이 대장자리를 지켜온것도 바로 이 드팀없는 자기 신념에 충실했기때문일것이다. 그런 자기가 어떻게 용납 못할 망발을 해서 이런 실수를 저질렀는지 모를 일이다. (늑없는가?) 이런 허무하고 맹랑한 생각이 불쑥 떠올랐으나 절박한것은 자기반성이 아니라 소조원 오향문이 한시바빠 자리를 털고 일어났으면 하는 것이었다.

허리를 잔뜩 굽히고 환자의 사지를 더듬던 허진배는 등뒤에서 기척이 나자 범상한 표정을 지으며 자세를 바로잡았다. 땀에 후줄근히 젖은 문찬이 사과꾸레미를 들고 문턱에 서있다. 겁에 질린 눈으로 방안을 두리번거리는 그를 보자 잠시나마 회심에 잠겼던 허진배는 대변에 속에서 방치같은게 꿈틀거렸다. 그러거나말거나 문찬이는 눈섭 하나 까딱하지 않는다. 엄한 대장의 옆을 별로 어려워하지 않고 빠른 걸음으로 스쳐 지나간 그는 침대머리맡으로 다가갔다. 잠자는 오향문의 얼굴을 물끄러미 내려다보던 문찬은 여전히 말 한마디 없이 머리장앞에 쭈그리고 앉아 사과를 한알한알 그속에 집어넣었다. 이 방에 도대체 허진배가 있다는것조차 느끼지 못하는것 같았다. 그러나 허진배는 도량이 넓은 사람이다.

《동무의 그 <예비>가 결국 이런 결과를 가져왔군, 응.》

랑만가와 같은 문찬이를 어이없이 지켜보던 허진배가 침묵을 깨뜨렸다. 문찬이는 대꾸를 안했다.

《소조원동무의 사업을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이거 어디 댔소. … 기관차대 망신은 도말아시키구 쫓쫓쫓.》

《목소리를 좀 낮추어주십시오. 환자가 깨어납니다.》

문찬의 첫 대답이다. 목소리는 낮았다. 그러나 그 목소리가 어찌나 당당하고 의젓했던지 허진배는 면박줄 생각도 못했다.

《만약 대장동지가 시험용기관차만 보장해주었다

면 이런 불상사는 생기지 않았을 겁니다.》

《그럼 동무는…》 허진배의 목에 동아줄 같은 심줄이 시퍼렇게 살아 꿈틀거렸다. 때마침 밖에서 인기척이 났다. 무슨 말인가 하려던 허진배도 어깨숨을 쉬던 문찬이도 다같이 문쪽으로 시선을 보냈다. 출입문을 밀고 들어선것은 의외로 실험공처녀였다. 그의 손에도 무엇인가 들려있었다. 그래서 방안공기가 다시 팽팽해졌으나 있을상싶던 충돌은 일어나지 않았다.

회복기에 들어간 환자에게 입원생활처럼 따분하고 지루한것은 없다. 난생처음 병원침대 신세를 저보는 오향문은 하루를 열흘맛잡이로 힘들게 보냈다. 기관차대와 멀리 떨어진곳이니 말동무도 자주 찾아오지 못한다. 금급한것이 한돌이 아니다.

그날도 오향문은 침대에 비스듬히 기대어 해종일창박을 내다보고있었다. 며칠새 더 높아진듯싶은 맑은 하늘, 단풍진 산… 창문으로 흘러드는 한낮의 따스한 해빛을 받으며 나날이 변해가는 가을의 풍치를 바라보며 생각을 굴리던 그는 깜빡 졸았다.

…자름자름한 봉우리들이 춤추듯 우쭐우쭐 다가왔다가는 재빨리 뒤로 물러나군했다. 비취빛 하늘을 배경으로 아찔하게 솟은 산들은 단풍든 활엽수로 울긋불긋 단장을 해서 가을의 정서를 더욱 짙게 했다. 락조를 받아 금빛으로 번들거리는 절벽아래는 풀어놓은 띠처럼 오불꼬불한 내암천의 지류가 길게 누워있다.

뚜-렐차는 손가락같이 좁은 절토구간을 지나면서 긴 고동을 울렸다. 오향문은 미소를 지으며 흘러가는 풍치를 취한듯이 바라본다. 깎아지른듯한 석벽굽인돌이, 그 다음 평퍼짐한 등성이, 등성이에 잇달아 긴 차굴… 아! 단풍, 이끼오른 석벽의 중허리에 단풍, 새파란 애기솔이 다문다문한 산기슭에도 단풍, 온통 단풍천지이다. 오향문은 어린애처럼 환성을 지른다. 대학입학통지서를 쥐고 평양으로 달려갈 때에도 가슴 울렁이는 첫 실습여행 때에도 저 단풍과 저 산정의 가을풍치에 얼마나 매혹되었던 그였던가.

나라가 허리띠를 졸라매고 푼전을 쪼개써야 했던 그 어려운 시기에 위한 수령님께서서는 벌써 오늘을 내다보시고 전기화의 첫 기발을 꽂아주신 이곳, 오향문은 이 길을 지날 때마다 조국의 궤도우에 철도 전기화의 첫 로선을 그어주시고 언제나 시대의 앞장에 서라고 붉은 기발을 전기기관차에 몸소 달아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숭고하신 영상을 그리며 푸른 꿈을 키워왔다. 침묵밑에서 덩구는 조약돌 하나, 풀 한포기 무심히 대할수 없는 길이다. 지금 그 길

로 꽃장식을 한 중량렬차가 기운차게 달려가고있다. 하나, 둘, 셋… 열… 스물… 쉰… 환호성이 울린다. 늙은 역장도 단발의 어린 전철원처녀도, 렬차에 오른 낫모를 길손들도 손을 흔든다. 꽃술이 설태인다. 어머니! 어린것을 두고 차마 눈을 못감으시겠다던 어머니가 살아생전처럼 웃으며 손을 흔든다.

《어머니, 저는 어버이수령님의 사랑의 품속에서 기사로 자라났습니다. 지금 이 중량렬차를 몰고 어버이수령님께 충성의 보고를 올리려고 평양으로 갑니다.》

오향문은 목이 짝 메였다.

《오냐 장하다 내 아들이!》

어머니의 두볼로 맑은 이슬이 방울져 흐른다. 아버지 전선에서 전사했다는 비통한 소식을 듣고도 눈물을 보이지 않던 어머니가 지금은 눈물을 감추지 못한다. 운전대를 쥔 문찬의 눈에도 물기가 번뜩 거린다.

푸른 산발, 가없이 넓은 들판, 긴 기적소리, 강… 차체가 부르르 떨린다. 삐걱거리는 제륜자소리며 완충기소리, 웨침소리…

《셋! … 서라!》 누군가 기발을 흔들며 고래고래 소리친다. 얼굴모습은 분명치 않으나 목소리만은 귀에 익다. 아하, 기술지도원이군. 아니다, 좀 더 자세히 보니 얼굴이 화독처럼 단 사람은 허진배대장이다.

《모험을 해도 분수가 있지.》

《모험이 아닙니다. 여기 과학적인 실험테타가 있습니다.》

문찬이 주머니에서 종이장을 꺼내 흔든다.

《안되오. 그것이 설사 가능하다 해도 승인할수 없소.》

《우리가 새 기준량을 창조하면 저절로 승인할겁니다.》

이번에는 오향문이 부르짖었다.

《그건 희망에 불과하오.》

《믿으십시오.》

《믿는것도 중요하지만 질서를 지키는것은 더욱 중요하오!》

허진배는 돌아선다. 부르고 또 불렀으나 뒤 한번 돌아다보지 않는다. 《대장동지… 대장… 동…지-》 오향문은 안타까이 소리를 지르며 발을 구르다가 눈을 떴다. 푸른 하늘과 황금파도가 출렁이는 벌판은 가뭇없이 사라지고 흰벽과 누군가를 위협하는 정적대우의 굵직한 주사가기 시야에 안겨온다. 그는 코를 찌르는 석탄산수냄새에 여기가 달리는 렬차가 아니라 병원이라는것을 느꼈다. 놀라 깨인 명

청한 눈으로 두리번거리던 오향문은 또 한번 자기 눈을 의심했다. 원탁앞에 웅송그리고 앉아있는 문찬이를 본것이다.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두번째번 울리훔고 내리훔고하던 그는 문찬의 다섯번째 단추에서 눈길을 멈추었다. 정복단추와 색깔도 약간 다르고 크기도 다른 단추이다. 그때문인지 문찬의 옷차림은 여느때없이 단정치 못하게 보였다. 문찬이는 오향문의 나무라와하는 눈길이 무엇을 더듬고 있는지를 느낀 모양으로 손으로 슬며시 단추를 감추었다.

《이놈의 단추때문에 대장동지에게 진땀을 뺐았는데, 기차시간이 돼서...》

《원, 그렇게 두 단추가 없었던말이요!》

《그렇게아니라 딸애보구 좀 달라고 했더니 글썽이 모양을 해놓았군요, 허.》

문찬은 머리를 벽벽 긁는다. 오향문은 이내 화제를 바꾸었다. 오래간만에 찾아온 사람에게 하찮은 일로 해서 거북한 말을 했구나 하는 후회심이 들었다. 그러지 않아도 묻고싶은것, 알고싶은것이 너무나 많았는데...

《시운전준비요? 그저 그러루하지요.》

풀이 죽어 떠떠떠떠 이어나가는 문찬의 이야기는 하나도 반가운것이 없었다. 대장의 승인없이 실험을 허용한 기관사는 처벌을 받았고 자기를 도와준 실험공처너는 비판을 받고 울었으며 또 그 자신은 먼 원창지구로 이동작업을 가게 되었다는것이다.

《실험결과를 얘기했겠지요?》

《어디 내 말을 통 들어줘야지요. 앵이 참!》

오향문은 아연해서 아무 말도 못했다. 사실 그는 지금쯤 허진배가 생각을 고치고 하다못해 문찬에게 실험조건이라도 보장해주었으리라고 믿었다. 그런데 오히려 더 먼곳으로 보내다니...

문찬은 허리를 잔뜩 굽히고 멍하니 마루바닥을 바라본다. 그새 마음고생을 한 탓인지 고무잡잡한 얼굴이 더욱 수척해보였다. 런던의 정조차 느끼게 하는 그 측은한 모습이 오히려 오향문을 분격케했다. 선반기앞에서조차 기관차의 고압시험을 생각하던 그 정열은 어데다 켜버리고 서리맞은 떡잎처럼 후줄근해서 한숨만 푹푹 쉬는지 알수 없었다. 그러나 오향문은 한마디도 입밖에 낼수 없었다. 귀속에서는 별떼가 우는것처럼 뽁뽁거렸고 머리는 현훈증을 만났을 때처럼 어질어질했다.

문찬은 손목시계를 연신 들여다보더니 사죄하듯 어쭈운 미소를 지으며 일어났다. 그가 나가자 갑자기 허전했다.

오향문은 침대에 누워있기가 피로왔다. 이것은

단순히 한 인간에 관한 문제가 아니였다. 책임일군 한사람의 관점이 바로 서있지 못한것으로 하여 오늘은 문찬의 정열이 우박을 맞았지만 래일은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창조적지혜와 열정이 꽃도 피기전에 서리맞은 떡잎처럼 시들어버리겠는가 생각하니 잠시나마 두다리 쪽 펴고 누워있을수 없었다. 그는 갈증 만난 사람처럼 목단추를 끄르며 창가로 다가갔다.

저녁해빛이 줄지어 늘어선 가로수의 줄기줄기사이로 비단필처럼 엇갈려 내리질렀는데 황든 나무잎들이 한잎 두잎 조용히, 그러나 서둘러 땅에 내려앉는다. 그리로 휘청휘청 걸어가던 문찬이가 우뚝 멎어서 고개를 돌렸다. 거의 허탈상태에 빠진듯 초점이 분명치 않은 눈으로 멍하니 바라보다가 다시 걸음을 옮겨디디였다.

오향문은 웬일인지 알짜지근해지는 가슴을 안고 서둘러 담당의사실로 갔다.

밤 10시, 오향문은 긴 고동소리를 들으면서 기관차 대장실에 들어섰다. 허진배는 원고용지를 잔뜩 널어놓고 경험기사를 쓰고있었다.

《아니, 좀 더 쉬지 않구...》

허진배는 달리던 펜을 멈추고 오향문을 의아하게 바라보았다. 광대뼈가 힘껏 두드러진 상한 얼굴이며 겹쳐입은 옷통밑으로 봉대감은 팔을 찬찬히 살피던 그는 원고용지를 한옆으로 슬금슬금 밀어놓았다.

《정말 면목없게 뻔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꾸밈없는 진실이 느껴졌다. 오향문은 망설이지 않을수 없었다. 인정으로 대해주는 사람에게 귀 거슬리는 말을 할수 없었다. 그는 생각을 달리했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일군들자체가 나쁜것이 아니라 그들의 낮은 사상이 나쁘다고, 그래서 깨우쳐주고 손잡아 이끌어주라고 얼마나 간곡하게 말씀하셨던가.

오향문은 가슴을 헤쳐놓고 이야기했다. 최문찬의 창의고안이며 자신의 부주의로 여러 동무들에게 근심을 끼치기는 했으나 성공적인 이번의 운행중실험에 대해서...

《대장동지가 달리는 렬차에서 해보라는 귀뜸을 해주지 않았다면 이런 성과는 기대조차 할수 없었을겁니다.》

오향문의 이 말에 허진배의 얼굴이 별경게 되었다.

《그러나...》 오향문은 자세를 흐트러뜨리지 않고 계속했다.

《대장동지를 기쁜 마음으로 대할수 없는것이 유

감스럽습니다. 전 솔직히 말해서 문찬동무가 이동 작업장으로 간다는 말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니다. ... 대장동지 이럴수야 있습니까까.》

《내 이런 때는 정말 섭섭합니다.》

잠자코 듣던 허진배는 별안간 표정을 바꾸며 몸을 솟구쳐 일어났다.

《다른 사람에게는 못하는 소리가 없는데 나한테는 왜 속을 털어놓지 못하는가말입니다.》

허진배는 문찬에 대해 속에 억눌고있던 소리들을 터놓았다. 목소리가 스스로 높아지고 얼굴에 피가 벌겋게 물렸다. 오향문은 여러모로 심기가 좋지 않았으나 되도록 자세를 흐트러뜨리지 않으려고 애썼다.

《전 대장동지가 아래일군들에게 좀 더 뜨겁게 대해주었으면 합니다.》

《물론 그래야지요. 그러나 원칙적인 문제와 인정적인 문제를 혼돈해서는 안되지요.》

허진배는 절반도 타지 않은 담배를 허리가 부러져라 눌러 끄고 계속했다.

《문찬동무를 좀 보십시오. 글썸 맞지도 않는 단추를 정복에 달고 내앞에 척 나타났습니다. ... 이런 사람에게 어떻게 좋게만 대할수 있습니까까.》

오향문은 하고싶은 말이 많았으나 오늘은 그만두기로 했다. 허진배가 그렇게도 경계하는 흥분상태에 자신이 깊숙이 빠져있다는것을 느끼지 못하는이상 이야기가 길어지거나 했지 실속은 있을상싶지 않았다. 오히려 이 순간 왜 그런지 그의 머리속은 문찬에 대한 생각만이 어수선하게 떠올랐다.

치차처럼 맞물고 돌아가는 렬차운행표에 의해 모든 단위 모든 일군들의 행동이 규제되는 철도운수에서 규률은 생명과도 같은것이다. 물론 허진배의 그릇된 관점을 그것으로 변명할수는 없지만 최문찬의 결함은 눈감아줄수 없는것들이었다. 한가지 의로운 일을 위해서 다른 사업을 되는데로 하는것은 혁명하는 사람의 일본새가 아닌것이다.

어느날 점심시간이었다. 오향문은 최문찬의 안해를 만나보리라 생각했다. 직장에도 다니지 않는다니 세대주의 사업을 좀 더 알심있고 간지게 도와줄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오향문으로 하여금 주인없는 가정을 방문할 결심을 가지게 했다.

사택마을어구에서 갈라진 왼쪽길을 따라 누엿한 등성이 하나를 넘으니 외파로 떨어진 기와집이 한채 보였는데 그것이 최문찬의 집이라고 했다. 절구질소리 같기도 하고 그렇지 않은것 같기도 한 분명

치 않은 소리가 마당에서 들려온다. 오향문은 다행이다 생각하며 널문을 밀고 안으로 들어갔다. 주부라고 짐작되는 녀인은 보이지 않고 열댓살쯤 된 계집아이와 뽕빵바지를 입은 사내아이가 무연탄무지 옆에서 뭇가 하고있었다. 그들은 자기일에 어찌나 심취되었던지 사람이 뒤에 와 서있는것도 느끼지 못한다. 어린것들이 부모들 없는 사이에 무슨 장난질을 하는가 생각하며 그들에게 다가가던 오향문은 그 자리에 굳어지고말았다. 장난질이 아니라 구멍탄을 빚고있었다. 손이 새까맣게 어지러워진 계집아이는 다짐기를 끄꽁 갑자르며 들어올렸다가 거의 매달리다싶이 아래로 떨어구었다. 불삽을 쥔 사내아이가 누나를 올려다본다.

《누나 내 좀 할가?》

《넌... 못해...》

장난질이라고 보기에는 그들의 행동이 너무나 절박하고 진지한것이였다.

오향문은 얼른 다가가 성한 바른손으로 다짐기를 잡았다. 갑자기 두 아이는 웬일인가 해서 얼굴을 쳐들었다가 해해 웃었다.

《어머니는 어데 가셨기에 너희들이 탄을 빚니?》

그러자 천진스러운 웃음이 피여올랐던 두 아이의 얼굴이 대번에 흐려졌다.

《병원에... 갔어요.》

두 아이의 눈에는 눈물이 가랑가랑 피었다. 오향문은 새삼스럽게 주변을 살피보았다. 아버지가 빚느라고 이겨놓았던듯싶은 탄무지, 그옆에 빚어놓아 말라든 구멍탄과 방금 빚은 다섯개의 구멍탄, 그 가운데 세개는 마르기도전에 깨어져있었다. (그랬구나!) 오향문이는 강한 충격을 받았다. 언제인가 정비중대의 휴게실에서 본 문찬의 마른 국수보따리며 회색단추, 그리고 허진배가 꾸밈처럼 외우던 말들이 몽롱한 의식속에서 불췌처럼 살아나군했다. 어째서 자기는 그 모든 문제들을 심상하게 대했던가. (인간을 뜨겁게 대하라, 믿으라!) 그는 이런 말을 얼마나 많이 했던가. 풀수 없는 문제때문에 고민하는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 위험한 일도 주저하지 않았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이 모든것은 어버이수령님의 높으신 뜻과는 너무나 거리가 멀었다. 오향문은 다달아야 할 령마루는 아득히 멀고 높으며 자기는 이제 그 길우에서 겨우 첫걸음마를 땀데 불과하다는것을 더욱 통절하게 느꼈다.

오향문은 방안으로 들어갔다. 거기에서 그는 또 하나의 가슴아픈 현실을 목격하였다. 각이한 규격

의 전기선들이 가로세로 얹힌 옷방에는 자그마한 기관차모형이며 접촉기들과 저항들 지어는 자전거 바퀴까지 달린 회전대까지 있었는데 마치 작은 실험실을 방불케 했다. 낮에는 직장일과 서툰 동자질을 하고 밤은 밤대로 싸늘한 이 옷방에서 밝혔을 것이다. 그는 아침이면 땀을 철철 흘리며 직장으로 달려오곤하던 문찬의 얼굴이 눈앞에서 얼른거렸다. 그런 말없는 열정가를 개인리기주의자로, 허망한 몽상가로 치부하고 줄곧 가로 흘려보던 허진배에 대한 노여움으로 하여 속이 부글부글 끓었다.

또다시 구멍란 짙는 소리가 마당 한가운데서 울렸다. 생각같아서는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고싶었다. 《애들아, 아버지가 오신 다음에 하시라고 놔두려 무나.》

《우리 아버지는 짬이 없어요. 엇그제두 밤에 탄을 빗었는걸요 뭐.》

계집애의 말에 오향문은 기특한 생각이 들었다.

《허 천천히 마저 빗으면 되지 않니.》

《연구두 해야지요!》

《뭐-?!》

오향문은 사내아이가 내붙이는 말에 말문이 킁 막혔다. 어린아이의 그 목소리가 수백수천톤의 공기함마소리보다 더 크게 자기의 흉벽을 두들기는 것 같았다.

구멍란 짙는 소리가 똑 끊어졌다. 웬일인가 해서 밖을 내다보니 누구한테서 말을 듣고 왔는지 허진배대장이 널문앞에 장승처럼 뻗치고 서있다.

…어스름이 깔린 마을길로 두사람이 걸어가고 있었다. 한쪽 어깨가 약간 처진 허우대 큰 중년은 자주 마른 기침을 했고 학생모를 쓴 청년의 눈에는 물기가 번뜩거렸다.

집집의 굴목에서 저녁연기가 가늘게 피어오른다. 구수한 냄새가 풍기고 그릇 부딪치는 소리가 달그락거린다. 불빛이 흘러나오는 방들에서 사람의 그림자가 얼른거린다. 캐드득거리는 어린것들의 웃음소리, 누군가를 찾아부르는 너인의 청높은 목소리, 그 다음은 한순간씩 고요가 흐른다.

오향문은 이 음량, 이 고요 속에서 단란한 가정적 체취를 느꼈다. 저 불빛 밝은 창문을 통해 젊은 야기어머니의 행복한 얼굴과 옛말을 해달라고 조르는 천진란만한 어린것들의 별담은 눈을 본다.

《대장동지!…》

오향문의 목소리는 떨렸다.

허진배는 묵묵히 기다린다. 오향문은 갑자른다.

그러나 목소리는 목구멍에 걸려 어둠속 저쪽에서처럼 들려온다.

《대장동지는 문찬동무의 이 사정을 언제 알아봤습니까. 가슴아프니까… 대장동지!》

허진배는 소조원 오향문에게 두번째로 대답을 하지 못했다.

그들은 갈림길에서 잠시 주춤했다가 말없이 헤어졌다. 허진배는 사무실이 있는 오른쪽으로, 오향문이는 합숙이 있는 왼쪽으로…

그날밤, 어른 없는 최문찬의 집에 두사람이 거의 같은 순간에 나타났다. 오향문이 이불보짐을 둘러메고 대문을 들어서니 허진배의 부인이 어린 오누이의 손목을 붙잡고 마당 한복판에 서있었다.

《이 애들은…》

너인은 웃고름으로 눈굽을 찍었다.

《애어머니가 퇴원할 때까지 제가 돌보겠어요.》

오향문은 슬그머니 낮을 돌려버렸다. 두볼로는 뜨거운것이 하염없이 흐른다.

밤은 소리없이 깊어갔다. 그러나 잊지 못할 이 밤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가슴속에 영원히 새겨질 것인가!

첫서리가 내린 구내길은 더 곧고 더 넓어보였다.

출입선을 드나드는 기관차들과 정비선의 높은 덕우에 뻗치고 서서 소리를 치는 준비기관사의 얼굴 표정이며, 역양에서 간밤의 수송전투진행정형을 제나름으로 가늠해보던 오향문은 실험실앞에서 우뚝 떴어섰다. 어느 부지런한 친구가 결선로의 마른 잡초를 말끔히 뽑아버린 희한한 일때문만은 아니었다.

《문찬동무예요?》

장거리전화를 거는 실험실처녀의 높은 목소리가 열려진 문새짬으로 흘러나왔다.

《빨리 돌아와야 되겠어요… 그럼요, 실험을 계속 하기로… 아이 정말 대장동지가 승인하지 않구요. 그리고 대장동지랑 소조원동지랑 아이들을 데리고 병원에…》

해가 솟았다. 눈부신 해살은 키높은 차고의 지붕과 헐벗은 백양나무의 상수리로부터 차례차례로 더듬더니 마침내 온 대지를 감쌌다. 서리내린 구내의 구석구석과 기관차의 열창문에도, 그리고 출근길에 오른 종업원들의 머리우에도 아침해살이 눈부시게 빛난다.

해빛은 언제나 따스하고 부드러운것이다.

오향문은 눈귀를 가느스름하게 쪼프리고 걸음을 옮기디디였다.

바다를 막는 사람

리화

청년건설자들을 태운 버스 한대가 《선들포》 정류소를 떠나 《두루섬》을 향해 떠났다. 방금 기차에서 내려 버스로 옮겨탈 때부터 웅성웅성하던 청년들은 부지중 밥жат듯 잠짓해졌다.

운도간석지건설장으로 배치되어가는 이들은 《선들포》에 이르면 배를 타고 곧장 섬건설장으로 건너가리라고 생각했던가보다.

한데 이름만 들어도 앞이 탁 트인 창망한 바다가 안겨주고 풍어기를 날리며 기계배들이 내달아올듯 싶은 포구는 어데로 갔으며 파도에 흔들리는 배가 아니라 버스에 앉아 두루섬으로 건너간다는건 웬 말인가.

《<운도>동무!》

《책임자동무!》

청년들은 섬건설장으로 배치되어가는 자기들을 맞이하기 위하여 운도에서 건너온 엄준석을 이렇게 부르며 물었다.

《우리가 <선들포>에 온건 틀림없는가요?》

《물역은 어딴니까. 배가 남산만하다는 물역은?》

준석은 그들의 흥심에 젖어드는 마음을 애써 누르며 말했다.

《이차 버스가 떠난곳이 포구였지요.》

《정류소자리가요?》

청년들은 어리둥절하여 기운 해의 별발속에 고요히 줄고있는 신들포를 다시 돌아보는것이였다.

하나 누군가는 사위를 둘러보며 아무래도 리해가 가지 않는듯 《신들포라-》 하고 중얼거렸다.

준석은 빙그레 미소를 지었다.

《우린 지금 바다물속으로 가고있는 셈입니다.》

《바다물속?...》

차안은 술렁거렸다.

청년들은 해초들이 흐느적이고 물고기들이 꼬리를 치는 신비한 수중세계를 볼것만 같아 차창밖으로 시선을 보내기도 하였다.

그러나 천천히 흘러가는 재빛들에서는 조개무지며 구죽바위들, 마른 술풀판만이 어렴풋이 옛자취를 알릴뿐 푸수하게 피고있는 작새판이며 들판을 쭉 건너간 고압전주까지도 오래전부터 여기에 변함없이 존재해온것인듯싶었다.

앞좌석쪽에서 의미심장한 이야기가 오간다는것을 눈치챈 뒤자리의 청년들은 엉치를 들고 앞으로 몸을 수그리며 《뭘라구 하우?》 《뭘?》 하고 귀를 강군다. 그러나 앞에 앉은 청년들은 제발 조용하라는듯 고개를 돌려 눈을 흘긴다. 그래 자리를 비여놓고 준석이결로 다가서는 동무도 있었다.

지금 이들은 운도에서 온 준석의 말을 듣는것이 더없이 중요한 일로 생각되는 모양이였다.

준석은 호기심에 불타는 눈동자들이 오직 자기 한사람에게 집중되고있다는것을 느끼자 몸돌바를 물랐다.

자기를 바라보며 나직이 주고받는 말까지 귀전에 울려왔다.

《저 얼굴빛 좀 보게. 난바다의 해풍이란 해풍은 혼자 다 맞은것 같구만.》

《대자연정복자의 표식이지. 저- 손등의 흠집두 그렇구.》

준석은 어이가 없어 속으로 웃었다.

운도건설장에서 일하는 사람치고 준석만큼 얼굴이 타지 않은 사람이 어데 있으랴. 그러나 이들은 자기처럼 불별과 폭풍우를 고스란히 맞으며 일한 사람은 난생처음 보는듯 그렇게도 환희에 차서 속삭이는것이며 그가 어릴적에 팽이를 까다가 남긴 자그마한 흠집조차도 바다를 막는 어려운 투쟁에서 남긴 사연 깊은 자취로 보는것이 아닌가.

준석은 비로소 자기가 이 청년들이 가슴설레이며 그려보는 미지의 땅, 운도간석지건설장에서 온 첫 사람이라는것을 새삼스레 느끼지 않을수 없었다.

아까부터 류달리 감동에 겨워 주위를 둘러보던 몸매 실한 처녀 윤송이는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다.

3년전에 그가 여기에 견학왔을 때만 해도 마파람, 새바람 거침없이 안겨드는 저 신들포에서는 기법선, 피망선, 안강망선들이 분망하게 드나들었고 펍 오래전부터 길손들을 맞아들이고 떠나보냈던듯이 어엿이 날개를 펼쳐든 저 멧쟁이 정류소자리에서는 물고기를 푸는 아낙네들의 웃음소리, 랑동차의 경적소리가 분주히 울리였으며 《풍년》 호 트락트르들이 벌판을 들었다놓으며 포전두령을 짓는 길 저편 감쟁이 곶에서는 주낙배들이 펄펄 뛰는 농어를

남아올렸다고...

윤송이는 그렇지 않느냐는듯 쌍가풀눈을 깜빡이며 준석에게 미소를 지어보이는 것이었다. 준석은 고개를 끄덕였다.

빠스가 지나갈 때마다 길옆에 무리로 내려앉았던 도요새들이 구름처럼 날아올랐다. 창밖 저쪽에는 바다를 정복하는 건설장에서만 볼수 있는 특유한 풍경이 펼쳐지고있었다.

어느날 해안선이던 돌쫓날쫓한 기슭에 벌거우리한 복부를 드러낸 산들이 험상을 하고 늘어서있었던 것이다.

그것은 마치도 전설적인 거인이 거대한 장검을 높이 들어 물역의 산들을 한칼에 베어던진것 같았다.

《저기 있던 거먹봉은 어디로 갔어요? 그리구 슬봉은 어디로 날아갔나요. 예? 건설자들은 언제와서 이 앞바다를 다 막고 운도로 건너갔어요?》

단발머리 송이에게는 대자연정복자들이야말로 그 어떤 신비한 전설의 주인공들처럼 생각되는 모양이었다.

반쪽만 남은 산들이 차창으로 비껴든 순간 준석은 그 어떤 못잇을 사연을 더듬는듯 무거운 표정을 지었다.

송이는 선망어린 얼굴로 물었다.

《동무두 저 거먹봉을 들어내는데 참가했겠지요?》

《거먹봉을?》

천천히 머리를 든 준석은 이렇게 반문할뿐 이내 대꾸를 하지 못했다.

그는 다시 한번 차창으로 비껴드는 한조각의 산을 바라보고는 침중한 어조로 말했다.

《참가야 했지요. 하지만 난 정말 아무것도 한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들에게는 준석의 이러한 태도가 지나친 겸손성으로밖에 리해되지 않는 모양이었다.

송이는 부러움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사람들에게 <이 땅을 우리가 건설했소>라고 말할수 있는 사람은 얼마나 행복해요. 내가 그렇게 말할수 있다면 더는 바랄것이 없었어요.》

준석은 어이없는 표정을 지었다.

청년들은 덮어놓고 그를 간석지건설에서 큰 업적이라도 이룩한 사람으로 단정하고드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가 선들포간석지를 개간할 때 이름조차 없던 하얗은 존재였다는걸 안다면 이들이 얼마나 서운해하랴.

준석은 정색하고 물었다.

《동무들은 모두 간석지를 개간할데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원대한 구상을 쫓피우려 여기로 오겠지요?》

《두말할 여지가 없지요. 이렇게 와보니 사내대장부로 태어나선 한번 해볼만한 일이란 생각이 드는군요.》

다부지게 생긴 한 청년의 시원스런 대답이었다.

그들의 씩씩하고 쾌활한 모습을 바라보며 준석은 깊은 감회에 잠기었다. 이곳에 첫발을 들여놓던 자신의 지난날이 너무도 방불히 되살아오는 것이었다.

준석이도 3 년전에 선들포간석지건설장으로 배치되어 올 때엔 이들처럼 천진관만한 청년이었다.

그때에는 준석이가 앉아있는 지금의 좌석에 운도건설장의 심덕심직장장이 앉아있었고 그는 바로 송이가 앉아있는 좌석에 자리잡았었다.

준석이 역시 건설장에서 온 덕심결에 앉아 가슴 울렁이며 새 일터에 대하여 많은것을 물었었다.

이런 즐거운 생각에 잠길수록 준석은 덕심직장장이 이번에 자기를 여기로 떠밀어보내게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라는것을 더욱 깊이 확신하게 되는 것이었다.

어제 운도간석지건설장에는 새로 수많은 청년건설자들이 배치되어온다는 반가운 소식이 짙 퍼졌다.

겨우내 얼음때속에 포위되어 지내는 섬건설자들은 큰 경사를 맞이한듯 기뻐했다. 저녁에 선전실에서 텔레비존을 보고있던 로동자들은 모두 새사람들을 맞아올 이야기로 활기를 띠었다.

그런데 이때 심덕심직장장이 방안을 둘러보며 던지시 말머리를 떼는 것이었다.

《이번엔 누구를 물에 보내서 새사람들을 맞아오면 좋겠소?》

섬건설자들은 새사람들을 맞아들이는데서도 자기나름의 독특한 전례를 가지고있으니 이런 일에는 의례히 섬직장적으로 가장 신망이 높고 특출한 공로가 있는 그런 일군들을 선발하여 보내군했다. 이것은 어느사이엔가 섬건설자들이 변함없이 지켜오는 하나의 《풍습》처럼 되어버렸다. 하기에 로동자들의 눈길은 약속이나 한듯이 오랜 간석지건설자인 덕심에게로 쏠렸다.

덕심은 채석직장의 산 력사였다. 바위같이 듚적

한 체구에 미더운 걸음걸이, 긴 설명이 없이도 앞가슴에 주르르한 훈장약장들이 간석지건설 20여년간 수많은 산들을 떠옮긴 그의 헌신적인 투쟁업적을 그대로 말해준다.

그가 척 나서던 그의 외모만 보아도 위훈을 갈망하는 청년들의 마음을 흔들어놓기에 충분할것이다. 하기에 사실상 그리로 누구를 보낼것인가 하는것은 구태여 논의할 여지도 없는 문제였다.

그런데 덕심은 힘주어 말문을 여는것이였다.

《이번에는 채석조장 엄준석동무를 보내는게 어떻습니까?》

너무나도 뜻밖의 말에 모두들 어리둥절하여 직장장을 쳐다보았다. 어이가 없어 껄껄 웃는 사람들도 있었다.

《허허 <빨간 샤쓰>가 대단하군.》

준석은 벌떡 일어나 누구를 조롱할 셈인가고 한마디 내뱉으려다가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고말았다.

《어쨌단말인가. 당당한 채석조장인데.》

옆에서 누군가 바지가랭이를 잡아당기었던것이 다.

...그가 선들포간석지에 온 해 가을이였다. 직장 선전실에서는 배내림사리를 코앞에 두고 가을철채석계획수행을 위한 군중토론이 있었다. 모임이 거의 끝나갈무렵, 회의를 지도하려고 내려온 사업소 기술과장이 맨뒤쪽으로 시선을 보내며 큰소리로 말했다.

《이번에는 여직껏 단 한번도 발언하지 않은 동무들의 말을 좀 들어봅시다. 저기 맨뒤에 앉은 젊은 동무? 말 좀 해보. 이름은 모르겠는데 옷깃새로 빨간 샤쓰 보이는 동무말이요.》

《<빨간 샤쓰>, 허허허... 준석이말이군.》

뒤를 돌아보고 영문을 알아챈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며 웃었다. 준석은 얼굴이 수수떡빛이 되어 고개를 움츠렸다. 이름을 부를 대신 빨간 샤쓰구 저찌구 한것이 못마땅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오죽이나 일을 질했으면 건설장에서 일한지 다섯달이나 되는 그가 한 사업소의 과장조차도 이름을 모르는 존재로 됐을가 하는 생각이 들었던것이다.

준석이 무안해하는것을 눈치챈 덕심이 기술과장에게 귀뜸을 해줘서야 그가 《허허, 빨간 샤쓰가 아니라 엄준석동무말이요》 하고 자기 말을 시정했지만 이번에는 준석의 이름을 아는 사람들조차 빙긋 빙긋 웃으며 《어서 말해보게. <빨간 샤쓰>》 하고 재촉하는것이였다.

그때 준석이 척 일어나서 그럴듯한 의견을 내놓았다면 오히려 이를 기회로 그에 대한 인식이 달라졌을지 모른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그는 종시 아무런 의견도 내놓지 못하였다. 그래 덕심은 하도 안타깝던지 《왜 의견이 없겠나. 하다못해 버력을 어떻게 치울것인가 하는 문제라도 내놓으라구.》 하고 튕겨주었지만 이는 그를 더욱 난처한 처지에 빠뜨려놓았을뿐이다.

(바다를 막는 보람찬 투쟁에서 한번 위훈을 떨쳐보자고 온 내가 이 꼴이 되다니?)

그 일은 준석의 가슴속에 하나의 수치로 남아있게 되었다. 이것이 준석을 더욱 분발시키는 계기로 되었을지 모른다. 어쨌든 그때부터 직장사람들은 준석을 일러 《빨간 샤쓰》라고 부르기가 일쑤였던것이다....

선전실은 조용해졌다. 정색하고 장내를 둘러보던 덕심은 눈썹 한오리 까딱하지 않고 고집스럽게 강조하는것이였다.

《준석동무를 보냅시다.》

모두들 영문을 몰라하는 눈치들이였다.

준석은 이 침묵을 참아낼수가 없었다. 그는 다시 일어나 한마디 하고야말았다.

《전례대루 뭔가 건설장에서 제몫을 탁탁히 해낸 사람을 보내두룩 합시다.》

하자 덕심은 껄껄 웃었다.

《이거 내가 일을 잘못했구만. 마치도 이런 일에는 특정한 사람들만 가는것처럼 만들어놓았거든. 그래 말들해보시오.》

준석동무도 간석지건설장에서 그만큼 일했으면 이젠 제가 한 일에 대하여 새사람들에게 긍지높이 말해줄수 있지 않을까.》

준석은 대꾸를 하지 않았다. 그러나 덕심은 제기한 문제는 이미 락착된것으로 여긴듯

《그럼 그렇게 합시다.》라고 힘주어 오금을 박는것이였다.

텔레비존의 은빛화면에는 준석이 좋아하는 요청 무대가 펼쳐졌지만 그는 슬며시 선전실을 나섰다.

사위에는 어둠이 깃들었다. 준석은 이름할수 없는 자기불만에 휩싸여 갓 내던진 조개껍질들을 와작와작 밟으며 함숙으로 내려왔다.

(내가 새로 오는 청년들을 데리고 우리가 건설한 선들포간석지를 거쳐온다!)

이렇게 생각만 해도 준석은 가슴이 찢릿해왔다.

그렇게 되면 어차피 그들은 선들포간석지에 깃든

이야기들을 들려달라고 자기에게 묻게 될것이다. 그런데 과연 내가 그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할수 있단말인가.

창가에 다가서서 간석지건설장에 온 이후의 자기 생활을 꼼꼼히 돌이켜보느라니 처음 이곳으로 오던 때가 생각되었다.

…십덕십이 준석이넬 데리고 선들포간석지로 올 때였다.

앞에는 만조의 바다가 넘실거리고있었다. 한낮의 양광을 받아 다채로운 빛을 발산하는 바다는 넘실 넘실 기슭으로 밀려와서는 하얀 석축에 부딪쳐 거품꽃을 피워놓곤하였다.

준석이네들에게 휩싸여 해안방조제우로 걸음을 옮기던 덕심은 성벽같이 짙은 제방을 가리키며 말했다.

《석축은 우리 건설자들의 얼굴이요. 아마 동무들은 제방설에 돌비늘처럼 덮인 장식들이 모두 그제 그제거니 할지 모를게요. 그러나 이 제방을 곱게 단장하려고 애쓴 사람들은 반드시 자기가 다듬은 돌들을 알아보는 법이요.》

그의 얼굴에는 새로 오는 젊은이들이 후날 자신이 건설한 제방우를 걸어가며 자기의 돌을 꼭꼭 알아보는 사람이 되다고 당부하는 그런 간곡한 심정이 뜨겁게 어려있었다.

그리고는 제방 한옆으로 걸어가 한무더기의 돌무지앞에 쪼그리고앉는것이였다. 청년들은 웬일인가 하여 그옆으로 다가섰다. 그는 안주머니에서 비닐로 싸인 시약과 지시붓을 꺼내더니 슬쩍 돌우에 그어보는것이였다.

하자 푸른 돌이 부글부글 끓어오르며 흰 연기를 물물 피워올리였다. 신기한 광경이였다. 덕심은 옆에 서있는 준석에게 지시붓을 넘겨주며 돌을 가리켰다. 그어보라는것이였다. 그는 지시붓을 고누어 들고 돌우에 글자를 새겼다.

《바-다-의-정-복-자》 붓을 움직일 때마다 글발들이 불길처럼 끓어올랐다.

준석은 두눈을 빛내이며 단정했다.

《이 돌은 석회석이군요. 그리고 이 시약은 염산이지요?》

《맞았네. 이 돌은 걸봄엔 청석같지만 실은 <썩은 돌>이지. 동무들은 이런 돌이 절대로 제방에 들어가게 해서는 안되네.》

《썩은 돌!》

준석은 창가에서 물러나며 혼자소리로 중얼거렸

다....

이튿날아침 준석은 새 간석지 건설자들을 데리러 《선들포》로 떠났다....

빠스는 무연한 간석지우를 경쾌하게 달리였다. 차창으로 시원한 바다바람이 훅훅- 밀려들었다.

《이야길 좀 들려줘요. 아무 이야기라도 좋아요.》

윤송이가 기대어린 눈을 반짝이며 재촉했다.

《그럼 이야기하지요. 내가 간석지건설자루 될 때까지를말이요.》

이렇게 허두를 뻔 준석은 차창밖을 내다보며 천천히 다음 말을 이었다.

《...술봉을 땀다쳐놓고 각을 떠내어 1호제방에 쓸 장석을 다듬어낼 때였소. 십덕십직장장은 이런 때면 늘 안절부절하지 못하며 작업장에 붙어서서 <잔소리>를 하곤했소.

<정성들여 쪼으라구. 이 돌 한개가 수천포기의 벼꽃을 피운다네.>

<돌들을 끌라써야겠네. 일전에 지질기사들한테 물어본즉 여기서 간혹 석회석이 띠형으로 나타날수 있다고 하네.>

그러면서 손수 시약병까지 작업장옆에 가져다와 주곤했소.

나는 수천수만립방의 돌을 드다뤄오면서 그걸 일일이 검사해서 쓰라는 말을 덕심직장장한테서 난생 처음 들었지만 하두 그렇게 할걸 요구하길래 그의 말대로 하는수밖에 없었소. 지시붓이 모지라지도록 돌에 그어봐두 끓어오르는 돌이라곤보구 죽을래도 없었소. 그런데 하루는 덕심직장장이 얼굴이 새까맣게 질려가지고 돌 심는 선창으로 달려나오지 않았겠소. 그는 가쁜 숨을 태우며 다급히 웨쳤소.

<일났네.>

나는 가슴이 철렁해서 물었소.

<사옵니까?>

<그렇네.> 덕심직장장은 떨리는 목소리로 뇌었소.

<방금 실어낸 돌무지밑자리에서 석회석덩이가 발견됐네.>

나는 그제서야 널뛰듯하는 가슴을 진정하고 마음을 놓았소.

<예-그런걸 난 또 큰 사고라도 난줄 알았구만요.>

내가 이렇게 말하며 안도의 숨을 쉬자 갑자기 그의 낯색이 험악해지는것이였소.

그는 대뜸 엄중한 표정을 짓고 명령하듯이 말했다.

<배에 실은 돌을 몽땅 퍼내구 모조리 분석해서 실게. 그전엔 절대루 돌배를 띄우지 못해.>

그리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걸어가는 것이었소. 나는 너무나도 어이가 없어 그의 꺾꺾한 뒤모습을 바라보았소.

선창으로는 돌배들을 꼬리에 찬 끝배들이 연줄연 줄 들이달고있었소. 그런데 어느 하가에 다 실어논 백여립방의 돌을 다시 퍼내고 분석을 한단말이요?

나는 나는듯이 달려가 그의 팔소매를 붙잡고 사정을 했소.

<직장장동무! 검사원 립회하에 실은 돌이야요. 정말 난 이럴줄 몰랐구만요. 검사원이 지나치게 요구하면 역성을 들어줘야 할 직장장동무가 이러면 우리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예? 돌 이삼백톤에 목이 메서 돌실는 계획을 못한다는게 말이 됩니까?>

덕심직장장은 몸을 돌리고 나를 무섭게 쏘아보았소. 나는 그의 유순한 눈매가 그렇게도 사납게 번뜩일수 있다는것을 보고 흠칠하기까지 했소.

<두말 말고 돌을 푸게. 검사원이 어떻게 돌을 가려보았는지는 모르겠지만 마음이 놓이지 않네. 한 두명의 검사원의 눈보다 엄격한 수백수천건설자들의 주인된 눈이 없이는 개간된 새땅을 꽃피울수 없네.>

덕심직장장은 가버렸소. 그 자리에 돌처럼 굳어져있던 나는 뒤따라온 조원들에게 통명스레 말했다. <할수 없네. 돌을 다시 퍼내야겠네.>

이리하여 우린 꼬리를 문 돌배들을 세워둔채 돌을 다시 퍼내기도 하고 옮겨쟁이기도 하며 돌덩이 하나 하나를 지시붓으로 찍어나갔소. 그러고보니 석회석이 나타날가봐 은근히 두렵기도 했소. 물론 석회석이 제방에 들어간다고 해도 그것이 수십수백년이 흘러가야 종류석처럼 녹아내리는 것이지만 어쨌든 그렇게 되면 재미없는건 틀림없소. 그런데 다행히도 한배를 다 뒤흔들고 석회석은 나타나지 않았소. 그래 나는 덕심직장장에게 자신있게 보고했소.

<석회석은 한덩이두 없수다.>

하지만 속으로는 <그것 보라요. 내 뭐라구 하던가요 예? 이젠 썰물이 났으니 주저앉은 돌배들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는 말이 목구멍까지 기여나오는걸 꼭 참았소. 그러나 덕심직장장은 입가에 느슨한 미소를 지으며 말하는 것이었소.

<됐네. 그러니 이젠 마음놓고 1호제방을 지나다닐수 있지 않겠나.>

그런데 이날 일을 끝내고 뒤에 처져서 합숙으로 돌아오는데 우리 조에 편입된지 몇달 안되는 몸매 통통한 청년이 나를 한옆으로 이끌고가면서 넌지시 말하는 것이었소.

<조장동무! 실은 제사 돌을 뒤흔들어서 석회석이 몇덩이 나왔어요. 그런데 조장동무 립장이 딱해질가봐 그냥 넘겨버리고말았지요. 아마 처음부터 꼼꼼히 들춰다면 몇개 더 나왔을지두 몰라요.>

나는 너무나도 아연하여 <뭣이?> 하고 소리를 질렀소.

그 순간 나는 제 정신이 아니었소.

<야 너보구 그따위 역성을 들어달라던. 왜 그 자리에서 내놓지 못해. 아까 물어볼 땐 어째서 없다고 했는가말야 응.>

나는 통바위우에 주저앉아 머리를 싸쥐었소.

내자신 직장장의 처사를 못마땅하게 여겼으니 조원들이 어찌 성실하게 돌 검사를 할수 있었겠소. 그러니 실은 내가 이 청년에게 그렇게 하라고 가르친 거나 무에 다르겠소.

그러길래 1호제방우를 걸어갈 때면 늘 량심의 가책을 느끼곤했소. 내가 지금 이 말을 하는건 자기를 후회해서만 하는 말이 아니요. 나는 이렇게 한걸음 한걸음 간석지건설자로 준비되어갔소.》

준석은 여기서 잠시 이야기를 끊고 청년들을 둘러보았다. 그들의 불긋한 얼굴엔 그 어떤 결의가 번쩍이는것 같았다.

빠스가 《두루섬》 백토굽이를 돌아서자 물비린내가 물큰하게 풍겨왔다. 순간 차안이 설레었다. 앞이 탁 트이면서 기막히게 파아란 호수가 펼쳐졌던 것이다. 누가 지시해서가 아니라 아름다운 절경 그것이 차를 멈춰세우고 젊은이들을 호수가로 이끌어 간듯싶다. 그들은 옥색 물이끼가 구름처럼 몽실거리는 호수가에 서서 넋을 잃은듯 사위를 둘러보았다.

호수는 마치도 화산의 분화구와 같이 우죽뿌죽한 칼바위들에 에둘러있었다. 그것은 여기에서 용암의 분출과 같은 거창한 기적이 있었다는것을 말없이 이야기해주고있었다.

수려한 조국강산의 아름다움이 여기에 다 모였는가.

호심에는 웅장하고 기묘한 사향봉이 거꾸로 비껴있어 그 산발을 타고 끝없이 내려가면 전설속의

《룡궁》에라도 이렇듯 그렇게도 신비경을 자아냈다.

청년들은 운도로 가야 한다는것도 까맣게 잊고 호수우에서 뛰노는 성미 급한 살치떼며 사치스런 물족새를 바라보기도 하고 맞은켄 호수가에 일떠서는 그림처럼 아름다운 새 마을에서 눈길을 떼지 못하는 것이었다.

준석은 세차게 높뛰는 가슴을 지그시 누르며 청년들에게 말했다.

《저 사향봉과 호수의 아름다움은 저절로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그럼.》

송이는 커다란 호기심으로 하여 숨마저 죽이고 나직이 묻는 것이었다.

《이 호수가의 절경을 건설자들이 이룩했던 말입니까?》

준석은 수연한 표정을 짓고 힘주어 말했다.

《그렇습니다. 흔히 바다를 막는다고 하면 산을 허물어내는 용감한 사람들을 생각합니다. 나도 그랬습니다. 그러길래 나는 우리 채석직장이 지도우에서 지워버린 양도산, 말도산, 솔봉, 거먹봉들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길 좋아했지요. 그건 채석공인 나의 가장 큰 자랑이었지요.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결코 바다를 막는 사람이라고 할수 없습니다.》

청년들은 흥분된 얼굴로 준석의 말을 귀담아듣고 있었다. 무늬를 지으며 밀려오고 또 밀려오는 잔물결도 소리를 낼가봐 저어하듯 가만히 기슭을 어루만진다. 그리하여 어느 바위너설로 분주히 기여가는 물바퀴의 차취소리조차 귀전에 울려올듯싶었다.

《지금 살치떼가 뛰어오르는 저 호수자리엔 운암봉이라는 돌투성이 번대산이 있었지요...》 준석의 목소리는 흥분으로 하여 떨리었다.

그는 바로 이 운암봉에서 저지른 자신의 파오에 대하여 이 청년들에게 남김없이 털어놓고 이야기하기로 결심했다.

...채석공들이 운암봉을 허물어내기 시작하자 달덩이같이 등실하던 번대산은 이내 하현달처럼 어스러지기 시작하더니 한순도 지나지 않아 반달모양이 되어버렸다. 불현간 운암봉은 초생달처럼 줄아들 것이며 종당에는 그믐밤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야말 그 시각이 닥쳐오고있었다.

채석조장으로서 한개 산봉우리를 말아안게 된 준석은 천하를 거머쥔듯 패기만만했다.

그는 벌써 산 하나쯤 둘러메치는것을 상씨름군이 상대를 물리치는것만큼이나 대수롭지 않게 여기게 되었다.

운암봉이 초생달같이 기울어져가자 준석은 로련

한 채석공답게 다음차례로 지목된 사향봉을 먹어치울 차비를 슬금슬금 해놓고있었다.

그는 하루일을 끝낸 뒤면 술그머니 사향봉으로 올라가 산구경을 하는것처럼 하면서 산봉우리를 살살이 밟아보았다.

이렇게 면밀한 타산을 세운 그는 우선 채석이 바쁘지 않은 겨울동안에 늘어진 산릉선이며 돌고숭이, 애기봉우리들밑에 밭과구멍들을 깊숙이 뚫어놓았다. 그래 그것들을 먼저 먹어치우고 산을 바짝 세워놓았다가 단방의 대공발파로 사향봉을 보기 좋게 메쳐놓을 작정이었다. 그리하여 건설장한복판에 틀고 앉아 돌배를 몇백척이고 불러들여 팡팡 실어보낼 배심이었다.

돌이야말로 간석지건설장의 《왕》이다. 돌만 많으면 바다를 압만이고 막을수 있는것이다.

그러던 어느날이었다. 심덕심직장장한테서 전화가 왔다. 은근히 고대하던 소식이었다.

해빙이후의 채석문제를 토의하니 매 조들에서 예비안들을 가지고 올라오라는 것이었다.

준석은 범 잡은 포수같은 기상으로 밭과공들에게 이미 장약해놓은 남포약들에 불을 달데 대한 지시까지 주고 직장으로 향했다. 그는 고개턱을 넘어가면서도 줄곧 벅글거렸다.

(사무실에서 채석문제를 놓고 옴니암니할 때쯤 일 것이다. 직장장은 말문을 열 것이다.)

《준석조장, 말 좀 해보게.》

그 순간 드르릉 창문을 울리며 밭과소리가 터질 것이다. 모두 어리둥절하겠지. 그러면 나는 히죽이 웃음을 지으리라.

《나의 대답은 이렇소.》 하고)

채석조장들의 협의회에 참가한 준석은 가슴이 벅차올랐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강령적인 교시를 높이 받들고 당면한 선들포간석지공사를 하는데는 말할 것 없고 10만정보의 간석지를 개간하기 위해 지금부터 전망적인 제방법선에 돌을 부어나가자고 해도 수백수천만립방메터의 돌이 요구된다는 것이었다.

준석은 선참으로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그는 자신만만한 태도로 입을 열었다.

《이젠 운암봉두 완전히 거덜이 났습니다. 문제는 명백합니다. 사향봉을 메쳐야지요.》

(과연 저 청년이 한때 《빨간 샤쓰》로 불리우며 씨먹은 의견 한마디 할줄 모르던 그 사람이란말인가.)

그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리라는것을 의심하지 않았다.

준석은 계속하여 사향봉이 얼마나한 알돌을 품고 있는가를 산복부에 들어갔다나온 사람이상으로 정

확히 계산하고 론증했다. 그리고 대공발파의 아구리자리며 첫 착암정대를 박을 돌논까지도 밝혔다.

흥분된 나머지 그는 덕심의 당황한 얼굴을 전혀 보지 못했다. 만약 그가 이 순간 그의 얼굴을 보았다면 말을 멈추지 않을수 없었을것이다.

그렇게도 그의 얼굴에는 실망의 질은 그늘이 비껴있었던것이다.

이때 십덕십이 그의 밑을 중등무이하며 묻는것이였다.

《가만 준석동무! 우리가 무엇때문에 산을 헐고있소?》

《예?》

준석은 영문을 모르겠다는듯 덕심을 뻔히 바라보았다. 인차 덕심이 묻는 뜻이 짐작되자 울컥하고 솟구치는 분격을 억제할 길이 없었다.

(그래 나를 그런 초보적인 문제도 모르는 쫄내기로 아는건가?)

그는 불이 부어서 툭 내쏘았다.

《바다를 막자구 그러지요.》

덕심은 고개를 끄덕였다.

《옳게 말했네. 그렇다면 애써 막아온 새땅의 주민들을 위해 우리가 일하고있다고 볼수 있네. 그래 그들을 위해 생각되는 점이 없나?》

방안에는 안타까운 침묵이 흘렀다. 이윽고 덕심이 자기 의견을 내놓겠다고 하면서 언지시 말하는 것이였다.

《사향봉은 그대로 뒤두구 운암봉자리에 지하채석장을 열면 어떨가?》

《지하채석장?!》

준석은 그 의견이 황당한것으로만 생각되였다. 채석공들은 돌을 뽑아낼 산을 고를 때에는 의례히 경사가 급하고 해발고가 높은것을 첫째로 꼽는다. 그래야 돌사태를 마련하여 돌배들의 배를 불리워줄수 있는것이다. 그런데 땅밑의 돌을 캐내가지고서야 어떻게 그 방대한 돌의 수요를 보장할수 있겠는가.

엄준석은 자기 주장을 내세웠다.

《산봉우리 하나를 그렇게 아까와해서야 어떻게 한개 군만한 새땅을 얻어냅니까. 이자 직장장동무 두 격동돼서 말했지요. 10만정보면 열개 군이 생기는거라구요. 그런데 산이 많은 우리 나라에서 그까짓 산 하나가 무언니까?》

그는 초조하게 손목시계를 내려다보며 안타깝게 귀를 강구기까지 했다. 이 시각 지심을 흔드는 발파소리가 터지면서 그의 주장에 무언의 갈채를 보내줄것만 같았다.

그는 확신에 차서 웨치듯 말했다.

《우린 얼음이 풀리는 즉시로 건설장에서 요구하

는대로 돌을 쾡쾡 실어보낼수 있는 만단의 준비가 되어있다는것을 말씀드립니다》

덕심의 낫색이 갑자기 달라졌다. 그는 다급하게 물었다.

《가만 벌써 사향봉에 불질을 하도록 한게 아니요.》

준석은 빼앗이 대꾸했다.

《그래요》

《뭐라구?》

덕심의 두리두리한 눈망울에서 불꽃이 튀겼다. 그는 그 어떤 크나큰 기대가 산산이 허물어져내린듯 머리를 설레설레 저었다.

그는 문득 고개를 들며 간곡한 목소리로 말했다.

《동무두 선들포간석지를 다 막아놓은 다음에는 이 두루섬에 대종합농장 소재지가 들어앉는다는걸 알겠지. 지금 당장 돌케는 일단 생각지 말고 앞날을 좀 생각해보라구. 우리가 좀 힘겹더라도 여기에 아름다운 산과 호수를 마련해놓으면 새 농장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하겠나!》

준석은 애라는 눈길로 덕심을 쳐다보았다.

《직장장동문 지금까지 산을 허물어 바다를 막아놨지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가르쳐왔습니다. 그래 우린 직장장동무처럼 일하자고 애써왔어요.》

덕심은 안색을 흐리였다.

《그랬지. 우리는 여적 그렇게 바다를 막아왔어. 돌을 많이 캐서 제방을 튼튼히 쌓으면 우리 일은 끝난것으로 생각했지. 나역시 그렇게 하는걸 자랑으로 삼아왔네. 그런데 언제인가 묘향산휴양을 갔던 나는 거기에서 참으로 큰 충격을 받았네.

묘향산 산중에는 금덩이가 무진장하게 매장되어있었다네. 그래 광산부문일군들은 거기에 금광을 차리자고 어버이수령님께 말씀올렸지. 그런데 수령님께서는 제아무리 금이 귀중하다 해도 아름다운 산천과 바꿀수는 없다고 하시면서 묘향산에 손을 대지 못하게 하셨네. 정말 우리 수령님이 아니시였다면 어떻게 묘향산발에 청조, 홍방울새, 바위종다리들이 깃들수 있으며 향산천에 은어가 꼬리를 칠수 있었겠나. 나는 가슴뜨거운 이 이야기를 듣고 간석지개간에 종사해온 지난 20년을 깊은 자책속에 돌이켜보게 됐네. 우리가 어버이수령님의 그렇듯 높은 뜻을 만분의 일이라도 헤아릴줄 알았다라면 그렇게도 많은 산을 헐어낼 필요까지는 없지 않았겠나.》

준석은 저도모르게 고개를 떨구며 중얼거렸다.

《이젠 늦었습니다. 우리 동무들은 벌써 사향봉코숭이에 불을 달았을겁니다.》

《영?》

덕심이 벌떡 일어섰다. 그는 어느새 모자를 눌러 쓰고 밖으로 내달았다.

준석은 얼빠진 사람처럼 그 자리에 못박혀있다가 마당에서 자동차발동소리가 다급히 울리고 운전실 문이 탕하고 닫기는 소리를 듣고야 정신이 편뜻 들었다.

지금 직장장은 어디로 내달아가는건가. 폭파직전의 발파장으로?

준석은 몸서리를 치며 밖으로 내달았다. 그런데 자동차는 어느새 집 모서리를 돌아 사향봉을 향해 쏜살같이 내달리고있지 않는가.

준석은 정신없이 앞으로 내달리며 《아바이, 직장장아바이.》 하고 목메여 불렀다. (아 저 아바이가 어디로 달려간단말인가, 어디로?)

준석은 두주먹을 불끈 틀어쥐고 비탈길을 치달아 올랐다. 가독나무숲도 새초밭도 가리지 않고 지름길을 내달렸다.

숨이 턱에 닿아 사향봉코숭이에 다달은 그는 앓! 하고 비명을 질렀다.

돌벼랑밑에 금방 불을 단듯 발파공청년이 다람쥐처럼 벼랑밑을 뱅뱅 돌아가더니 종주먹을 하고 아래로 달려내려오며 《발파! 발파!》 소리를 지른다.

그런데 심덕심이 너털경에 차를 세우고 허우적거리며 발파구로 달려들어가는것이 아닌가. 금시 요란한 폭음이 울려올것만 같았다. 아차하는 순간이면 돌벼랑이 몽몽한 연기속에 휩싸이며 모로 자빠질것이다. 준석은 무섭게 떠오르는 환각을 쫓아버리기라도 하듯 벼랑밑으로 달려간 덕심직장장쪽에 대고 손을 휘젓다가 목멘소리로 웨쳤다.

《아바이!-》

순간 준석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쏟아졌다.

(아바이, 이게 무슨 일입니까? 예.)

목이 짝 메인 그는 옆에 선 나무에 쓰러졌다. 다리가 후두두 떨리었다. 몇초나 지났을까? 준석에게는 이 순간의 한초한초가 너무도 놀랍게 길어 보일뿐이었다.

그는 온몸을 휩싸는 전율을 느끼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요란한 폭발은 일어나지 않았다. 그의 얼굴에 환희의 빛이 얼핏 떠올랐다. 그는 두눈이 둥그래졌다. 발파장에는 신비하리만큼 코요가 깃들었는데 뿌옇게 흐려오는 그의 눈앞에는 사향봉코숭이옆에 바위같이 우뚝 서있는 덕심이 더욱 키높이 보이는것이 아닌가. 그의 발치에서는 뱀의 혀처럼 푸른 불을 토하는 도화선이 덩굴고있었다.

아름다운 사향봉은 위험에서 벗어났다.

준석은 북받치는 기쁨을 억제하지 못하며 앞으로 내달았다. 온몸이 땀에 흠뻑 젖은 덕심이 비칠거리며 걸어내려왔다.

《아바이!》

준석은 와락 그를 부여안았다.

《전 정말...》

준석은 목이 껍 막혀 더는 뒤말을 잇지 못했다. 그러나 덕심은 모든것을 미루어 알만하다는듯 히죽이 웃으며 말하는것이였다.

《알겠네, 우리 더는 지난날처럼 일하지 마세. 지난날엔 채석조건이 불리하다고 이 산 저 산 마구 헐어먹다가는 내던지고 또다시 다른 산에 달라붙은 적이 얼마나 많았댔나. 그런데 이 산까지 들어갔다면 후날 이 두루섬마을이 얼마나 한산한 고장으로 되겠나 좀 생각해보게.》

《이젠 알겠어요. 바다를 막는 사람이란 어떤 사람이여야 하는가를 이제야 다 알게 됩니다.》 준석은 힘있게 대답했다...

이야기를 마친 준석은 새로운 결의와 불타는 열망이 비긴 청년들의 얼굴을 대견한 눈매로 바라보고있었다.

얼마후 두루섬기슭에서는 선미가 뽀족한 한척의 끝배가 청년건설자들을 싣고 운도를 향해 떠났다.

청년들은 갑판우에 서서 저멀리 해무속에 몸을 잠근 운도를 희망에 차서 바라보고있었다.

와와 파도는 격랑을 일으키며 배머리에 부딪쳐 좌우로 갈라져내리며 늪실늪실 춤을 추었다.

이때 운도에서 천지를 진감하는 요란한 폭음이 터져올랐다. 바다를 호령하는 대자연정복자들의 웨침소리인듯 장쾌하게 파도쳐오는 메아리에 청년들은 환성을 지른다.

준석과 눈길을 마주친 송이는 정기 도는 쌍가풀 눈을 깜박이며 의미있게 말하는것이였다.

《저 발파소리는 그저 산을 허물어내는 소리만이 아니예요. 그렇지요?》

준석은 배전에 기대여 즐거운 미소를 지었다. 그의 눈앞에는 출렁이는 파도우에서 끝없이 설레일 벼바다와 그우를 기계배처럼 내달릴 트락트르, 자동차들의 행렬이 춤을 추듯이 얼른거렸다.

그의 시야에는 분명 미래의 건설자들과 함께 명량한 이야기를 나누며 운도간석지제방우로 활기있게 걸어가는 송이의 아릿다운 모습이 한쪽의 그림처럼 안겨왔던것이다.

우리 문학을 주체의 인간학으로!

-지상토론을 새로 시작하면서-

《위대한 수령님께 충성다하는 주체형의 주인공은 어떠한 인간으로 되어야 하는가》 하는 문제를 가지고 지금까지 《조선문학》에서 활발하게 진행하여오던 지상토론은 전호로 결속을 짓는다.

그동안 많은 작가들과 독자들이 토론에 적극 참여하여 주체형의 주인공의 성격 탐구와 형상에서 나서는 문제를 가지고 진지하게 의견들을 교환한 결과 주체문학건설에 이바지할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많은 토론자들이 옳게 강조한바와 같이 위대한 수령님께 끝없이 충직한 주체형의 주인공들은 인류사상사에서 가장 높고 빛나는 자리를 차지하는 주체사상을 세계관으로 하고있기때문에 그 사상정신적품모가 비할바없이 숭고하고 아름다운것이다. 그러므로 주체시대가 낳은 이러한 새형의 주인공을 진실하게 형상하기 위해서는 우리 문학의 사상예술성을 그 어느때보다도 훨씬 높여야 할 과업이 절박하게 제기된다.

우리 문학의 사상예술성을 시대의 요구와 인민의 지향에 맞게 끊임없이 높이려면 문학을 주체의 인간학으로 되게 하여야 한다.

우리 문학을 그 사상적내용과 예술적형식의 전반에 걸쳐 주체의 요구대로 개조하고 주체의 인간학으로 되게 하기 위해서는 많은 문제들이 제기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간부들과 당원들의 리론수준을 높이기 위하여서는 당정책을 자기 사업과 결부하여 활발하게 론쟁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합니다. 이런 론쟁을 통하여 우리는 당정책을 리론적으로 깊이 알게 되며 자기 사업에서 교조주의를 없앨수 있습니다. 우리가 공산주의운동을 처음 시작하였을 때에는 론쟁이 아주 맹렬하였습니다. 우리는 론쟁을 거쳐서 자기의 확고한 주견을 세웠던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는 사업이 다 혁명사업입니다. 당정책을 자기 지방 실정에 맞게 집행한다는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만약 우리가 당정책을 깊이 연구하고 자기 사업을 더 잘하기 위하여 노력한다면 거기에서 많은 의문이 나올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와 같은 의문을 론쟁을 통하여 풀어야 하며 집체적지혜를 동원하여 행동의 옳은 방침을 결정하도록 해야 합니다.》

《조선문학》 편집부는 위대한 수령님의 주체적문제사상을 우리 문학에 더 잘 구현하고 우리 문학의 사상예술성을 끊임없이 높이기 위하여 이번호부터 대론쟁의 방법으로 지상토론을 다시 벌리려한다.

당정책에 기초하여 종자를 바로잡고 그것을 옳게 가꾸기 위한 문제, 주인공의 혁명적세계관형성과정, 혁명화과정을 생활과 투쟁을 통하여 깊이있게 묘사하기 위한 문제, 주인공의 정치성과 인간성을 옳게 결합시킬데 대한 문제, 주인공선을 뚜렷이 부각하고 인간관계를 옳게 설정하기 위한 문제, 생활을 진실하게 반영하며 작품의 철학성을 높이기 위한 문제, 감정조직을 섬세하게 하고 양상을 다양하게 발전시키기 위한 문제, 류형성과 도식성을 극복하고 개성화의 원칙을 구현하며 개성적인 문제를 확립하기 위한 문제, 묘사형상수준을 높이기 위한 문제, 세부묘사와 대사의 질을 높이기 위한 문제 등 우리 문학의 사상예술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초미의 문제들을 가지고 전면적으로 폭넓고 깊이있게 여러 작가들과 독자들이 토론에 활발히 참가하여줄것을 바란다.

토론들에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주체적문제사상에 기초하여 우리의 혁명문학건설에서 달성한 풍부한 성과와 경험들을 리론적으로 분석일반화하는데 많은 주의를 돌려야 할것이다. 개별적작품들에 대한 의견과 함께 어떤 주체의 작품들에 대한 총괄적인 의견들도 많이 보내줄것을 바란다. 이번 호에는 먼저 종자의 예술적가공과 인간관계설정문제, 사회주의 현실을 반영한 중편소설창작에서 거둔 성과를 분석일반화하기 위한 문제들로부터 토론을 시작하기로 한다.

《조선문학》 편집부

종자의 예술적가공과 인간관계

리기주

우리 문학이 온 사회를 위대한 주체사상으로 일색화하는데 복무하는 자기의 혁명적사명을 옹계 수행하자면 반드시 높은 사상성을 가져야 하며 그것이 고상한 예술성과 밀접히 결합되어야 한다. 근로자들은 훌륭한 사상성을 가진 작품을 요구하며 예술성이 고상하여 커다란 감흥을 일으키는 작품을 즐겨 읽는다. 그렇기때문에 어떻게 하면 높은 사상성과 고상한 예술성이 결합된 작품을 쓰겠는가 하는것은 창작에서 제기되는 초미의 문제이다.

이로부터 창작에서는 창작가가 찾아온 종자를 예술적으로 가공하여 형상의 꽃을 활짝 피우기 위하여 어떤 형상수단을 틀어쥐여야 하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종자를 예술적으로 가공하는데서 중요한 형상수단의 하나는 인간관계를 옹계 설정하고 풀어나가는 것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영화문학작품을 쓰는것을 신비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혁명의 때 시기 우리 당이 내놓은 로선과 방침이 다 명백한것만큼 당의 로선과 방침에 근거하여 사실자료를 가지고 인간관계를 설정하고 예술적으로 잘 형상하면 될것입니다.》

당의 로선과 방침에 근거하여 사실자료를 가지고 인간관계를 설정하는데서 중요한것은 그것이 작품의 종자와 주제, 생활적내용을 체현하도록 하는것이다.

우리가 혁명적문학작품을 읽고 반계 되는 커다란 사상정서적충격은 작품에 묘사된 생활의 복판에 서있는 주인공과 그를 둘러싸고 맺어진 인간관계와 떼어놓고 생각할수 없다. 문학작품을 읽는 재미도, 문학작품을 읽고 받는 사상적영향도 다 주인공과 그를 둘러싼 등장인물들사이에 맺어진 인간관계에 의하여 생겨나는것이다. 만약 주인공과 그를 둘러싼 인간관계를 설정하지 않는다면 창작가는 자기가 찾아온 그 어떤 훌륭한 종자도, 창작의도도 작품에 실현할수 없을것이며 인간관계의 실정이 없이는 작품을 재미있게 엮어나갈수도 없을것이다.

그러면 문학작품에 설정되는 인간관계가 이토록 중요한 형상수단으로 되는것은 무엇때문인가.

그것은 작품에 설정되는 인간관계가 현실생활에서 맺어지는 사람들의 사회관계의 예술적반영이라는데 있다.

사람들의 사회관계는 그들의 계급적, 정치적 관

계를 중심으로 하여 맺어지는 경제적, 문화적, 윤리 도덕적인 관계이다. 현실생활을 산 화폭으로 재현하는 문학작품에서 설정되는 인간관계는 바로 현실 생활에서 맺어지는 사람들의 사회관계의 반영이외의 다른것으로 되지 않는다.

사람들의 사회관계가 정치적인, 계급적인 성격을 띠는만큼 문학작품에 설정되는 인간관계도 정치적인, 계급적인 성격을 띠게 되는것이다.

이러한 정치적성격을 띠는 사람들의 사회관계가 문학작품에서 인간관계로 나타나며 이러한 인간관계가 곧 작품의 종자와 주제사상적내용을 체현하게 된다는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오늘 우리 문학에서 인간관계를 높은 정치적견지에서 옹계 설정하는것은 문학작품의 내용을 우리 당의 로선과 방침에 철저히 근거하여 꾸리는데서 나서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문학작품에 설정되는 인간관계가 중요한 형상수단으로 되는것은 또한 그것이 창작가에게 있어서 생활탐구의 기초로, 작품구성의 인간학적기초로 된다는데 있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서는 전투영화를 만든다 해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전투만 보여줄것이 아니라 전투하는 장면은 조금 넣고 될수 있는대로 오늘의 생활을 많이 보여주도록 하며 또 청년들의 감정에 맞게 풍부한 정서가 담긴 작품들을 만들도록 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그 방도에 대하여서도 명백히 밝혀 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가령 1211고지전투를 그리는 영화를 만든다 하면 어떤 전사가 지난날 1211고지에서 잘 싸운 영웅을 회상하는것으로 이야기를 시작해가지고 그 영웅의 과거생활과 현재생활을 잘 배합하여 흥미있는것을 만들어낼수 있을것 같습니다. 영웅의 어린 시절도 보여주고 그가 어렸을 때 부모들한테 어떤 교양을 받았으며 학교에 가서는 어떻게 공부하였고 동무들과는 어떻게 친하게 지냈으며 어떤 처녀와 연애를 했는가도 그릴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군대에 나가 1211고지에서 적과 어떻게 용감하게 싸웠는데 그때 자기는 무엇을 했으며 영웅의 투쟁에서 무엇을 느꼈는가도 말할수 있고 지금 자기가 사회주의건설에 어떻게 잘 참가하고있으며 오늘의 자기의 생활은 어떻고 그가 아는 영웅과 그의 부모들은 어떻게 생활하

**고있는가 등을 보여줌으로써 오늘의 생활문제를
널을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지난날의 생활도
들어가고 오늘의 생활도 들어가며 전투에서의 용
감성과 영웅성도 들어가고 생활에서의 정서도 잘
묘사될수 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이 교시는 생활과 인간관계가 어떠한 관계에 있는가를 명철하게 밝혀주고있다.

작품창작에서 인간관계를 설정하고 심화하는것은 생활탐구의 기초로 되며 이 과정에 작품의 구성도 켜여진다.

창작가가 좋은 종자를 찾아쥐고 훌륭한 창작의도를 내세웠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형상적인 생동한 화폭으로 펼쳐보일수 있는 풍부한 생활을 가지지 않고서는 그것을 작품에 실현할수 없다. 작품을 생활적내용으로 충만시키지 않고서는 아무리 좋은 종자라 할지라도 형상의 꽃으로 활짝 피워낼수 없으며 창작가는 자기의 창작의도를 전달할수도 없다. 그렇기때문에 창작가는 종자를 꽃피우기 위한 생활을 탐구하여야 하며 탐구한 생활적내용으로 작품의 이야기를 엮어나가야 한다. 이처럼 종자를 예술적으로 가공하는데 절실한 생활을 탐구하기 위해서는 인간관계를 옹계 설정해야 한다.

인간관계의 설정이 생활탐구의 기초로 되는것은 생활과 인간관계가 밀착을 이루고있는데 있으며 또한 그것이 생활의 사실주의적일반화를 확고히 담보하여주기때문이다.

인간관계를 잘 맺어주면 생활을 풍부하게 찾아낼수 있으며 인간관계를 심화시키지 않고서는 형상에서 그 어떤 문제도 깊이있게 해명할수 없다. 문학작품에서의 생활은 인간관계속에서만 깊이있게 그려지게 되고 인간관계는 생활속에서만 두드러지게 부각된다. 인간관계를 설정하고 심화시켜나가는 때라야 형상의 제반요소들을 작품의 구성조직에 밀접히 결합시켜 생활과 성격 발전의 합법칙성을 옹계 천명할수 있으며 이야기줄거리를 재미있게 엮어나갈수 있다. 그러므로 문학작품창작에서 인간관계를 설정한다는것은 곧 생활을 탐구하는것으로 되며 생활을 탐구한다는것은 결국 인간관계를 설정하고 심화시킨다는것을 의미한다.

이로부터 창작가는 인간관계를 잘 설정해야만 종자를 예술적으로 가공하여 형상의 꽃을 활짝 피울수 있으며 커다란 예술적감흥을 일으키는 사상예술성이 높은 문학작품을 창조할수 있는것이다.

그러면 종자를 예술적으로 가공하기 위한 인간관계의 설정에서 제기되는 요구들은 어떤것들인가.

무엇보다먼저 작품에 심은 종자를 해명하는데 복종되도록 인간관계를 설정하는것이다.

문학작품의 종자를 해명하자면 모든 형상체계와 예술적수단들을 이에 복종시켜야 한다. 그것은 종

자의 본질과 형상적기능이 제기하는 요구이다.

형상체계의 기본을 이루고있는 문학작품의 엮음새와 짜임새가 작품의 종자해명에 복종되게 하자면 인간관계를 잘 설정하여야 한다. 그것은 문학작품의 엮음새와 짜임새가 결국 작품에서 설정되는 인간관계를 발현시키는 체계이며 등장인물들과 그들의 생활을 하나의 전일체로 묶어주는 기능을 수행하기때문이다. 작품에서의 사건발전의 형정도, 주인공의 성격장성의 로정도 인간관계의 반영으로 되는것이며 인간관계발전의 형식에 지나지 않는다.

이로부터 인간관계를 기초로 하지 않고서는 종자를 해명하는데 필요한 어떠한 형상체계도 예술적형상화의 수단도 만들어낼수 없는것이다.

작품의 주제를 밝히는데 복종되도록 인간관계를 맺는것은 종자해명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인간관계를 잘 설정하지 못하면 창작가의 의도와는 관계없이 다른 주제의 작품이 생겨나게 된다는것은 창작실천에서 흔히 부닥치게 되는 일이다.

창작에서 인간관계를 종자의 해명에 복종되게 맺어야 하는것은 작품의 종자와 그에 의하여 생겨나는 주제가 바로 인간문제이라는데 있다.

인간관계가 사회관계의 예술적반영인만큼 인간에 관한 문제는 사회정치문제이며 인간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는가에 따라서 그 작품의 문제성이 생겨나고 작품이 제기하는 문제성에 따라서 인간관계의 성격이 규정될것이기때문이다.

종자의 해명에 복종되고 주제의 실현에 이바지하는 인간관계를 맺어주기 위해서는 주제를 천명할수 있는 생활을 찾고 소재를 잘 다루어야 한다. 비록 주제는 의의있는것으로 세워졌다고 하더라도 인간관계를 잘못맺으면 작품은 판이야기로 되고만다.

일반적으로 문학작품창작에서 형상수단들은 작품에 설정된 주제를 깊이있게 해명하며 그 내용을 심화시키는데 이바지한다. 그러나 그 모든 수단들중에서도 생활의 주인이며 창조자이며 형상의 중심에 서있는 인간들의 관계를 어떻게 맺는가 하는것은 작품의 주제적내용을 규정하여주는 중요한 요인으로 되는것이다.

종자의 해명에 복종하고 주제의 실현에 이바지하는 인간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형상의 중심을 틀어쥐어야 한다. 이것은 곧 인간관계를 언제나 주인공에게 초점을 두고 설정하며 풀어나갈것을 요구한다.

문학작품에는 많은 인물들이 등장하게 되며 그들은 다양한 관계를 맺는다. 다양한 인간관계는 또한 여러가지 이야기를 낳는다. 그 이야기들은 그 자체로도 다 문제성을 가지고있다. 그러므로 큰 형식의 작품에서는 여러가지 문제성들이 생기게 되는데 이것들을 하나의 기본문제에로 통일시켜나가자면 형상의 중심을 틀어쥐지 않으면 안되는바 이것은 주

인공을 중심으로 하는 인간관계를 설정할것을 요구하는것이다.

이로부터 작품창작에서 주인공을 부각하도록 인간관계를 설정하는것은 중요한 요구의 하나이다.

문학작품에 등장하는 여러 인물들 가운데는 기술적면에서가 아니라 반드시 형상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주인공이 있어야 한다. 주인공은 형상체계의 중심에 서있는 인물이며 종자를 물고 창작가의 창작의도를 실현하는 위치에 있으며 작품에 등장한 인물들의 호상관계의 중심에 서서 묘사되는 생활의 기본을 끌고나간다. 그렇기때문에 주인공을 중심으로 인간관계를 끌고나가는것은 작품의 형상성을 높이는 중요담보로 된다.

주인공을 부각하도록 인간관계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주인공의 성격적핵을 뚜렷이 하고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이 가지고있는 훌륭한것들을 다 주인공에게 집중시켜야 한다. 그래야 그것이 사람들의 세계관형성에 참담게 이바지할수 있으며 생활을 선도하는 모범으로 될수 있다.

물론 등장인물들이 가지고있는 모든 훌륭한것을 주인공을 부각하는데 집중시켜야 한다는것은 주인공을 리상화하는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이것은 곧 성격형상을 진실하게 하고 매개 인물들의 위치를 명백히 하며 그가 주제해명을 위해 가지고 참가한 자기의 과제를 리행하는 개성들로 그려져야 한다는것을 말한다.

문학작품에 등장하는 인물은 다 자기의 과제를 가진 개성이지만 그것은 고립성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 만약 매개 등장인물들이 개성을 가져야 한다고 하여 기본문제와 관련이 없고 그 해명에 이바지하지 않는 개성을 가진다면 주인공의 성격이 두드러지지 않을것은 물론 작품의 내용자체가 초점을 잃고 모호해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것이다.

이로부터 등장인물들의 개성은 주인공을 중심으로 하는 그들의 호상관계를 밀접히 하며 창작실천에서 매개 인물들을 평균주의적으로가 아니라 다 주인공의 성격을 두드러지게 하는데 이바지하는 개성으로 되어야 한다. 또한 주인공을 둘러싸고 자기과제의 몫을 담당하여 리행하도록 인간관계를 설정해야 하는것이다.

작품창작에서 인간관계를 논리적으로 설정하는것은 형상의 진실성을 보장하는 중요요구이다.

생활의 합법칙성을 무시하고 주관적으로 꾸며낸 이야기는 견인력을 잃게 되며 산 인간의 형상은 생활의 논리를 떠나서는 그려낼수 없다. 생활발전의 합법칙성, 현실생활의 객관적타당성과 정당성을 진실하게 반영하자면 인간관계를 진실하게 맺어야 한다.

문학작품에 설정되는 인간관계의 논리는 생활의

논리이다. 작품에 반영되는 생활은 현실생활의 본질을 일반화하는것으로 달성되지만 그것도 생활의 논리를 떠나서는 생각할수 없다. 따라서 생활의 논리는 그것을 만들어주는 인간관계의 논리를 떠나서 이루어지지 않는것이다.

작품에서의 인간관계의 논리는 생활의 논리를 낳는다. 인간관계가 필연적이고 논리적인것으로 될 때 작품에 반영된 생활은 비로소 타당성과 합법칙성을 가진 진실한것으로 안겨올수 있다.

작품에서의 생활의 논리, 인간관계의 논리는 현실생활을 토대로 한다. 현실생활이야말로 가장 합법칙적이며 현실생활에서 맺어지는 사회관계야말로 가장 논리적이다. 사람들의 사회관계가 아무리 복잡하고 다양한 형태를 띠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가장 논리적이고 필연적인 관계인것이다. 따라서 인간생활을 반영하는 문학작품에서의 인간관계는 현실생활에 토대하여 옹당 논리적인것으로, 필연적인것으로 설정되어야 하며 이것은 생활반영의 진실성문제로 제기되는것이다.

작품에 설정되는 인간관계의 논리는 또한 성격장성의 논리이다.

형상을 통하여 스스로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성격, 혁명의 진리를 생활적으로 론증하는 성격은 형상화과정에서 인간관계설정의 논리를 떠나서는 생각할수 없다. 인간관계의 논리가 타당성과 합법칙성을 띠지 못하면 그것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성격들의 발전론리에 모순이 생기며 그렇게 창조되는 성격들은 우연적인것으로 비논리적인것으로 되고 마는것이다.

인간관계의 논리가 생활의 논리이며 성격장성과정의 논리라고 할 때 그것은 구성의 논리이기도 하다.

생활의 논리, 인간관계의 논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생활적전제를 충분히 마련하여야 한다. 문학작품의 구성조직에서 주어지는 생활적전제란 묘사되는 인간성격과 생활논리의 타당성, 등장인물들의 운명의 합법칙적장성과정, 그 결과를 논리에 맞게 보여주기 위하여 작품의 앞부분에 심어놓은 이야기이다.

작품의 앞부분에 심은 생활적전제는 작품에서 맺어지는 인간관계와 그에 의하여 생기는 사건의 발전, 성격장성의 방향을 세워주게 된다

그것은 성격장성의 논리를 조건짓는 바탕으로 되며 예술적형상화에 의하여 태어나는 전형적성격의 운명을 결과지어주는 출발점으로 된다. 그것은 또한 문학작품의 내용의 폭과 깊이를 보장하여주는데 작용하며 예술적감흥을 일으키고 감정을 조직하기 위한 실머리로 된다.

작품에 심은 전제가 결과에 도달하자면 인간관계

에 의하여 마련되는 생활을 축적하고 감정을 조직하며 그것을 양양으로 이끌어가야 한다. 인간관계의 심화와 사건발전의 양양을 조건지어주는것이 바로 계기이다.

계기는 작품의 주제사상적내용을 천명하고 사건발전에 심각성을 부여하는것으로 되어야 한다. 다시말하여 사건발전과 인물의 행동에 타당성을 주면서 외형적인것으로서가 아니라 내용적으로 주어진 계기여야 하며 줄거리발전의 합법칙성을 낳게 하고 첨예하고 명백하며 사건발전에 추진력으로 되는 계기여야 한다.

이야기의 전제를 잘 심어주고 사건발전의 계기들을 잘 맞물리는것을 인간관계의 논리가 담보하여준다.

인간관계를 다양하게 설정하는것은 작품에 생활을 풍부하게 반영하며 인간성격을 다면적으로 그리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이다.

문학작품창작에서 인간관계를 다양하게 설정하는것은 인간학으로서의 문학이 제기하는 본성적요구이며 그의 혁명적사명과 미학정서적인 기능이 제기하는 요구로 된다.

자주성을 가진 사람들의 생활은 자연과 사회와 인간을 개조하기 위한 투쟁으로 충만되어있다. 투쟁속에 생활이 있고 생활속에 투쟁이 있다. 이 투쟁과 생활을 진실하고 감명깊게 보여주기 위해서는 인간관계를 다양하게 맺어주어야 하며 이렇게 할 때 문학작품은 자기의 본성적요구에 맞는 생활로 충만될수 있다. 만약 인간관계를 다양하게 맺어주지 않으면 등장인물들의 생활은 외꺾으로 나가게 될것이며 무미건조하게 될것이다. 인간관계를 다양하게 설정하지 않았을 때 기정사실화된 성격이 생겨나며 막대기같이 외꺾으로만 뻗어나가는 메마른 생활현실이 펼쳐지게 되는것이다.

인간관계를 다양하게 설정하는것은 생활을 풍부하게 반영함으로써 주인공들의 혁명적세계관형성과정을 깊이있게 그릴수 있게 하며 인물들의 개성을 살리게 함으로써 문학작품의 혁명적사명과 미학정서적인 기능을 높일수 있게 한다.

인간의 사상, 감정, 지향, 의지, 도덕관념, 기질 등은 모두 구체적인 인간관계와 생활속에서만 나타나며 성격은 생활의 다면적이고 심오한 묘사를 통해서만 밝혀질수 있다. 인간관계를 다양하게 설정할 때 비로소 사람들의 생활과 투쟁을 폭넓고 깊이있게 그릴수 있으며 인간의 성격은 두드러지게 나타날수 있는것이다.

인간관계를 다양하게 설정하는것은 성격형상에서 정치성과 인간성을 옹계 결합시켜준다. 이것은 문학작품의 사상성과 예술성을 높이는데서 나서는 절실한 문제이다.

자주적인 인간의 형상을 창조한다고 하여 주인공들의 정치성만 강조한다면 작품의 예술성이 낮아질수 있으며 반대로 주인공들의 인간성을 그리는데 너무 치우치면 작품의 사상성이 낮아질수 있다. 언제나 주인공들의 정치성과 인간성을 옹계 결합할 때라야 사상성과 예술성이 결합된 혁명적문학작품을 창조할수 있는것이다. 정치성과 인간성이 결합된 자주적인 인간의 형상은 그를 담보할수 있는 인간관계를 다양하게 설정하고 생활을 다면적으로, 풍부하게 그릴 때 창조될수 있다.

문학작품에서의 인간관계는 극적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인간관계를 극적으로 설정하는것은 작품창작에서 문학적이야기를 만들기 위한 중요한 요구로 제기된다.

인간관계를 극적으로 맺어야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는 문학적인 이야기가 생겨나며 정서적감흥과 흥미를 일으키는 생활적인 이야기도 흘러나올수 있다.

극적인 인간관계에 의하여 창조되는 문학적인 이야기는 심각한 문제성을 가지고있는 이야기이며 살아 움직이는 인간들의 성격이 주어지고 그들의 운명에 관심을 가지게 하는 그런 이야기이다. 또한 그것은 사립들의 심금을 울리며 흥미를 일으키는 이야기이다.

인간관계를 극적으로 맺어주자면 매개 등장인물들에게 크거나 작거나 과제가 주어져있어야 한다. 매개 인물들에게 주어지는 과제란 문학작품에 창작가가 심어놓은 종자와 주제의 해명에 복종되는 과제이며 그것을 둘러싸고 인물들이 서로 작용하면서 성격을 드러내는데 필요한 과제, 작품에서 이야기되는 사건에 참여하고 그것을 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하는 과제이다. 그것이 아무리 기묘하게 얹혀진 인간관계라고 할지라도 이러한 요구를 만족시키지 못한다면 그것은 무의미한 관계로 되고말것이다.

인간관계가 극적으로 맺어지려면 반드시 형상적과제를 가지고있는 인물들이 작품의 줄거리에 유기적으로 얹혀있어야 한다.

작품속에서 그 인물이 창작가에 의하여 성격화된 개성을 드러내보이며 자기의 형상적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작품에 그려지는 생활과 사건, 그 발전과정의 체계를 표시하는 줄거리에 유기적으로 결합되어야 하는것이다.

극적으로 인간관계를 맺어주자면 또한 극적정황을 옹계 설정하는것이 필요하다. 극적정황은 극적계기, 극적논리와 밀접히 통일되어있다. 극적정황의련쇄적고리에서 계기들이 성립되며 사건은 발전해나가는것이다. 극적정황과 인간관계가 딱 맞물리지 못하면 사건발전의 논리에 모순이 생기고 생활의 타당성과 진실성이 파탄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극적정황의 옳은 설정은 보통 있을수 있는 범상한 이야기거리도 거창한 용적을 가진 내용으로 전환시킬수 있게 하며 이야기발전의 추이에 충격적인 계기를 야기할수 있고 인간성격발전에 철학적인

심도를 충분히 보장할수 있게 하여준다.

인간관계설정에서 이와 같은 몇가지 요구들을 옳게 구현하는것은 사상성과 예술성이 깊은 작품을 창작하게 위한 중요담보로 된다.

사회주의현실주제와 중편소설

장영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결국 모든 문학예술작품들은 오늘의 우리 인민들에게 어떻게 살며 일하며 투쟁할것인가를 가르쳐주는데 복무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작가, 예술인들은 지난날보다도 현실에 더욱 관심을 돌려야 합니다. 현실생활에 가까운것을 그릴수록 작품이 더욱 가치있는것으로 될수 있습니다.》

최근년간 우리 작가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이 교시를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서 훌륭한 성과를 거두었다.

그것은 사회주의현실을 반영한 중편소설들이 많이 창작되고있는데서도 찾아볼수 있다.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의 병진로선을 관철하기 위한 우리 로동계급의 영웅적투쟁과 불굴의 의지를 보여준 김보행의 중편소설 《끝은 길》이 몇해전에 나온이후 최근년간에 무려 10여편의 사회주의현실주제의 중편소설들이 나왔다. 이것은 조선문학사적견지에서 볼 때에도 참으로 자랑스런 성과가 아닐수 없다.

그 중편소설들은 자연과 사회, 인간을 주체의 요구대로 개조하기 위한 우리 인민의 장엄한 투쟁과 시대적지향을 다면적으로 반영하고있다. 실례로 리택진의 중편소설 《조선공들》, 김흥무의 중편소설

《생산지표》, 권장석의 중편소설 《대를 이어가는 사람들》, 김재규의 중편소설 《새생활》이 공업부문 로동계급의 생활을 반영하고있다면 박경빈의 중편소설 《새 산판에서》는 립업부문 로동계급의 투쟁을 그리고있으며 정창운의 중편소설 《빛을 따라》는 과학부문생활을 묘사하면서도 북과 남의 판이한 두 현실을 대조적으로 보여주고있다. 또한 최재석의 중편소설 《꽃피는 대지》와 최국명의 중편소설 《해빛 찬란한 들》, 리정숙의 중편소설 《지평선》, 김용한의 중편소설 《사랑의 샘》은 사회주의농촌현실을 묘사하고있다면 하정희의 중편소설 《해빛아래》는 가금업부문의 생활을 형상하고있으며 김영근의 중편소설 《종소리》는 교육부문일군들의 생활을 반영하고 류벽의 《조국의 품속에서》는 귀국공민의 생활을 반영하고있다.

사회주의현실을 그린 중편소설들이 이처럼 다양한 생활영역에 걸쳐 우리 근로자들의 사상감정과 지향을 다면적으로 보여준것은 우리 소설가들이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심장에 새기고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 깊이 들어가 생활체험을 진지하게 하고있으며 자기들의 작품을 통하여 혁명과 건설에 더욱 적극적으로 이바지하려는 각오가 매우 높다는것을 말하여주고있다.

물론 오늘의 우리 생활, 온 사회를 주체사상으로 일색화하기 위한 투쟁이 힘있게 벌어지고있는 우리 현실을 잘 그린다것은 지난날의 생활과 영웅들을 그리는것보다 더 어려운것만은 사실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오늘의 생활은 지난날의 생활보다 그 내용이 더욱 복잡하고 다양하여졌다. 사람들의 사회적연계가 더욱 다양해졌을뿐아니라 계급투쟁의 내용과 형식이 새로워졌으며 우리 시대 인간들의 생활면모와 정신세계도 지난날과는 비할바 없으리만큼 풍부하여졌다.

이러한 사정은 지난날을 그리던 때에 의거하였던 창작원칙과 수법으로써는 오늘의 사회주의현실을 도저히 옳게 그릴수 없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그렇지만 우리 소설가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주체적문예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하고 천리마현실을 깊이있게 탐구, 체험함으로써 사회주의현실주제의 소설창작에서 제기되는 어려운 문제들을 성과적으로 풀어나가고있다.

사회주의현실주제의 중편소설창작에서 거둔 성과는 우선 우리 소설가들이 자기들의 작품에 당정책을 민감하게 반영하고 당정책적견지에서 사상주제적과제를 옳게 제기한데서 찾아볼수 있다.

우에서 실례로 든 중편소설의 그 어느것이나 당정책적요구를 반영하지 않은 작품이란 없다. 공업부문의 생활을 그린 중편소설 《조선공들》이 선박건조공업을 주체적으로 발전시킬데 대한 당의 방침이 어떻게 관철되고있는가를 보여주고있다면 지방산업공장의 일용필수품생산투쟁을 반영한 중편소설 《생산지표》는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지표별계획을 어김없이 보장할데 대한 당의 요구를 구현하고있으며 립업부문을 그린 중편소설 《새 산판에

서》는 순환식채별방법의 우월성과 그 정당성을 형상적화폭으로 확증하고있다. 또한 사회주의농촌현실을 그린 중편소설 《꽃피는 대지》는 과학적인 영농방법인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농사를 지을데 대한 정책적문제를 반영하고있으며 중편소설 《사랑의 썸》은 농촌수도화방침이 어떻게 관철되고있는가를 보여주고있다.

사회주의현실의 다양한 생활령역을 그린 중편소설들은 이처럼 해당 부문에 제기된 당정책적문제들을 민감하게 반영함으로써 문학작품이 근로자들을 당정책관철에로 불러일으키는 사상교양의 무기로서의 역할을 훌륭히 수행할수 있게 되었다.

우리 중편소설들이 거둔 성과는 이와 같이 당정책적문제들을 민감히 반영하고 거기에 기초해서 종자를 선택, 가공한데 기인한다.

중편소설 《조선공들》은 선박건조공업을 대형화, 현대화할데 대한 당의 방침을 받들고 새로 무은 대형원양운반선을 어떤 방법으로 진수하는가 하는 문제를 보여주면서도 결코 대형선박을 횡으로 진수하는가 혹은 종으로 진수하는가 하는 기술실무적문제에 대한 해답을 주려는데 그 목적이 있는것이 아니라 일꾼들이 성과에 자만하여 새 과학기술로 무장하는 일을 게을리한다면 경험주의에 사로잡히게 되며 나중에는 기술발전과 로동계급의 혁명적열의를 가로막는 보수주의자로 될수 있다는 사상을 밝혀내고있다. 그리하여 이 작품은 단순히 기술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인간의 사상에 관한 이야기, 인간생활에서 제기되는 문화적인 이야기로 되게 하였다.

또한 중편소설 《해빛아래》는 가금업부문에서 과학적인 기술관리체계를 세울데 대한 당정책적요구를 반영하면서도 정책적인 내용을 단순히 전달하는데 그친것이 아니라 배우지 않고서는 위대한 수령님께 충실할수 없으며 한결음도 전진할수 없다는 사상주제적과제의 해결을 통하여 이러한 내용을 밝혀내고있으며 중편소설 《중소리》도 교육사업을 혁명사업으로 인정하는 사람이라면 교육초소를 가리지 말아야 한다는 이야기를 통하여 산간오지에 까지 인민교육체계가 마련된 우리 나라 사회주의교육제도의 우월성을 보여주고있다.

문학적인 이야기를 통하여 정책적인 내용을 보여준 실례는 다른 중편소설들에서도 찾아볼수 있다.

우리 녀성들을 물동이를 이는 일에서까지 완전히 해방시켜주시려는 아버지수령님의 크나큰 은덕에 의하여 제시된 우리 당의 농촌수도화방침이 어떻게 실현되고있는가를 보여준 중편소설 《사랑의 썸》도 정책적내용을 직선적으로 도해한것이 아니라 인민을 위하여 모든 사업과 생활이 시작되는 우리 나

라에서는 인간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사업에서도 성과가 있고 사람들로부터도 존경을 받으며 사생활에서도 행복할수 있다는 종자를 통하여 그러한 내용을 밝히고있다. 만일 이 중편소설이 이러한 사상주제적과제를 천명하는데 모든 세부들을 집중시키지 않고 다만 농촌수도화과정만을 그렸거나 과원관수공사와 수도화공사를 병행하느냐, 어느 한가지만을 하느냐 하는 기술실무적문제만을 추구하였더라면 오늘과 같이 문학적가치를 가지지는 못하였을것이다.

최근에 창작된 사회주의현실주제의 중편소설들은 이와 같이 그 사상주제적과제가 명백한것이 하나의 특징이라고 말할수 있는바 이것은 우리 소설가들이 높은 당정책적안목을 가지고 사회주의현실에 대한 탐구정신을 비상히 높이고있다는것을 말하여주고있다.

이와 함께 최근에 창작된 사회주의현실주제의 중편소설들에서 찾아볼수 있는 공통적인 성과는 매개작품에 우리 현실의 혁명적기상이 잘 반영되고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기 위한 투쟁의 요구에 맞는 시대적환경이 훌륭하게 재현되고있는것이다.

우에서 레로 든 중편소설 《해빛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동조작반을 창안도입하여 혼자서 지난 시기의 세배나 되는 1만 5천마리의 닭을 손쉽게 사양관리하고있는것을 비롯하여 중편소설 《빛을 따라》에서 채탄작업의 기계화를 위한 유압식종합기계동발을 연구제작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등 공업기업소의 생산과 관련된 작품들은 의례히 생산공정의 기계화, 자동화과정이 환경적으로 주어지고있다. 심지어 지방산업의 자그마한 철제일용품공장생활을 반영한 중편소설 《생산지표》에서마저 스텐박판을 뽑기 위한 고주파유도로를 자체로 건설하는 내용이 취급되고있다.

또한 사회주의농촌현실을 그린 작품들인 경우에도 토지를 개량하고 과학적영농방법을 도입하는 등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농사를 과학기술적으로 잘짓기 위한 투쟁과 함께 모내는기계를 생산에 받아들이며 농민들의 힘든 일을 덜어주기 위한 농촌기계화, 화학화가 힘있게 추진되고있는 내용 등을 반영하고있다.

중편소설들은 이처럼 새로운 단계에 올라선 공업과 농업의 발전수준을 전형적환경으로 진실하게 보여줌으로써 우리 나라 사회주의현실의 발전면모를 훌륭히 전형화하고있으며 공업의 현대화, 자동화와 농업의 공업화, 현대화가 전면적으로 실현되고있는 우리 현실의 참다운 주인들인 우리 시대 긍정적주인공들의 높은 정신세계와 문화수준, 과학기술수준을 훌륭히 형상화할수 있게 하였다.

우리의 중편소설들에 등장한 긍정적주인공들은 한마디로 말하여 거의 모두가 주체형의 혁명적 세대들이다. 대학을 졸업하고 연구기관에서 일하다가 생산현장으로 나온 기술부기사장 박민혁(《조선공들》)이나 대학을 졸업하자 고향 농촌으로 돌아와 농산기사로 일하는 리금주(《해빛 찬란한들》), 제대군인이며 대학통신학부 학생인 작업반장 박세진(《생산지표》), 분조장으로 일하다가 새로 작업반장이 된 순이(《꽃피는 대지》), 기능공양성소를 졸업하고 갓 배치된 나어린 처녀사양공 최신애(《해빛아래》) 등 그 어느 주인공을 보아도 아버지수령님에 대한 티없이 맑고 깨끗한 충성심으로 충만되어있고 청춘의 기백과 정열이 약동하고 있다.

따라서 그들의 성격적특징에서 중요한것은 그 어떤 맑은 사상에도 오염되지 않고 오직 주체형의 맑은 피만이 차넘친다는데 있다.

그들은 오직 아버지수령님의 위대한 혁명사상을 유일한 신념으로 삼고 그이의 교시를 신조화하고 아버지수령님의 교시에 대한 절대성의 정신, 그 관철에서의 무조건성의 원칙만을 아는 사회주의건설자들이다. 때문에 그들은 그 어떤 난관이 앞을 막아도 결코 그를 두려워하지 않으며 자기가 하는 일이 아버지수령님의 혁명사상과 교시를 받드는 정당한 일이라고 확신할 때에는 그것을 가로막는 사람이 지배인이건, 기사장이건, 아버지건, 삼촌이건, 애인이 될 사람의 친척이건 관계없이 비타협적으로 투쟁하는 강 의의의 소유자들이다.

그러면 우리 시대 긍정적주인공들이 지니고있는 이러한 성격적특징이 형성된 사상정신적힘은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위대한 수령님의 크나큰 아버지사랑과 극진한 보살피심이다.

거의 모든 중편소설들이 바로 이 사상을 매우 중요하게 강조하고있다. 즉 《조선공들》의 박민혁이 종진수방법을 대담하게 부정하고 새로운 횡진수안을 내놓게 된것은 그가 대학졸업학년때 위대한 수령님을 모신 과학자, 기술자들의 협의회에 참가하여 아버지수령님께서 주신 과학에서 주체를 확립할데 대한 간곡한 교시를 받은 이후부터 그의 심장속에 주체의 신념이 더욱 깊이 뿌리박혔기때문이다.

《사랑의 썸》의 주인공 선화가 수도화공사를 추진시키려고 그토록 아글타글 애를 쓰고있는것도 현지도의 길에 오르신 아버지수령님께서 비내리는 어느날 한 산골의 우물가에서 드레박으로 물을 길는 녀인을 보시고 차마 발걸음을 떼지 못하시던 그 은정으로 농촌수도화방침을 내놓으신 그 사랑에 충성으로 보답하려는 각오에 기초한것이였다.

이처럼 그 어느 작품에서나 긍정적주인공이 불타는 정열과 패기에 넘쳐 맡겨진 혁명과업을 이악하게 수행하는 그 정신적힘은 아버지수령님에 대한 그들의 무한한 충성심, 경애하는 수령님의 크나큰 사랑에 충성으로 보답하려는 티없이 맑고 깨끗한 마음이라는것을 화폭적으로 보여줌으로써 우리 시대 긍정적주인공들의 생활신념과 지향을 가장 정당하게 형상화하고있다.

우리의 중편소설들은 이와 같이 주체형의 피만이 끓는 혁명적세대 가운데서 우리 시대의 긍정적주인공을 찾고있으며 동시에 그들이 우리 사회에 아직 남아있는 맑은 사상잔재를 뿌리빼고 자연과 사회, 인간을 주체의 요구대로 개조하며 당면한 혁명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몸바쳐 투쟁하고있는 모습을 구체적인 인간관계, 갈등관계를 통하여 진실하게 그려내고있다.

중편소설 《대를 이어가는 사람들》이 쇠밥으로 0장을 만들기 위한 생산기지를 건설할 목적으로 조업한지 얼마 안되는 8월생산지인 소재준비직장을 헐어야 하는 어쩔수 없는 문제를 둘러싸고 인척관계에 놓여있는 공부정인물들간의 갈등관계를 진실하게 그림으로써 단순간의 침체와 답보도 모르고 끊임없이 전진하는 우리 시대의 혁명적기상과 그러한 투쟁의 앞장에 선 중심주인공 혁철을 생동하게 형상하고있다면 중편소설 《조선공들》역시 대형원양운반선의 진수문제를 둘러싼 각이한 인물들의 태도와 립장에 따라 갈등관계를 설정하고 그 발전을 통하여 긍정적주인공의 리상의 실현과정을 정당하게 보여주고있다.

다시말하여 이 중편소설은 작품에 제시된 사상주제적과제를 형상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새로 부임한 기술부기사장 박민혁과 작업반장 김대길 등 긍정적주인공들과 기사장 현광호와 설계기사 유정옥 등 인물들과의 갈등관계를 설정하였다. 그러면서도 작품은 공부정인물들의 성격적특징과 그들간의 갈등관계를 진실하게 보여주고있다.

소설에서 현광호는 자기의 과학기술적 무지로 하여 횡진수공사가 진행되는 전기간 그것을 믿지 못하면서 따라오다가 강한 비판과 현실적성과를 통하여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는 인간이라면 유정옥은 처음부터 횡진수안의 정당성을 인정하면서도 그 신념이 확고하지 못한 립장에서 그 일을 성실하게 도와나서는 인간으로 묘사하였다. 따라서 유정옥의 부정성은 그의 사상의지적신념에 있을뿐 행동적으로는 크게 표현되지 않는다.

이와 같이 중편소설은 우리 시대 부정인물의 각이한 성격적특징들을 보여주면서 갈등관계속에서의 그들의 개조과정을 통하여 사상주제적과제를 홀

를히 해결하였다.

배우지 않고서는 위대한 수령님께 충실할수 없으며 한결음도 전진할수 없다는 사상주제적과제의 해명을 통하여 답사양관리에서 과학적인 기술관리체계를 확립하려면 반드시 그를 담당한 사양공들이 높은 과학기술수준을 가져야 한다는 정책적요구를 천명한 중편소설 《해빛아래》도 사회주의현실을 그린 작품에서의 갈등문제를 옳게 해결한 실례로 된다.

이 소설은 비록 양성반을 졸업하였으나 꾸준한 독학으로 가금업부문에 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답사양관리지식으로 튼튼히 무장한 새세대 최신애와 역시 공업대학 자동화학부 통신반을 다니면서 꾸준히 기술을 배워나가는 창 의고안명수 리찬수 등을 일방으로 하고 오랜 경험을 가진 작업반장 구태현과 주관적욕망만 높은 본조장 오복실 등을 타방으로 한 등장인물들간의 갈등관계를 정당하게 설정하였을뿐아니라 그 관계를 생활론리에 맞게 진실하게 발전시켰다.

소설은 우리 인민들에게 답알을 넉넉히 먹이시려는 어버이수령님의 심려를 덜어드리기 위한 일에서 누구나 다 충실하려고 하지만 그들의 사상적준비 정도의 차이, 답사양관리에 대한 그들의 수준상 차이로 하여 서로 갈등관계를 맺게 되는것이다.

우리의 중편소설들은 이와 같이 사회주의현실에 맞는 부정선을 설정하여 새것과 낡은것간의 투쟁, 새것이 낡은것을 극복하고 장성발전하는 과정을 옳게 그리었다. 우리 중편소설들은 전진과 혁신을 가로막는 부정적인 현상, 우리 생활에 아직 남아있는 결함을 날카롭게 비판함으로써 혁명하며 투쟁하는 현실을 진실하게 반영하고 작품의 교양적가치를 더욱 높일수 있었다. 동시에 소설들은 부정인물의 성격적특징을 규정함에 있어서 그들도 주관적으로는 위대한 수령님께 충실하려고 하며 자기앞에 맡겨진 일을 제대로 하려는 생각을 가지고있다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사회주의현실주제 작품에서 생활에 남아있는 결함과 부정을 감추고 생활을 미화분식하여도 안되지만 갈등에 대한 낡은 견해, 낡은 극작술에 매달려 부정을 지나치게 과장하여 생활의 진실을 외곡해서도 안된다는 원칙을 옳게 구현하였다.

이와 함께 사회주의현실을 반영한 중편소설들에서 찾아볼수 있는 또 하나의 특징적인것은 우리 인민에게 행복한 생활과 희망찬 앞길을 열어주고 그들의 재능을 마음껏 꽃피워주는 사회주의제도의 비할바없는 우월성을 계급교양문제와 결부시켜 실감있게 보여주고있는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시대의 요구에 맞는 영화를 만드는데서 가장 중요한것은 새것과 낡은것과의 투쟁을 잘 반영하며 사람들에게 끝없이 넓은 앞길을 열어주는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생동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이 교시는 사회주의현실을 반영한 작품창작에서 언제나 철저히 지켜야 할 중요한 창작원칙이다.

우리의 적지 않은 중편소설들이 등장인물들의 비참한 과거생활처지를 회상수법으로 보여줌으로써 우리 인민이 나라의 참된 주인으로 된 우리의 사회주의제도야말로 인간의 자주성과 존엄을 얼마나 귀중히 여기며 그들에게 얼마나 끝없이 넓은 앞길을 열어주고있는가를 대비적으로 잘 보여주고있다.

특히 중편소설 《빛을 따라》는 두 사회제도가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을 대조적으로 보여준 전형적인 작품이다.

남조선의 암담한 현실에서는 기계발명에 대한 꿈을 실현할수 없었던 과학도 김응빈, 그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끄시는 사회주의조국, 우리 공화국의 품에 안겨서야만 비로소 자기의 꿈도 사랑도 행복도 실현할수 있었다.

《어둠》과 《빛》이라는 두개의 장을 통하여 두 사회제도하에서의 주인공의 운명발전과정을 실감있게 그려나간 이 소설은 북과 남의 판이한 두 현실을 대조하면서 착취계급사회에 비한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생활적확증으로 확인하고있다.

그러면서도 이 소설은 구성의 립체성과 세부묘사의 생동성으로 하여 그리고 탄력있는 단순문들로 이루어진 개성적인 문제적특성으로 하여 독자들에게 흥미있게 읽히운다. 물론 이 소설의 사건은 그다지 복잡하지 않다. 그러나 현재와 과거를 교차시키면서 전개한 사건에 놓인 주인공의 운명은 그 얼마나 우여곡절에 찬것인가. 전쟁시기에 대한 회상과 그속에서 또다시 전쟁전생활에 대한 회상 그리고 그로부터 다시 현재로의 복귀과정을 부단히 련쇄하면서 전개한 주인공 김응빈과 그의 애인 윤희의 수난에 찬 과거와 행복한 오늘, 어두운 남조선사회에서 기계공학자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절명한 윤희의 오빠 박순현박사에 대한 련민의 정... 이 모든것이 독자들에게 끝없는 극적기대를 가지게 한다.

이외에 다른 작품들에서도 세부묘사에 상당한 정도의 힘을 기울여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생동하게 보여준 성과들이 적지 않다.

《해빛아래》의 경우를 놓고보아도 최신애가 처음 답알공장으로 배치되어올 때 두갈래의 길을 놓고 어느 길로 가야 할지 몰라 망설이는 세부묘사를 통하여 알아야 앞으로 전진할수 있다는 이 작품의

종자를 첫머리부터 암시한것이라든가, 최신애가 배치되어온 때로부터 2년후에 다시 신입공인 박애란이라는 처녀가 도착하는 장면을 뒤부분에 맞물려줌으로써 생활이 끊임없이 높은 속도로 발전하는 사회주의제도의 중요한 우월성을 설명없이도 생동하게 느낄수 있게 한것 등 좋은 시도들을 보게 된다.

중편소설 《중소리》도 구체적인 생활정서를 섬세하게 묘사하면서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생동하게 보여준 아담한 작품이다.

이 중편소설의 주인공 한재숙교원은 군대에 나간 남편이 제대되어 돌아오면 군소재지가 아니면 번화한 도시에 나가 단란한 가정을 꾸릴것을 원한다.

그러나 그는 남편을 따라 하늘아래 첫동네라는 천갑동에 자리를 옮겨앉은 이후에 학교를 꾸리고 학생들과 농촌청년들을 가르치는 일에 착수하면서 농촌생활에 점차 애착을 가지게 된다.

인적없는 깊은 산을 넘나들면서 어린이들을 가르치는 재숙교원의 형상은 얼마나 생동한가, 그는 일시적후퇴시기 적들의 만행으로 불구가 되어 견지 못하는 상도를 업고다니며 공부를 시키는가하면 전사한 사람의 아들인 홍철을 친동생과 같이 돌봐준다. 또한 아버지가 전선에 나가고 어머니마저 적들의 폭격에 희생되자 《큰아버지》의 집에 와서 사는 금희라는 소녀를 공부시키기 위하여 무진 애를 쓰며 그에게 온갖 애정을 기울인다. 그리하여 마침내 깊은 산골마을의 어린이들도 어버이수령님의 따뜻한 사랑의 해빛을 더 잘 받아안게 된다.

산간지대의 생활정서가 풍기게 묘사한 이러한 화풍을 통하여 작품은 사회주의제도아래에서 사람들이 느끼는 참다운 삶의 보람은 소시민적인 안락한 생활에 있는것이 아니라 위대한 수령님의 높으신 뜻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 있다는것을 잘 보여주고있다. 그리고 조국땅 그 어디에서나 모든 사람들에게 다같이 배우며 발전할수 있도록 온갖 조건을 보장하여주는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생동하게 보여주고있다.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보여준 작품으로서는 중편소설 《조국의 품속에서》도 들수 있다.

이 소설은 일본에서 살다가 귀국한 최영준일가의 보람찬 생활을 통하여 사회주의제도야말로 인간을 온갖 낡은 사상의 구속에서 해방하고 그들에게 참다운 생활을 안겨주는 사회라는것을 형상적으로 보여주었다.

이 소설의 최영준과 그의 안해 서봉녀사이에 존속되어오던 낡은 관계는 조국에 돌아와 서로 돕고 이끄는 동지적관계로 발전하고 그들모두는 사회주의건설에 적극 참가하는 과정에 지난날에는 전혀 느낄수 없었던 보람찬 삶의 긍지를 맛보게 된다. 또한 일본대학을 나오고 연구원을 거치는동안 낡은 사상을 많이 길러온 아들 학철이도 조국에 돌아와

동지들의 따뜻한 방조와 스스로의 단련을 통해 마침내 사회주의건설과 노동계급의 지식인으로 성장하게 된다. 소설은 학철의 이러한 성격발전과정을 조각 《사자와 너자》에 대한 그의 미학관이 어떻게 변화발전하는가 하는 세부묘사와 함께 보여줌으로써 생동하게 형상할수 있었다.

이와 같이 사회주의현실을 반영한 우리 중편소설들은 주제와 성격, 사건의 호상관계를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옹계 보여주기 위한 정책적견지에서 옹계 밀착시키고 생동한 세부묘사로 형상성을 높임으로써 생활의 본질과 현실발전의 합법칙성을 정당하게 묘사하고 독자들에게 어떻게 살며 일하며 투쟁할것인가를 가르쳐주는 훌륭한 교과서로 되고 있다.

확실히 우리 문학에서 최근년간 중편소설이 자기의 위치를 확고히 차지한것은 커다란 성과가 아닐수 없다.

우리는 최근 몇해동안에 창작된 사회주의현실주제의 중편소설이 거둔 이러한 사상예술적성과에 토대하여 현실주제작품들을 더욱 왕성하게 창작하여야 할것이다.

오늘 우리의 문학작품들가운데서 독자들에게 가장 많이 읽히우고 그들의 친근한 길동무로 사랑을 받고있는 문학형식의 하나는 중편소설이다.

중편소설은 줄거리를 복잡하게 늘어놓지 않고 아담하게 꾸리면서도 작가의 주장과 작품의 철학적깊이를 명백하게 줄수 있는 가능성을 얼마든지 가지고있다.

중편소설을 발전시키고 중편문학작품을 왕성하게 창작하는것은 우리 근로자들의 사상미학적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중요한 시대적과업의 하나로 되고있다.

그리므로 우리 소설가들은 시대와 인민이 요구하는 현실주제의 중편소설들을 더 많이 창작하여 근로자들을 혁명화하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에 적극 이바지하여야 할것이다.

사회주의현실주제의 중편소설창작에서 나서는 중요한 과업은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기적과 혁신을 창조하고있는 근로자들의 생활을 다양하게 그리며 그러한 생활에 대한 당정책적요구를 제때에 민감하게 반영하는것이다. 그러자면 우리 소설가들이 우선 어버이수령님께서 심려하시고 국가에서 해결하려고 하는 문제가 무엇인가를 제때에 잘 알고 거기에서 작품의 종자를 골라잡아 형상을 심화시켜야 할것이다.

이와 함께 우리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3대혁명로선을 관철하기 위한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잘 반영하며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힘있게 추진시키기 위한 3대혁명소조운동, 3대혁명의 전위들인 3대혁명소조원들의 전형적인 생활과

투쟁을 감명깊게 형상화한 작품창작에 각별한 힘을 기울여야 한다. 그리하여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과 3대혁명소조운동이 힘있게 벌어지고있는 우리 현실의 본질적인 생활이 옹게 그려지도록 하여야 할것이다.

또한 온 사회를 주체사상으로 일색화하기 위한 전인민적진군운동이 힘있게 벌어지고있는 오늘의 우리 현실이 낱고있는 새로운 인간, 주체형의 새 인간의 시대적전형을 옹게 창조하여야 할것이다.

오늘 우리 시대 긍정적주인공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으로 온 사회를 일색화하기 위한 투쟁, 사상과 기술, 문화를 주체의 요구대로 개조하기 위한 투쟁에 몸바치고있는 새형의 인간들이다. 따라서 우리 시대 긍정적주인공들의 사회적리상은 어버이수령님의 원대한 구상을 받들고 그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 모든것을 다 바치는것이며 그들의 사상감정과 지향도 역시 어버이수령님의 의도대로 사고하고 행동하려는 불타는 충성심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어떤 로쇠와 침체도 모르고 오직 어버이수령님의 혁명사상으로부터 사고하고 행동하려는 우리 시대의 긍정적주인공들이 자연과 사회, 인간을 주체의 요구대로 개조하기 위한 투쟁에 한몸바쳐 싸우고있는 전형적모습을 생동하게 그림으로써 주체형의 새로운 인간성격의 전형을 창조하여야 할것이다.

이와 함께 우리는 우리 시대 긍정적주인공들의 지향을 방해하는 온갖 그릇된 현상들이 어떻게 극

복개조되는가를 진실하게 보여줌으로써 생활의 법칙, 투쟁의 법칙을 옹게 그려내야 할것이다. 그러자면 당정책적안목에 기초하여 갈등관계, 인간관계를 옹게 설정하고 그것을 극적으로 잘 조직하여야 할것이다. 그리고 류사성을 극복하고 독창성과 비반복성의 원칙을 구현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당정책적요구에 기초하면서도 인간관계들이 새롭게 맺어지도록 하여야 할것이다.

또한 작품에 작가의 사상미학적의도, 종자를 뚜렷이 심는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만일 중편소설에 이러한 종자가 뚜렷하지 못하다면 그 작품에 주인공의 성격이 그 아무리 잘 그려지고 생활세부가 생동하게 묘사되었다하더라도 그것은 한갓 생활기록의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게 될것이다. 그러므로 사회주의현실을 그린 중편소설을 창작함에 있어서 작가의 창작적개성에 따라 다양한 양상을 보여줄수는 있어도 문학작품의 생명으로 되고있는 종자를 잘 심고 거기에 세부를 집중시켜 형상을 심화시키는 문제를 어느 때나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할것이다.

우리 소설가들은 이러한 원칙에서 사회주의현실의 새로운 생활내용들을 반영하는 중편소설들을 더욱 왕성하게 창작함으로써 인간정신의 기사로서의 시대적의무를 옹게 수행하며 어버이수령님의 크나큰 정치적신임과 배려에 충성으로 보답하여야 할것이다.

동맹소식

3대혁명소조원을 형상한 작품창작이 활발히 벌어지고있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3대혁명소조성원들은 대중속에 더욱 깊이 들어가 그들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지혜를 적극 발동시켜야 합니다. 그리하여 3대혁명소조성원들과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 지도일군들과 전체 근로자들이 힘을 합쳐 사상혁명, 기술혁명, 문화혁명을 더욱 힘있게 벌려야 하겠습니다.》

지금 창작가들속에서는 위대한 수령님께 끝없이 충실한 혁명전위-3대혁명소조원들의 투쟁모습을 보여주는 작품창작이 줄기차게 벌어지고있다.

올해에 들어와서 소설가 강복례, 김영길, 림재성이 각각 3대혁명소조원을 형상한 단편소설을 창작한데 이어 많은 소설가들이 우리 시대의 참다운 주인공인 3대혁명소조원을 형상한 작품창작에 정열

을 쏟아붓고있다.

소설가 리택수는 광산에 파견되어 로동제급의 창조적재능을 한껏 꽃피워주는 혁명소조원의 아름다운 정신도덕적풍모를, 소설가 로종익은 주체농법을 관찰하기 위해 아글타글 애쓰는 농촌 혁명소조원의 생동한 투쟁모습을 그린 작품창작에 온갖 창작적심혈을 기울이고있다.

또한 허춘식, 김삼복, 박사영, 권장석, 리형순, 박찬은 등 많은 소설가들이 어버이수령님께 기쁨을 드리기를 위하여 몸바쳐싸우는 주체형의 혁명적주인공들인 3대혁명소조원의 다양한 생활을 그린 단편소설을 창작하고있다.

머지 않아 독자들은 잡지 《조선문학》을 통하여 우리의 미더운 길동무-우리 시대의 참다운 주인공들인 혁명전위들과 반갑게 만나게 될것이다.

충성의 꽃이여!

김기호

스무살 나어린 처녀
온 나라가 기쁨에 젖어 그 이름 부른다
아, 소중히 가꿔온 로동의 첫 열매를
광명의 은인이신 수령님께 삼가 드린
기특한 그 소행
사람마다 목메어 그 이름 부른다

나어린 그대가 아니더냐
원한 많은 이역의 하늘밑에서
걸음마도 떼기전에 두눈을 잃고
피눈물에 젖어 몸부림치던 아기
돈이 없고 권리가 없는탓에
일생을 암흑속에 살아야 하리라던

홍청미, 그대가 아니더냐
아버이수령님의 사랑이 넘치는
이역만리 귀국의 배길을 따라
그립던 조국의 품에 안기던 그날엔
조국이 어떻게 생겼느냐고
캄캄한 두눈을 안타까이 비비며
아버지, 어머니의 가슴을 그렇게도 울리던 소녀

수령님 품속에서 다시 눈을 뜨고
그대가 처음 황홀하게 바라보던 조국
정다운 산천엔 부르는 길도 많았건만
기다리는 대학도 체육명수의 길도 뒤미루고
철들자 너는 갔구나
아버지의 행복에 겨운 목소리속에서
어머니의 뜨거운 사랑으로만 알던
떨어져 살수 없는 조국의 대지우에
충성의 첫 씨앗을 묻으러 갔구나

누가 다 알았으랴
한밤중에도 시토주머니를 가슴에 품고
해불높이 달리고 또 달리던 그 걸음
누가 다 알았으랴
온 들판을 혼자서 다 가꾸겠노라
밤낮없이 땀흘리던 그 속마음을

드넓은 들에 새겨진 그 걸음은
성실한 로동과 값진 땀방울을
어서빨리 조국에 바치곤했던
그대의 정직한 맹세의 자욱

가을날을 안타까이 기다리던 그 마음은
한치한치 자라는 봄싹과 함께 컸고
가슴속 남모르게 간직한 그 기쁨은
피어나는 벚꽃과 함께
향기되어 들에 넘쳤다

비오는 날 눈오는 날
그 자욱우에 그 소원을 꽃피웠구나
아, 설음 많던 이역에서 조국으로
멀시받던 암흑에서 광명으로
눈부신 그 빛발이 차넘치는 땅에
그대 뿌린 첫 씨앗이
수령님께 드리는 기쁨의 열매 되었구나
은혜로운 태양을 우러러 붉게 핀
한송이 충성의 꽃이여

기쁘다
주고 주시는 그 사랑, 그 은혜를
받고 받아 누릴줄만 알았다면
우리의 가슴 이처럼야 후더웠으랴
기쁘다
자본주의 그늘속에 시들던 그 몸에
태양의 해빛을 많이도 받은만큼
누구보다 일찌기
누구보다 서둘러
조국의 대지에 뿌리내려 꽃필줄 안 처녀야

아, 수령님의 크나큰 그 사랑에 비하면
그대 바친 로력의 열매는
하나의 작은 물방울!
배려받은 전사의 도리를 지킬줄 안
그 생각이 크고 커서
그 소행이 더없이 아름다와
그대는 사람들의 기쁨이로구나
그대는 온 나라의 자랑이로구나

위대한 수령님의 딸 홍청미 홍청미
은혜로운 태양의 해빛을 받는 꽃이
어떻게 피고 열매맺어야 하는가를
시대앞에 인민앞에 말없이 보여준
아, 아름다운 충성의 꽃이여!

시운전의 날에

한원희

시운전의 스위치를 넣자
하늘의 별들이 다 내려와 앉은듯
자동차 선광장 자동조작대에
붉고 푸른 신호불들 수없이 반짝이고
크고 작은 기대들이 일제히 일하누나

아, 광부들의 얼굴엔 온통 넘치는 웃음,
기쁨에 겨워 춤이라도 출듯
소조원 그대의 손을 뜨겁게 잡아 흔드누나
힘들게 샅으로 쇠돌을 퍼올리던 콘베아공이,
돌가루먼지속에 일하던 파쇄공이,
힘든일 벗어난 그 모든 기대공들이
인젠 마음껏 쇠돌을 선광하게 되었다고
그대를 둘러싸고 놓을줄 모르누나!

이 시각 우리의 수령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라,
한교대 두세번 대발파로
끝없이 실어내고 실어내는 쇠돌을
미처 다 일어낼수 없었던 안타까움,
소조원들이 시원하게 가져주었다고
얼마나 그 얼마나 만족해하시라

광부들의 로동이 그대로
아름다운 생활의 노래되기 바라시여
3대혁명전위의 영예를 안겨주시며
사랑으로 그대들을 떠나보내시고

믿음으로 그대들의 소식을 기다리셨을 수령님!

그 믿음 도면우에 새겨가던 나날이여,
광부들을 이끌어 새 기술을 익혀주며
그려넣는 점 하나 선 하나도
위대한 수령님 기쁨으로 되기를 바란 마음,
오늘은 자동차의 우렁찬 노래되어
넓고 넓은 선광장 가득히 넘쳐흐르누나!

아, 콘베아는 쇠돌폭포를 쏟아내고
마광기는 우뢰치며 돌고 도누나
어려움의 낮과 밤을 의지로 이겨내며
수령님의 사랑을 아름답게 꽃피운
티없이 깨끗한 그 마음을 이는듯
부선기는 돌아서 정광을 일고 이누나

그리도 겸손하게 웃고있는 소조원동무여
어서 광부들의 뜨거운 축하를 받으라
거기엔 그대의 충성을 배우고 따르는
광부들의 마음이 어렸으니
어서 받자, 축하의 꽃다발을!

아, 쇠돌을 일고 일어 선광장이던가
마음을 일고 일어 기쁨의 보화던가
한없이 빛나는 우리의 충성마냥
여기에 쌓이는 정광은 이리도 눈부시구나!

빛나라, 금수강산아!

배헌평

은혜의 해빛아래 산들이 솟아 빛나고
사랑의 손길아래 들이 펼쳐 설레인다
사회주의토지법을 받아안은 내 나라,
무궁한 번영의 나래 펼친 금수강산

열두삼천벌이라, 백두고원이라
흰구름 스치는 층층 다락밭에도
대자연개조의 기계소리 높이 울린다
어디 가나 굽이굽이 흘러가는 관개수
어디서나 출렁출렁 솟아오르는 지하수
가뭇든 하늘까지 분수비로 적셔주는 나라,

아름다와라 간석지
천리방죽엔 저녁노을이 불불고
강기슭 푸른 숲을 찾아 새들이 날아든다
얼마나 기쁨에 찬 산과 들인가
얼마나 살고싶은 고장들인가
열매 익는 향기에 묻혀있는 마을들은,
행복이 흐르는 락원의 거리들은,

위대한 수령님
백두설령 헤치시며 찾아주신 조국이기에
풀 한포기 나무 한그루 귀중하여라
한치 또 한치 피로 물들이여
목숨으로 지켜낸 강산이기에
돌뿌리 하나라도 다듬어 인민의 재부로 꽃피워간다

해방된 조국 민주의 강산에
땅의 영원한 주인으로 농민들을 세워주시고
위대한 수령님
협동화의 봄을 부르시여
세기에 묵어온 가난의 최폭을 털어주시고
농촌테제의 찬연한 해빛으로
농민들의 가슴속에
온갖 구속의 얼음장을 녹여주시더니

보통강개수공사의 첫삽을 뜨시던
조국땅에 대한 다함없는 그 배려가,
포연천리 전선길에서 주으신 평알을
몸소 깨워 강산에 날려보내시며
무지개빛 잔등에 미소를 엮으시던 그 사랑이
다시 또 금수강산을 부르신다

인민의 영원한 행복 강산에 꽃피우시려
위대한 수령님 몸소 마련해주신 토지법,

후손만대에 베풀어주시는 크나큰 은혜
주체조선의 토지법전이어!

사랑을 주실적마다
은혜를 베푸실적마다
다시 더 바랄것 없는 가슴들에
안을 사랑, 반을 은혜 끝이 없음을
또다시 깨우쳐주누나!

논고마다 기쁨이 넘치는 우에
이랑이랑 적시며 관개수 흘러간다
들판가득 늪실대는 황금의 바다우에
언덕마다 층층 황금의 층계가 솟고
천리수해 설레이는 밀림속에
기름나무림, 경제림이 자랑 안고 파도친다

가슴마다 기쁨 넘쳐라
강산도 감격에 설레여라
위대한 수령님 우리러 높이 모신
은혜받은 땅, 우리 인민만이
겹도록 받아안은 행복이여라

분여받은 땅우에 눈물로 패말을 박으며
대대로 물려오던 그 모든 숙원
이제는 다 풀렸노라 기뻐하던 마음들이다
진정한 땅의 주인, 나라의 주인 되어
가슴 벌려 하늘땅 안아보던 인민들이다

온 나라 온 강산이 펼쳐났어라
대자연개조의 노래,
국토건설의 노래 긍지높이 부르며
조국의 산과 들
한줄기 시내물, 한떨기 꽃을
지성어린 마음들이 어루만진다

아, 피로써 찾은 강산,
땀으로 결구어온 땅
사랑으로 개조해가리라
충성으로 가꿔가리라

수령님 해빛아래 빛나라 금수강산아
세상의 그 모든 아름다움
세상의 그 모든 풍요를 안고
세상에 가장 살기좋은
인민의 락원으로 더욱 높이 솟아
무궁한 번영의 나래 활짝 펼치여라!

말없는 이 땅에

황승명

사람마다 불리우는 제 이름이 있고
나이와 성미가 다르듯
그 어느 논밭머리에든
보란듯이 나붙은 포전 표말뚝

두렁 하나 사이두고도 지맥이 다르니
말 없는 이 땅이여도
래력을 잘 알고
성질에 알맞추 다루어야 한다고
자상히도 씨붙인 토양성분...

한껏 부풀어 들먹거리며
해빛에 번쩍이는 검실한 이 흙
퍼내고 퍼내어도 솟구치는 샘처럼
끝없는 자양으로
해마다 알찬 열매가 탐스럽게 주렁지는
이 땅의 성분이 과연 무엇이던가...

삽날을 박다가도 가슴이 찢어지다...
한 많던 지난 세월
이 땅을 걸구며 조상들이 뿌린
땀과 눈물은 그 얼마이던가...

분여받은 제 땅에 보습을 박으며
꿈같은 행복에 울고 웃던
그날의 맹세가 갈수록 깊이 뿌리내리고
이 땅 한치한치를 지켜
적의 화구를 가슴으로 막은
용사들의 붉은 피가 스며배인듯

무심히 스쳐지날수 있는
외진 밭이랑이여도 거기엔
아버이수령님께서 찾아오시여
몸소 떠보신 뜨거운 흙이 있고

오늘 또 토지법으로 보살펴주시여
존엄을 떨치는

영광의 포전들이 잇닿아있나니

이 땅에 뿌리 내리는
곡식들의 끝없는 설레임소리와
춤을 추며 흘러드는 관개수
금비료를 듬뿍 싣고
들판을 내닫는
자동차와 트랙토르의 동음에도
이 가슴을 흔들며 일깨워주는 당부가 있구나

어느 구석 한치의 땅도
더없이 귀중한 나라의 재부,
꿈결에도 문득문득 안아보고 매가꾸면
내 살점같이 혈맥이 통하는
이 땅은 보통흙이 아니다

우리의 삶이 뿌리내리고
나날이 안겨지는 크나큰 사랑과 믿음으로
세계를 휩쓰는 왕가물과 무더기비와
찬서리에도 끄떡없이
바라던 우리의 모든 소원을 꽃피우며
보다 큰 행복을 자래우는 이 땅

우리는 충성으로 불타는
가슴가슴들을 맞대고
아버이수령님께서 펼쳐주신 토지법과
대자연개조의 참뜻으로
이 땅을 더욱 기쁨지우고 살찌우며
저 표말뚝의 기록만이 아닌
웅심깊은 이 땅의 말을 듣거니

은혜받은 이 땅에는
저 하늘의 해가
천만년을 두고도 피우지 못한
행복의 꽃과 열매가 주렁지고
천세로 지켜 만세로 번영할
이 땅의 노래가 울리어퍼지리라!

물소리 가슴에 젖어들어

고영수

산천의 교요를 흔들며
땅속에서 팔팔 솟아오르는 물줄기
내 가슴에 시원히 흘러드는가
물씬 풍겨오는 물냄새에 취해
다락발에 오르는 새벽길이어

나를 반기여
발밑에 부서지는 천만의 구슬방울
알알이 옥백미로 튕겨나는듯
축축히 젖어드는 이 가슴에
주알주알 깊은 사연 속삭이누나.

별빛내리는 산정의 이슬발,
두렁길에 감도는 젖빛안개 헤치시며
수령님 걸으신 사랑의 자욱을 따라
솟아오른 달디단 젖줄기라고!...

땅속에 묻혀 삶의 기쁨 못누렸던가.
마구 덩굴며 사뭇치는 사랑의 생명수,
산 넘어가던 새벽달도
논벌에서 잠을 깬 뜰부기도
다락발 물이 좋아 춤추며 내리누나.

철철 흐르는 땀방울
언땅우에 씨앗처럼 뿌리며
어버이수령님의 가르치심대로
우물을 파고, 굴포를 파고
줄짱으로 뽑아낸 물!

하늘색 물빛이 차고넘치는
이랑우에 잠시 걸음 멈추고
흘러가는 물소리 듣기 좋아라
아, 새로 낸 물길 타고 흐르는 소리
밭에서 가물을 몰아내는 소리.

흐르는 물소리에 이어
이랑이랑 넘쳐나는 새삶의 노래
들려와라, 복받은 대지우에
우적우적 강냉이 아지치는 소리
튀겨날듯 이삭이 영그는 소리...

대룩과 대룩을 휩쓸며
아닌 때 갑자기 달려드는
한랭전선의 변덕스런 조화도
은혜 넘치는 수령님 사랑의 해빛아래
이 땅에선 안개처럼 가뭇없이 사라져라.

한방울의 물이 천금보다 귀해
작은 돌돌이 구멍도 막아주며
포기마다 물려주는 행복의 젖줄기여
걷는 걸음 멀어질수록
물길타고 가까이 실려오는 풍년가을이어

아, 어버이수령님께서 들으시면
한없이 기뻐하실 물소리
황금파도의 설레임소리!...
이 새벽, 내 만풍의 래일을 안고
물길따라 끝없이 걷고만싶어라.

깊은 바다

서정호

포구에는 불빛 한점 보이지 않았다. 모든것이 어둠속에 녹아내린듯하였다.

전쟁이라는 준엄한 환경이 한때 풍만한 생활과 웃음이 넘쳐나던 포구의 표정을 엄하고도 무겁게 만들어놓은것이다.

그래도 입항을 알리는 배고동소리가 울리고 만선을 단 배들이 잔교에 와닿자 포구는 갑자기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사람들이 달려나오고 바줄이 매여졌다. 가공반아낙네들과 처녀들이 수동기중기로 퍼올린 물고기들을 손달구지에, 혹은 함지에 한입씩 받아이고 잔교로 내달았다.

고기를 인수하러 온 군대자동차들과 마차들이 앞을 다투어 잔교로 들어선다.

부르릉거리는 자동차소리, 말들의 울음소리, 바다바람처럼 성갑스러운 아낙네들의 익살긋은 웨침소리에, 고등어절임탕크에 가져가지 말고 그대로 군대자동차들에 실으라고 고아대는 어장책임자의 부르짖듯한 목소리까지 겹쳐서 포구는 완연 혼잡을 이루었다. 만선의 기쁨이 사람들의 부산스러운 움직임과 웨침소리들에, 그리고 혼잡하기는 하지만 유쾌한 활기가 넘치는 포구의 모든것들에 깃들어있었다.

10메터짜리 범선에서 네모진 얼굴에 온통 구레나룻투성인 장대한 로인이 잔교로 내려섰다. 이 포구마을의 토배기배군인 팍로인이었다.

바다바람과 해별에 그슬린 로인의 숯검댕이같은 주름진 얼굴에는 흐뭇한 미소가 어리여있었다. 그는 잔교우에 홀어진 고등어 몇마리를 주어 자동차 적재함안으로 집어던진 다음 고기비늘이 더덕더덕 묻은 짜진 고무장화를 털썩덕거리며 저편 지붕웃설미만이 간신히 드러나보이는 반토굴로 된 어장휴게실쪽으로 천천히 발걸음을 옮겨놓았다.

문득 누군가 그의 발걸음을 멈춰세웠다.

《당위원장동무가 아바이를 좀 만나자고 하더군요. 저기 사무실에서 기다리고있습니다.》

어장책임자였다.

팍로인은 알았다고 머리를 끄덕인 다음 그쪽으로 발길을 돌리었다.

사무실에서 나온 팍로인은 불시에 술에라도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리며 바다가 모래불을 허둥지둥

걸었다. 그의 얼굴에는 짙은 그늘이 덮이고 경련을 일으키듯 두볼이 연신 실룩거렸다. 바다바람에 머리카락이 흩날렸다. 모래불을 밟으며 밀려든 파도의 비말이 옷에 휘뿌려졌다.

하나 그는 그런것을 전혀 의식하지 못하는것 같았다.

밤이었다. 그의 머리우에는 짓누르는것 같은 하늘이 무겁게 드리워져있었다. 짙게 깔린 여름안개가 좁다랗게 압축된 하늘과 바다사이에 꼭 들어찼다. 별도 보이지 않는 어둡고도 침침한 밤이었다.

팍로인은 무언가 깊은 생각에 잠긴듯도 하고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는듯도 한 정신적인 허탈상태에 빠져 모래불에 깊은 자욱을 남기며 어디론가 향방없이 자꾸만 걸어갔다.

썩 처절썩- 파도소리만 못질하듯 가슴에 와 박힐 뿐이었다.

갑자기 저기 바다쪽에서 강렬한 램조등불빛이 비질하듯 수면을 찾으면서 지나갔다. 수평선아근에 도사리고있던 적함에서 내쏘는 불빛이었다.

그 불빛에 바다가에 있는 모든것- 배며 잔교며 절임탕크며 장대무지들이 일시에 확 드러났다가 사라졌다.

발걸음을 멈춘 팍로인의 얼굴이 일순 무섭게 이 지러졌다.

《망할놈들!》

불을 토하는것 같은 웅글진 어조로 이렇게 중얼거리고는 다시금 비틀비틀 걸어갔다.

팍로인은 밤이 퍼그나 깊어서야 집으로 돌아왔다.

그의 옷은 땀과 바다물에 휘주근히 젖어나고 허영게 바랜 머리카락이 삼검불처럼 흩어졌다. 무서운 풍랑을 겪고난뒤처럼 가슴엔 평온이 깃들었으나 눈자위가 꺼져들어가고 온몸이 물먹은 솜처럼 폭삭해졌다.

그는 얼마간 마당가에 그대로 망연히 서있다가 집사람들이 깰세라 조용히 옷방문을 열고 방안으로 들어갔다.

옷갈아입을 생각도 잊은듯 그냥 방바닥에 퍼더버리고 앉아 큼직하게 엽초를 말아서 입에 물었다. 그리고는 성냥을 그어 불을 붙인다음 푸- 깊은 한숨과 함께 비자루같은 담배연기를 허공에 내뿜었다. 이윽고 팍로인은 입술을 지그시 깨물며 농안에서

그물실 한통구리를 끄집어내었다.

갈래갈래로 찢어지는듯한 자신의 마음을 꺾매듯 한코 두코 그물을 꾸며나가기 시작하였다.

어느때같으면 눈감고도 할수 있는 익달된 일이었다. 하나 지금은 왜선지 처음 해보는 일처럼 눈에 설고 손에 설었다.

그러나 어쨌든 그는 온밤을 뜬눈으로 새다싶이하여 방 한칸 넓이나 되는 고등어그물을 꾸며놓았다.

아침에 옷방으로 올라온 막내딸 옥단이 두눈을 휘둥그리며 탄성을 올리였다.

《아이! 아버지 어느새 이 많은 그물을...》

그는 두손으로 그물을 펼쳐들었다. 순간 그의 눈엔 의혹이 실리였다.

《아니, 아버지 이게 웬 일이에요? 그물코가 이렇게 고르지 못하니?》

아닌게 아니라 그물은 몹시도 서둘게 꾸며졌다. 그러니 옥단이로서는 의혹을 품을만도 한 노릇이었다. 어느 일도 물론 그러하지만 그물을 꾸미는데서는 실상 여기 포구마을치고 아버지를 따를만한 사람이 없지 않는가?

《허 인젠 나이들고보니 눈이 어두워서 그렇게 되었나보다. 불합격이라면 풀어서 다시 뜨자꾸나.》

박로인은 피발이 선 눈을 내리깔며 조용히 중얼거려였다.

오늘따라 이른아침부터 적기들의 갈갠질이 몹시 심하였다. 바다 한가운데 뻗치고 서있는 적함에서도 무시로 눈먼 포탄이 날아와 흙먼지를 말아올리며 터지군하였다.

아침 일찌기 조반을 필한 박로인은 목수도구들을 챙겨든채 무거운 머리를 들고 바다가로 나왔다.

질은 암회색 구름이 바다위로 낮추 흐르고있었다. 어느쪽에선가 물기를 머금은 쌀쌀한 바람이 불어왔다.

바다는 몸부림치듯 설레였다. 저기 깊은 바다에서는 높아진 파도 봉우리에 물갈기가 일고있었다.

위장망을 쓴채 바다가에 띠엎띠엎 널려있는 목선들이 파도가 밀려들 때마다 높아졌다낮아졌다 하면서 몸을 기우뚱거려였다.

반쯤 모래불에 끌어올려다가 세워놓은 8미터 목선으로 다가간 박로인은 위장망 한귀를 떠들추고 그속으로 들어갔다. 어제 낮에 하다가 채 끝맺지 못한 배수리를 마저 하기 위해서였다.

그가 한참 톱질을 하고있는데 같은 일찍패인 형도가 배안으로 쏙- 들어왔다. 그는 모자를 벗어 꾸벅 인사를 차린 다음 미안한듯 말했다.

《오늘도 아바이한테 선손을 떼웠구만요. 오늘 아

침엔 나도 꽤 일찌감치 나온다구 서둘렀는데...》

박로인은 그 소리는 들었는지 말았는지 그저 덤덤히 톱질만을 계속해냈다.

전사한 자기 아들또래의 청년인 이 형도로 말하면 남강원도의 어느 한 포구마을에서 들어온 어민들중의 한사람이었다.

마을이 해방되자 자기 동무들과 함께 의용군에 입대하려고 했으나 상한 다리때문에 끝내 소원을 이룰수가 없었다.

그는 이리로 온후에도 그 일을 두고 늘 한탄 비슷이 말하곤했었다.

어딘가 흥분하기 잘하고 지내 성급한것이 좀 탈이긴 하지만 반면에 말보다는 행동이 앞서고 바다 일에 들어서는 별로 막히는데가 없는 성실한 청년이었다.

그들이 배수리를 끝내고 밖으로 나온것은 한낮이 조금 기운무렵이었다.

하늘에서는 여전히 적기가 딱장벌레처럼 붕붕대며 돌아치고있었다.

모래불에 앉아 담배 한대를 다 태운 박로인이 자리에서 일어나 막 도구를 챙겨들려는데 그사이 어디론가 사라졌던 형도가 무슨 큰 일이라도 난 사람처럼 두주먹을 부르친채 헐금썰금 달려왔다.

그의 몸은 온통 땀에 떠있었다.

그는 무작정 물에 매놓은 사돌선의 위장망을 벗기더니 비끄러맨 바줄을 풀고 훌쩍 배에 뛰어오르는것이였다. 그리고는 노를 거머쥐고 막 떠날 차비를 하였다.

박로인은 두눈이 휘둥그래졌다. 그는 급히 사돌선으로 달려가 웅이진 솔뚜껑같은 손으로 덩석 배꽂무니를 붙어잡았다.

그리고는 엄한 목소리로 물었다.

《어딜가?》

《고등어떼가 미래(정치망의 안내그물)를 탔습니까. 빨리 나가 그물문을 막아야겠어요.》

《뭐? 임자논엔 저 미군놈의 비행기들이 보이질 않나.》

《그까짓것들이 무서워 고기뿔 보면서두 이대로 멍청하니 앉아있겠습니까.》

《나갔다가 무슨 봉변을 당하지 못해서 그래.》

《그래두 고긴 잡아야 할게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녁 고기 받으러 온 군대차들을 그냥 빈차로 돌려보낼순 없지 않습니까. 까짓게 구데기 무서워 장 못담그겠습니까.》

《무슨 소리? 어서 내리지 못할가.》

얼굴을 이그러뜨리며 추상같이 부르짖는 로인의

성난 목소리에는 추호도 양보를 할수 없다는 서슬 푸른 기상이 서려있었다.

형도는 그 기상에 놀리운듯 마지못해 배에서 내려였다.

얼굴엔 울분이 어리었다. 분을 새길수가 없어 씨 근덕거리기까지 했다.

초여름에 접어들면서 이곳 《사》수산사업소의 금호어장에서는 꽃섬 가까이에 고등어정치망을 쳐놓았었다. 이것은 전시인 지금에 와서 그들에게 있어서는 돌도 없는 유일한 어로방법이었다.

이 정치망에는 지금처럼 고기떼가 그물안으로 몰려들어가면 막아주군하는 그물문이라는것이 있는데 이걸 제때에 달아놓아야 도로 빠져나가려는 물고기들을 가두어낼수가 있고 또 그래야 밤에 나가서 만선을 해가지고 돌아올수가 있는것이다.

실상 분초를 다투는 긴장한 작업이었다. 형도는 바로 그 그물문을 막겠다고 저렇게 서둘러대는것이다.

그 마음이 기특했다. 위험을 무릅쓰면서까지 더 많은 물고기를 잡으려는 그 심정이야 오죽이나 장한가!

하나 물고기가 아무리 중하기로서니 감히 사람의 목숨하고야 바꿀텐가? 차라리 나같은 늙은것이 하면 했지 앞길이 구만리같은 저 아들또래의 형도에게는 말길수가 없는 일이었다.

어쨌거나 그 마음은 고하간에 젊은 혈기에서 나오는 저런 모험심은 아예 그 싹에서부터 지르뵘아 놓아야 한다고 팍로인은 생각하였다.

《아바인 너무 소심합니다. 위험하다고 몸을 사린다면 군대동무들에겐 언제 많은 물고기길 보내주겠습니까?》

형도가 노기서린 어조로 들이대었다.

《군대에 더 많은 물고기길 보내주고싶은 심정으로 말하면 나도 임지와 못지 않아. 하지만 그것두 형편이 어지간할 때 애기지 오늘따라 저놈들이 저렇게 노상 미친듯이 발광을 하는 판에 무슨 일이 일어날 줄 알구 임잘 그 사지판으로 내보낼텐가?》

《그건 설을 지고 불속에 뛰어드는것과 같은 무모한 짓이네. 저것들이 편안히 그물문을 막으라구 임잘 그저 가만히 두어들상싶은가?》

《그렇다구 어떻게 가만있겠어요. 아바인 저의 심정을... 너무나도 몰라주십니다... 정말...》

형도의 목소리는 흥분으로 떨리었다.

지나친 격정때문에서인지 어깨가 한발씩이나 오르내리었고 눈엔 핑 물기마저 어리었다.

팍로인은 사뭇 놀란눈으로 그의 얼굴을 바라보았

다.

(사연이 있군. 가슴속에 무엇인가 아픈 상처를 묻어가지고 다니는 사람임에 틀림이 없어.)

하나 그는 이 자리에서 구래여 그 사연을 캐물으려고는 하지 않았다.

《내가 임자의 심정을 몰라준단말이지. ...어떻든 모험은 하지 말아야 하네. 우리의 싸움이란 하루이틀에 끝나는것이 아니지 않나. 물고기문제를 가지구는 너무 걱정일랑말게 다 잘될거네.》

팍로인은 이런 말로 그의 마음을 농쳐주었다.

《오늘 낮엔 기왕 바다에 나가긴 그른거니 우리 저기 도래굴이에 가서 섭이나 따차구.》

《네? 섭이요? 허 참, 아바이두, 배군이 시시하게 섭이나 따려 다니다니요?》

《그럼 저기 가서 절임탕크 만드는 동무들의 일손이나 도와주게.》

형도와 헤어진 팍로인은 집에 들려 가마니와 바오래기를 가지고 도래굴이로 발길을 돌리었다.

동견하늘 한귀가 빠끔이 트이더니 거기로부터 밝은 해빛이 줄줄이 쏟아져내리었다. 그 빛을 떠인 파도들이 무겁게 술렁대었다.

빛은 점점 넓게 번져갔다. 넓어진 구름장들사이로는 파랗게 가시여낸듯한 하늘이 점점이 드러나보이였다.

하나 그도 한순간의 일이었다. 하늘은 다시 흐려지고 따라서 바다는 재빛을 띠었다.

팍로인은 모래불에 무거운 발자국을 찍으며 천천히 걸어갔다.

어느덧 도래굴이에까지 온 그는 메고 온 가마니를 바위돌우에 내려놓고 그속에서 주머니 하나와 쇠불이로 된 손도구 하나를 끄집어내었다. 섭을 따기 위한 준비였다.

옷옷을 벗고 바지가랭이를 걸어올린 그는 잠시 바위돌에 걸터앉아 명상에 잠긴 얼굴로 우두커니 먼 바다를 바라보았다. 어쩐지 심회가 어수선했다. 심중에 깊이 쫓겨들어갔던 서글픈 감정이 다시금 되살아나면서 못견디게 가슴을 허벼대는것이였다.

문득 그의 눈길은 저 앞 물우에 비죽이 머리를 내밀고있는 섬바위에 가서 못박히었다.

바위우에 쪼그리고 앉아 가쁜 숨을 뿔아올리고있는 어린 동철의 모습이 떠오르고 그와 련결된 잊을수 없는 하나의 추억이 환영처럼 눈앞에 비껴왔다.

그것은 그애가 여라문살 났을 때의 일이었다. 헤엄치는 법을 배워주려고 어느날 팍로인은 엘 데리고 여기 도래굴이로 나왔다.

그는 팔다리 놀리는 법을 비롯하여 이런 저런 헤염치는 묘기들을 터득시켜준다는 인젠 저 섬바위까지 혼자 헤엄쳐갔다오라고 했다.

동철은 얼마간 주저주저하며 서있더니 아버지의 엄한 얼굴에 기가 질리었던지 침버덩 물속으로 뛰어들었다. 그는 배워준대로 곧잘 팔다리를 놀려가며 20미터 남짓되는 섬바위까지 단숨에 헤엄쳐 건너갔다. 섬바위에 올라앉아 한참동안 가쁜 숨을 토했아올리다가 인젠 돌아오라는 아버지의 호령에 끌려 다시금 물속으로 뛰어들었다.

물중간쯤 건너왔을 때 갑자기 그는 숨박꼭질이라도 하듯 파도속에 머리를 잠그었다가 솟구었다. 어푸어푸 하는 바쁜 소리를 뽀박하며 팔을 허우적거리었다. 구원을 바라듯 아버지를 불렀다. 기진해버린 모양이었다.

하나 팍로인은 태연했다. 그는 아들을 향해 소리를 질렀다.

《이 녀석 아버지는 무슨 아버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부쩍 기운을 내지 못할가?》

팍로인의 엄한 호통이 효과를 냈던 모양인지 아니면 그애자신이 삶에 대한 본능이 작용했던때문이었는지 어쨌든 제힘으로 끝까지 헤엄쳐 건너왔다.

팍로인은 그런 아들이 여간만 대견스럽지 않았다. 마음같아서는 덤석 껴안고 불이라도 비벼주고싶었다.

하나 팍로인은 그런 잔정을 나타낼줄 모르는 사람이었다. 아니 의도적으로 나타내지 않았는지도 몰랐다.

그는 부드러운 말 대신 아들의 불기썩을 철썩 갈기였다.

《망할 녀석, 그렇게 제힘으로 얼마든지 건너올수 있으면서도 뭘 무슨 피냐?》

그때 아들은 서럽게 울었다. 억울하고 분해서였을것이다.

이것은 오래전의 일이었다. 해방후 팍로인은 이 도래곶이에서 아들에게 헤엄대신 잠수기술을 배워주었었다. 어떤 심술궂은 거인이 이 뒤에 솟아있는 기암산의 돌바위들을 아무렇게나 쥐어뿌린듯한 도래곶이의 바위밀과 그 주변에는 천연적인 천해양식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정도로 바다자원들이 많았다. 썩, 해삼, 갈미, 생복, 성게 등 실로 없는것이 없었다. 하기에 아들은 주로 여기에 와서 잠수일을 했고 자기앞에 부파된 국가계획을 넘쳐해냈었다.

아들을 전선으로 보내준곳도 바로 이 도래곶이였었다. 그때 아들은 말하는것이였다.

《제가 어릴 때 아버지가 여기에서 저에게 헤엄치

는 법을 배워주며 불기썩을 지던 일이 생각납니다. 그때 저는 아버지가 원망스러웠습니다. 하나 철이 들면서 아버지가 무엇때문에 저에게 그런 엄한 요구를 했던지 점차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전선에 나가서도 억센 의지와 용감성으로 썩 어버이수령님께 충성을 다하겠노라고 맹세를 다지였었다.

팍로인은 무언가 목구멍으로 치받쳐오르는 뜨거운것을 삼키며 아들의 모습이 도래곶이 저편으로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점도록 그 자리에 서있었다.

하나 그것이 그 애와의 마지막 작별로 될줄이야 어찌 알았으랴.

팍로인은 깊은 한숨과 함께 허파깊숙이 빨아들였던 담배연기를 푸- 하고 내뿜었다.

하지만 아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참된 전사답게 장하게 갔다. 어제밤 당위원장한테서 전달받은 아들이 속해있던 구분대장의 편지에 의하면 동철은 습격전투에나갔다가 돌아오던 길에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애국청년 몇을 구원하고 대신 전사했다니 이에서 더 강한 일이 또 어디에 있느냐.

문득 뒤에서 인기척이 났다. 돌파보니 언제왔는지 거기엔 막내딸 옥단이가 그런듯이 서있었다. 일잘하고 마음씨 착한것으로 하여 포구사람들의 귀여움을 사는 딸이였다.

옥단은 조용히 팍로인에게로 다가왔다. 어쩐 일인지 그의 눈두덩은 부어있었다.

《아버지, 왜 여기 나와계세요?... 그만 들어가십시오.》

갈린 어조로 이렇게 중얼거리는 그의 목소리는 저르기 떨리였다.

팍로인은 묵묵히 담배만을 태울뿐 대답이 없었다.

《저도 방금...들었어요. 오빠 흑...》

옥단은 어깨를 들먹거리였다. 그의 두볼로는 뜨거운 눈물이 락수물처럼 흘러내리였다.

《눈물을 거뒀라. 이게 무슨 짓이냐?》

팍로인은 엄한 눈길로 옥단의 얼굴을 쏘아보았다.

옥단은 울음을 참느라고 입술을 깨물었으나 어깨만은 여전히 물결치듯 오르내리였다.

《이런 슬픔을 안은 사람이 어디 우리뿐이라더냐? 그럴수록 마음을 더 굳세게 먹어야지. 그렇게 훌쩍 거린대서 간 사람이 도로 올테냐?》

얼마후 옥단이 진정하자 이번엔 어딘가 좀 부드러워진 어조로 팍로인이 다시 말했다.

《가보아라. 난 썩 한가마니를 따가지고 가야겠다. 산에 있는 고사충종대동무들에게 아침꼭거리나 하라고 이걸 가져다주면 좀 좋아하겠니.》

《저도 따졌어요.》

《그래라. 우리 그럼 저기 섬바위로 가자.》

둘은 바위돌들을 넘겨짚으며 물밖으로 비죽이 머리를 내민 섬바위를 향해 뿔뿔이를 해서 건너갔다.

그날밤 정치망어장에서 돌아온 팍로인은 집으로 들어서기 바쁘게 허청간에 가서 벼짚들을 날라다가 물을 축인다음 부시대며 새끼를 꼬기 시작하였다. 시간에 대한 개념을 전혀 잊어버리기라도 한 사람처럼 자정이 넘도록 그는 말 한마디 없이 싹싹 쉬 없이 벼짚을 비벼나갔다. 정치망의 헛그물을 늘구려는 목적에서였다.

《아버지, 인젠 그만하구 쉬세요. 래일 일도 생각하셔야지요. 그러다 몸이라도 상하시면 어쩌려구 그러세요?》

옥단이 측근한 어조로 벌써 몇번이나 권고를 하는 것이었으나 팍로인은 들었는지 말았는지 그저 한 본새로 일손만을 다그어댔 뿐이었다.

피곤이 물러와 밀창없는 심연속에 홀렁 빠져들었던 옥단이 다시 눈을 뜬것은 남향바라지가 푸름푸름해오는 새벽녘이었다.

웃방에서는 여전히 새끼꼬는 소리가 들려왔다. 아버지는 몇시간전의 그 자세를 조금도 흐트러뜨리지 않은채 묵묵히 손을 놀리었다.

아버지 얼굴엔 표표한 기상이 어리고 눈에서는 솟제 밤새운 사람같지 않은 정체가 풍기였다.

옥단은 아버지의 심중이 헤아려져 아픈 마음을 안고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방안으로 올라가 말없이 아버지가 밤새 꼬아놓은 새끼를 차근차근 사려놓았다.

날이 어둡자 세척의 목선이 끝배에 이끌리어 포구를 떠났다. 바다에 처놓은 정치망에 가서 물고기를 퍼오기 위해서였다.

8미터목선에는 팍로인이며 형도 그리고 옥단이네들이 앉았다. 가공공인 옥단이는 일행중에 끼울 수 없는 존재였으나 간절히 배를 타겠다고 조르는 통에 그대로 받아주기로 한 것이었다. 하긴 그물출손포가 모자라기도 하였다.

바다쪽에서 쌀쌀한 바람이 불어왔다. 불시에 파도머리가 높아졌다.

몸체를 기우뚱거리며 앞으로 내달리는 선측으로는 번뜩이는 바다물이 흐늘거리면서 뒤로 뒤로 물러갔다. 선미쪽에서는 거품을 문 허연 물결이 사품치듯 끓어올랐다.

배는 정치망어장을 향해 삼십분 종이가 달리었다.

사람들은 입을 다문채 별로 말들이 없었다. 팍로인이며 옥단의 얼굴에도 무거운 빛들이 어리었다.

어느덧 그물우에 뜬 고무떼들이 지척에서 바라보이였다.

끝배에서 풀려나온 목선들이 정치망 한켠에 가붙었다. 드디어 어로공들이 그물을 취나가기 시작하였다.

그물이 어지간히 좁혀지자 그들은 10미터범선으로 옮겨와 배전에 일렬로 늘어서서 마지막 그물을 추어올리었다.

힘겨운 작업이였다. 하나 그들의 일손엔 빈틈이 없었다. 역세고도 탄력있는 몸놀림, 규칙적인 손바꿈, 그들의 움직임에서는 사람들의 마음을 흥겹게 해주는 약동하는 힘의 툴동이 그리고 무엇인가 한 마다 뽑지 않고서는 못건딜 격동적인 선물이 울리었다.

그 앙양된 힘과 거센 미에 형도의 가슴은 저도모르게 높뛰었다.

《형도!》

팍로인의 벽력같은 고함소리가 파도소리와 어로공들의 맥이고받는 소리를 밀어젖히면서 북치듯이 울려왔다.

형도는 꿈쩍 놀라 로인의 성난듯한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쪽 그물이 처진다. 부쩍 당겨라!》

형도는 로인의 그 도도한 기상에 경탄비슷한 그 어떤 새삼스러운 충동을 느끼며 팔뚝에 우쩍 힘을 주었다.

(역시 로인은 배군이야!)

하는 말이 입에서가 아니라 가슴속에서 울려나왔다.

어로공들은 좁혀진 그물속에 산대를 집어넣고 고기를 퍼올리기 시작하였다. 팍로인이며 형도네들은 산대그물로 고기를 푸고 부리는 기본작업을 맡았고 옥단이네들은 돛대 꼭대기에 비끄러맨 활차에 펼쳐진 산대의 바줄을 당기고 놓아주는 일을 맡았다.

산대그물을 다루는 팍로인의 행동은 민첩했다. 자기로서도 미처 따르지 못할 날파람과 정력을 가지고있어 형도는 부지중 감탄의 눈으로 그의 일모습을 넘겨다보았다.

바다에는 고등어사태가 났다.

산대그물이 풀릴 때마다 와그르 고등어떼가 쏟아져나와 펄떡펄떡 요동질을 하며 꼬리로 갑판을 치고 어로공들의 발목을 때리면서 선창으로 쓸어들어갔다. 미처 들어가지 못한놈들은 어로공들이 발길로 차서 밀어넣었다. 유쾌하고 즐거운 한순간이였다.

물고기들로 하여 풍겨진 신성하고도 발랄한 생기가 온 바다에 차넘치었다.

이즈막에 와서는 보기도문 어둡고였다. 팍로인의 얼굴에 부드러운 미소가 어리었다.

형도의 머리속에는 한가닥 의문이 서려올랐다.

오늘낮에도 적기들이 어찌 못지 않게 몹시 갈개였다. 낮에 절임탕크 만드는 일에 동원되었던 탓에 구체적인 실정은 알수 없는 일이나 어쨌든 그런 형편에서 그물문을 막지 못했을건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도 이런 많은 물고기가 들었다는것은 무얼 의미하는것일까? 우연한 횡재일까?...

어느덧 만선의 기쁨을 안은 그들은 포구으로 배머리를 돌리었다.

다음날 낮이었다.

팍로인은 바다가에 높이 솟아있는 기암산 정수리에 올랐다. 여기서는 바다가 먼 수평선까지 눈아래로 바라보이였다. 하늘은 맑았다. 한낮의 따사로운 해별이 단조롭게 설레이고있는 바다를 조용히 어루만지고있었다. 잔물결에 반사된 해빛반점들이 온 바다우에서 잠시도 쉬지 않고 눈부시게 반짝이였다.

허청하니 넓은 바다우에는 고기배 한척 눈에 띄우지 않는다. 약동하는 바다의 정서와는 너무나도 어울리지 않는 한산한 모습이었다. 저 멀리 해당화가 빨갭게 핀 꽃섬아근에는 이곳 어장사람들이 쳐놓은 정방형의 고등어정치망이 넓다라니 자리를 잡고있는데 지금 팍로인의 눈길은 그 정치망에 가있었다. 고기떼가 그물에 물려들면 배를 타고 나가 그물문을 막고 오자는 료량에서였다.

수평선에 미제침략군놈들의 배가 훑물스럽게 도사리고있으나 지금따라 하늘만은 이상스럽게 조용했다. 놈들도 인젠 지쳐버린 모양이다.

한낮이 조금 기울무렵 드디어 그물근방에 구름과도 같은 커다란 반점이 생겨나기 시작하였다. 고등어떼였다.

자리에서 벌떡 일어난 팍로인은 구울듯이 산을 내리었다. 자그마한 실개천을 건넜다. 발목까지 빠지는 불덩이같은 모래불을 가로질렀다. 그는 어느새 위장그물을 씌워놓은 사돌배에까지 달려왔는지 몰랐다.

그는 헐썩이는 숨결을 달랠 사이도 없이 위장그물을 벗기고 그대로 배에 뛰어올랐다. 그리고는 노대를 힘있게 거머쥐었다.

찌국찌국 노젓는 소리가 다급하게 울리고 배전으로서는 거품을 문 푸른 물결이 퍼처럼 흘러갔다. 끼룩끼룩...깃을 편 갈매기들이 휘휘 배전우로 넘나든다.

바다는 점점 더 넓어지고 파도는 차츰 높아졌다.

따라서 배의 진동도 커졌다.

하늘에서는 따스한 태양이 지지듯 내려쬐이였으나 건들거리는 해풍에 몸도 마음도 서늘해났다. 머리칼이 흠날리고 옷자락이 기폭처럼 펄럭이였다.

꽃섬이 멀지 않았다. 정치망우에 뜬 고무떼들이 지척에 바라보였다. 노를 젓는 팍로인의 두 팔뚝엔 힘줄이 일어섰다.

어디선가 하늘을 찌는듯한 발동기소리가 울려왔다. 팍로인은 맞은편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주먹만한 검은점 두개가 바다우에 낮추며서 이쪽을 향해 날아오고있었다. 어느덧 그 형체가 점점 더 커지더니 아츠러운 소리가 덜치듯 머리우에서 울리었다. 미제침략군놈들의 《그라망》이였다. 종내 울것이 오고야말았다.

놈들은 쪽배를 발견한듯 서로 량견으로 갈라지더니 둥그렇게 원을 긋기 시작하였다.

어쩐다? 물로 뛰어내려? 해염쳐서 저기 정치망의 고무떼에 가붙으면 무사할수가 있었다. 하나 그렇게 되면 그사이 고기는 다 달아나버릴것이고 오늘 밤 군대차들은 그냥 되돌려보낼수 있지 않겠는가.

팍로인은 잠시 안절부절을 못하고 서있었다. 부지중 그의 눈알엔 위대한 수령님의 뜻을 받들어 잘 싸운 아들의 모습이 떠올랐다.

이런 정황에서 동요하거나 비겁하게 행동하는 나의 꼴을 본다면 과연 그랜 무어라고 할텐가? 아니다. 죽어도 그물문을 막다가 죽어야 한다. 팍로인의 얼굴에는 비장한 결심의 빛이 어리었다. 그의 두눈은 숯불처럼 이글거리고 수많은 눈섭이 푸득푸득 뛰었다...

그와 거의 같은 시각에 얼마전 팍로인이 올랐던 기암산꼭대기로 헐헐헐쩍 가쁜숨을 몰아쉬며 툭아오르는 한 청년이 있었다. 형도였다. 낮에 절임탕크 만드는 일에 동원되었던 그는 오늘은 어떤 일이있어도 자기가 바다에 나가 그물문을 막아야겠다는 생각하고 고기떼의 류동상태를 알아보기 위해 이리로 온것이다.

어느덧 산꼭대기에 올라 바다를 내다보던 그의 두눈이 금시 뒤집힐듯이 흠뻑졌다. 전률하듯 온몸을 부르르 떨기까지 하였다.

바다우에선 두대의 적기가 먹이를 노리는 날짐승마냥 원을 그리며 돌아치고있는데 그밑 정치망어방에서는 누군가 사돌배우에 그대로 뻗치고선채 무슨 일인가를 천연스레 하고있지 않는가?

그 사람은 지금 자기 머리우에서 적기가 돌고있다는것도 그리고 자신의 생명이 경각에 놓였다는것도 전혀 의식하지 못하는것 같았다.

참말이지 거인과도 같은 불사신의 모습이였다!
정치당에 고기떼가 까맣게 밀려드는것으로 보아
지금 그 사람은 그물문을 막고있는것이 틀림이 없
었다.

형도는 어쩐지 자기가 해야 할 일을 그가 대신하
고있는것만 같아서 저으기 가슴이 저려올랐다. 어
물거린 지신의 용렬함이 민망스레 생각되기도 하였
다.

그런데 저건 누구일가? 적기가 돌아치는속에서
도 뛰어내릴 생각을 앓고 고집스레 일을 하고있는
것으로 보아 그는 결코 그물문을 다 막기전에는 돌
아서지 않을것이였다. 짧은 시간내에 혼자서 그물
문을 다 막기에는 실상 힘에 부치는 일이 아니겠는
가?

뚜루룩 뚜루룩... 드디어 적기가 기총을 란사하였
다. 아군 고사총진지에서도 맞불질을 했다.

형도는 텅기듯 자리에서 일어나 두주먹을 부르친
채 산아래로 내리굴렀다. 물에 매놓은 사돌배에 뛰
여오르자 힘껏 노를 저었다.

새바람이 불어왔다. 달려나가는 그의 배에 맞서
나서기라도 하듯 수천수만의 높고낮은 파도들이 연
해연방 밀려와서는 선수를 갈기고 선체를 물어뜯었
다. 그리고는 제깎에 놀란듯 창황히 뒤로 물러가군
하였다. 그래라 배는 파도마루를 뛰어넘으며 거침
없이 앞으로 내달리였다.

형도의 이마와 가슴팍으로는 땀이 흘러내리고 목
에서는 겨불내가 났다.

아군 고사총의 대응화력에 질겁한 적기는 먼발치
에서만 맴돌더니 그만 어디론가 황급히 쫓무니를
빼버리고말았다. 잠시후 저쪽 배가 이리로 배머리
를 돌리였다. 벌써 그물문을 다 막은 모양이였다.

배는 형도를 맞받아 미끄러지듯이 달려왔다. 그
러니 사람은 상하지 않았나부다. 어느덧 배와 배와
의 사이가 바틈해졌다.

일순 형도는 노젓던 손을 멈추고 말뚝처럼 그자
리에 굳어졌다. 숯검댕이같은 주름진 얼굴에 온통
구레나룻투성인 장대한 로인, 아 그건 분명 팍로인
이 아닌가! 전번 대낮에 바다로 나오려는 자기를
그렇듯 매몰스레 막아나서던 그 팍로인이였다!

형도는 그만 가슴이 몽클했다. 지금껏 자기들을
대신하여 바다에 나와 그물문을 막았던건 바로 팍
로인이였다는것을 그는 이제서야 분명 깨달았다.
자기들을 아껴주는 팍로인의 그 뜨거운 심정이 가
슴을 찼다.

하나 형도에게는 차라리 그제 불만스러웠다. 무
언가 남들보다 더 벅차고 더 어려운 일을 하지 못

해 몸달아하는 자기의 심정을 조금이라도 알아준다
면 과연 이럴수가 있을까?

무언가 로인에게 얼리운것만 같은 섬섬함이 가슴
한귀를 떠들추며 머리를 쳐드는것을 어찌할수가
없었다.

《왜 나왔나?》

《아바인 왜 나오셨습니까? 전번 제가 나오자고
할 땐 그렇게도 완강하게 막으시더니... 아바인 정
말 너무하십니다.》

형도가 불부는 어조로 들이댔다.

《허 그때하군 경우가 좀 다르지. 떠날 때만 해도
비행긴 뜨지 않았으니...》

《어제 낮에도 아바이가 그물문을 막았지요?》

《하늘이 조용하니 얼핏 나왔다 들어갔네.》

분했다. 그것도 모르고 혼자서만 속을 썩인 일을
생각하니 여간만 심사가 꼬이질 않았다.

어제 오늘에 걸쳐 자기를 절입탱크 만드는 일에
동원시킨것도 다 무슨 조간이 있어서 한 일이라고
생각되기도 하였다. 하지만 그는 이 이상 더 팍로인
과 맞서나설 근거를 찾을수가 없었다. 실상 그의 요
구는 정당한것이였고 그의 말없는 이런 행동역시
자기와는 경우가 다른것이였다.

그런데다 팍로인자신은 아직 자기가 무엇때문에
이토록 가슴속에 불덩이를 안고 몸부림친다는것을
모르고있지 않는가? 팍로인도 자기 가슴속에 맺혀
있는 그 사연을 알기만 한다면 결코 자기의 행동을
단순히 짧은 혈기에서 나오는 모험심이라든가 경
술성만으로는 치부하지 않을것이다.

《아바이!》

어딘가 흥분이 어린 목소리로 형도가 불렀다.

팍로인은 그의 열기띤 얼굴을 새삼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았다.

《전 이제라도 군대에 나가겠어요.》

《아니 갑자기 그건 무슨 소린가?》

팍로인이 눈을 치뜨며 물었다.

《아직 채 완쾌도 되지 못한 그 몸으로 군대에 나
가다니?... 이 사람, 꼭 군대만이 맛이겠나? 아무데
서건 자기 말은 일만 잘하면 될게 아니겠나? 그것
두 다 전쟁승리에 기여하는 일인데...》

《아바이두 꼭 군사동원부사람들처럼 말씀하시는
구만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아바이마저 저의 심정
을 몰라주시니... 정말...》

형도의 말은 북받쳐오르는 격정으로 하여 토막토
막 끊기였다.

《보아하니 임자의 가슴속에 무언가 아픈 사연이
있는것 같은데 그러지 일구 임자 그제 무언지 어디

속시원히 한번 이야길해보라구.》

팍로인을 한참 바라보던 형도는 힘들게 입을 열었다.

《제가 이리로 오기 얼마전의 일입니다. 당시 산에서 싸우던 인민유격대와 편계를 가지고있던 우리 어로공청년 몇은 그만 놈들에게 붙잡혀 사형장으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우리 마을 쪽에 습격전투를 나왔던 인민군대의 한 구분대가 우릴 구원해주었는데 우릴 안전한곳으로 안내해줄 임무를 맡고 떨어졌던 그중의 한 대원이 그만 추격해오는 놈들의 탄환에 맞아 숨이 지게 되었습니다. 그는 나의 무릎에 안겨 눈을 감으면서 자기도 어로공출신인데 전승의 광장에서 위대한 수령님을 모실 그날을 보지 못하고... 먼저 가는것이 원통하다는 것과 자기 몫까지 싸워줄걸 부탁하고는... 눈을 감았습니다.》

형도는 목이 메여 말을 떠듬거리었다.

짜-파도가 밀려왔다. 머리를 휘저으며 금시 뒤엎어질듯이 몸부림을 쳤다. 허연비말이 길길이 튀어 오르면서 배전을 두드렸다.

《음-》

순간 팍로인의 입에서는 신음소리비슷한 웅글진 소리가 새어나왔다.

그렇다면 형도는 다른 사람 아닌 바로 동철이한테서 구원받은 그 애국청년들중의 한사람이란말인가!

팍로인은 너무나도 놀라운 이 사실앞에서 한동안 제정신을 출수가 없었다.

참말이지 세상에 우연이 있다면 이보다도 더 큰 우연이 또 어디에 있으랴?

그는 열기띤 눈으로 형도의 상기된 얼굴을 바라보았다.

형도는 자기 이야기를 계속했다.

《그후 마을이 해방되자 구원받은 우리 동무들은 모두 의용군으로 입대하였으나 결국 저만은 공교롭게도 고문받을 때 상한 다리의 상처때문에 그 썸에 들지 못하고 이리로 오고말았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고 전사한 그 동무의 부모들이라도 만나보았으면 원이 없겠는데... 아버지가 저의 심정을 헤아려보셨다면 정말...》

팍로인은 갑자기 코허리가 찡하고 가슴이 미여지는듯해서 얼른 머리를 돌리었다.

형도의 그런 마음이 고맙게 생각되었다.

팍로인은 이 순간 아들로 하여 생겨났던 그 마음의 공허감이 스스로 메꾸어지는듯한 감을 새삼스러이 느끼었다.

《원췌를 잡겠다는 그 마음은 좋은거네. 응당 그래야지. 하나 그렇다고 해서 너무 성급하게 자기의 욕망을 앞세워서는 안되네.》

무게있게 울리는 팍로인의 이 말은 실상 형도에게 이르는 말이라기보다는 자기자신에게 하는 말이기도 하였다.

날이 감에 따라 놈들의 발악은 더욱 우심해졌다. 어떤 수단을 써서든지 물고기잡일 방해해보려고 갖은 모략을 다하였다.

이에 대처하여 어로공들에게도 무기와 수류탄들이 나누어졌으며 임의의 시각에 적들과 맞붙어 싸울수 있는 만단한 전투준비태세가 갖추어졌다.

그러던 어느날 밤이었다. 정치망어장으로 고기건지러 나가는 그들앞에 뜻하지 않던 장애거리가 생기었다.

웬 자그마한 발동선 하나가 길목을 막고 서서 경기관총사격을 퍼부어대고있는것이였다. 적함에서 파견한 특공대놈들 같았다.

어로공들은 몇자루 되지 않는 보총과 《파바리》로 대응사격을 하였다. 하나 파도가 심하여 배가 흔들리는 통에 좀처럼 묘준이 되지 않았다. 적의 경기관총탄환역시 머리우로 스쳐지나갈뿐 시종 헛방이였다. 배와 배의 거리는 점점 가까와졌다. 눈으로도 서로 상대방의 움직임을 가려볼수 있을 정도였다.

놈들은 얼마간 뺨대고 사격을 계속해대더니 더는 견뎌배기지 못하고 달아뺄 잡도리를 하였다.

그런데 이때였다. 바다에서는 전혀 예상치 않던 뜻밖의 일이 일어났다. 적의 발동선 한가운데서 《팡!》하는 반땅크수류탄 터지는 굉장한 폭음과 함께 병곳 불기둥이 솟아오르더니 뒤이어 배가 모로 기울며 물속으로 잠겨들기 시작한것이다.

너무나도 돌발적인 일에 모두들 어난들이 빙빙해져서 서로의 얼굴들만을 쳐다볼뿐이였다.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저 수류탄은 어디서 날아왔으며 저걸 집어던진 사람은 과연 누구인가? 배에서 수류탄을 집어던지기에는 너무나도 먼거리였다.

문득 그 어떤 예감에 사로잡힌 팍로인은 사람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더듬었다.

미상불 자기의 예감이 옳았다. 형도가 보이지 않았다. 배에 하나밖에 없는 반땅크수류탄도 없어졌다.

팍로인은 가슴이 철렁했다. 이게 무슨 모험이람?!

《배머리를 돌리게, 형도를 찾아야겠네.》

여느때없이 허둥거리는 팍로인의 말에 사람들은 아연했다. 그제서야 형도가 보이지 않는다는것을

알아챈것이다.

그들은 급히 노를 저었다.

벌써 적의 배는 반나마 물속에 잠겨들고있었다.

때마침 이쪽을 향해 헤엄쳐오는 형도의 모습이 보이였다. 사람들은 물참봉이 되어버린 그를 배전으로 끌어올리였다. 그의 물이 줄줄 흐르는 얼굴에는 장한 일을 해제긴 사람들의 얼굴에서만 볼수 있는 만족한 미소가 흐르고있었다.

박로인은 그 얼굴을 보지 않으려고 슬그머니 외면을 해버리였다.

《동무. 팬찮아, 대답해! 하지만 그건 위험한 장난이란말이야. 적들에게 발견되면 어쩔려구 그래?》

어로공 김동무가 감탄과 질책이 어린 어조로 하는 말이였다.

《췌, 발견되나? 우리 동무들의 몰사격에 맞총질은 하면서도 이미 절반 혼은 빠진 놈들이라 눈에 대고 주먹질을 해도 모를 형편이던데...》

형도의 소탈한 말에 배에서는 일시에 폭소가 터졌다.

그들은 정치망어장을 향해 다시 배머리를 돌리였다.

얼마후 박로인이 형도에게로 다가갔다. 그의 얼굴은 돌처럼 굳어져있었다.

《그래 임자 생각엔 어떤가? 방금 임자가 한 일을 장하다고 생각하나?》

비록 조용하게 묻는 말이였으나 형도는 어쩐지 그 말과 태도에서 폭풍전야와도 같은 어마어마한 기분을 느끼였다.

《뭘, 별루 잘못된거야 없지 않습니까?》

《뫼이? 잘못된게 없다구?》

부지중 박로인의 두눈이 노기를 담고 번뜩였다.

형도는 깜짝 놀라 로인의 험악해진 얼굴을 바라보았다.

《임잔 그 머리통을 고쳐야 해... 싸움을 하자면 물론 자기 한몸을 희생시키지 않으면 안되는 그런 딱한 경우도 있어. 그뎨 물론 제 몸을 내대야지. 하나 아깐 경우가 다르지 않는가? 임잔 다쳤던 다리도 다 나았으니 인젠 소원대로 군대에도 나가야 할 몸이 이닌가? 그건 그 사람의 원썬을 갚는 행동인 것이 아니라 되려 미군놈을 돕는 행위란말이야. 알겠나?》

이렇게 웨치는 박로인의 눈엔 물기마저 어리어 번뜩였다.

이 순간 형도는 어쩐지 반발심보다는 가슴이 뭉클해나는것을 어찌할수가 없었다.

그는 로인의 그 말속에서 단순히 모험을 삼가하

라는 의미만이 아닌 자기에 대한 사랑의 감정을 뜨겁게 느낄수가 있었다.

형도는 저도모르게 머리를 푹 떨구었다.

정치망어장에 가서 고기를 퍼가지고 다시 돌아선 그들이 포구에 와닿은것은 밤이 퍼그나 깊어서였다.

어장휴계실로 발걸음을 옮겨놓고있는 박로인에게로 형도가 다가왔다. 얼마전 박로인에게서 받은 그 준절한 꾸짖음은 벌써 까맣게 잊어버리기라도 한듯 싱글거리며 이런 엉뚱한 제기를 하는것이였다.

《아바이, 아까 같았은 그 발동선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발동길 떼내오는것이 어떨가요? 그걸 수리해서 사돌배에 설치하면 그물문 막는 시간을 훨씬 단축할수 있을것 같은데...》

넌지시 이따위 수작을 붙이는 형도의 그 반죽좋은 태도에 박로인은 허덕 웃음이 치미는것을 어찌할수가 없었다.

(망할녀석, 그러니 썰먹구 알까지 먹자는 수작이로군! ... 아무려나 저게 나긴 난 녀석이야... 어떻게든 팬찮은 생각이로군!)

하나 그는 일체 그런 내색은 내지 않았다.

《그건 좀 생각해봐야겠네. 설혹 떼내온다 해도 임자에겐 말길수가 없어.》

사뭇 무뚝뚝한 어조로 자르듯이 박로인이 말했다.

《네?... 에익 참 아바이두.》

형도는 입이 쏜지 이렇게 뇌까리고는 퍼렇게 성이 나서 돌아섰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 그는 아무래도 이 일이 가슴에 걸려 내려가지 않는 모양인지 또다시 박로인을 찾아왔다.

《생각해보셨겠지요? 저두 생각해봤는데 그 일을 저에게 맡길수 없다는데 대해서는 좀 의견이 있습니다. 아무리 잘못을 저질렀다 하더라도 그거야 그래도 제손으로 까부신건데 기왕이면 저에게 맡기는 것이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아바이 너무 그러시지 말구요 잠수복을 가지구 지금 당장 저와 함께 바다로 나갑시다.》

박로인은 이 능청스런 떼군에게 단단히 걸렸다 생각하며 다시 한번 엄포를 놓았다.

《안되네. 설사 내가 양보를 해서 임자를 데리고 나간다 하더라도 대낮에 바다에 나가 어물거리는건 재미 적어. 나가두 저물녘에 나가야지.》

《참 아바이두 아바이자신은 남몰래 우리들을 대신하여 그물문 막으려만 다니시면서두... 너무 그러시지 말구 지금 나갑시다. 실상 잠수일이야 날이 저물면 못하지 않습니까?》

박로인은 더 군소리 말라는듯 입을 꼭 닫아맨채

그대로 발길을 돌리었다.

그는 그길로 창고에 들어가 아들이 입고 일하던 잠수복과 잠수모를 들어내왔다.

《가세!》

박로인의 이런 돌발적인 태도에 형도는 그저 얼름해서 두눈만을 둥그리며 서있을뿐이었다.

《보긴? 어서 가자는데두.》

《아니 그럼?!...》

그제서야 영문을 알아차린 형도가 와락 잠수복을 건어안으며 환성을 올리었다.

얼마후 그들은 수동뿔프장치를 한 잠수사돌선을 타고 바다로 나갔다. 바다는 조용했다. 맑고 깨끗한 아침해별이 바다위에 눈부신 빛을 뿌리었다. 그 빛을 떠인 긴 멀기들이 늑실늑실 밀려와서는 어깨로 배를 떠밀어올리고 스크르 배밑을 빠져달아났다.

그들은 일차비를 서둘렀다. 박로인은 형도에게 잠수복을 입혀주었다. 그가 여간만 대견스럽지 않다. 어쩐지 아들이 살아서 돌아온것만 같은 착각이 일기도 했다.

어느덧 옷을 다 입은 형도에게 박로인이 한마디 일렀다.

《신호대로 움직여야겠네. 너무 오래 있을 생각일랑 말구 힘들면 인츰 교대하거루 하세.》

우리가 달린 모자의 나사가 다 죄여지자 형도는 사다리를 타고 내려가 곧 물속으로 사라졌다. 얼마간 바다우에는 부글부글 수포가 피어오르더니 그나마도 이어 없어지고말았다.

박로인은 두개의 국수분들처럼 생긴 수동뿔프를 천천히 저었다. 치쿵치쿵하는 뿔프소리가 잔잔한 수면위로 조용히 퍼져나갔다. 박로인은 한손으로 수동뿔프를 저으며 한손으로는 신호통을 잡고 물었다.

《형도, 이 사람, 배가 보이냐?》

잠시후 대답이 올라왔다.

《네 보입니다.》

《그럼 발동기가 꽤 씹직한지 한번 알아보게. 아예 못쓰게 돼버렸으면 그냥 팽개치구 올라오라구.》

《네. 알겠습니다.》

얼마후 박로인이 다시 물었다.

《어떤가? 꽤 쓸만한가?》

《상하긴 했지만 고치면 꽤 써낼것 같습니다. 곧 분해에 들어가겠습니다.》

《됐네, 그럼 덤비지 말구 침착하게 뜯어내게.》

박로인은 형도의 작업모습을 눈앞에 그려보며 뿔프손잡이를 천천히 놀리었다.

얼마나 지났을까? ... 갑자기 어디선가 북을 두드리는것 같은 둔중한 폭음이 울려왔다. 가슴이 서늘해난 그는 저도모르게 그 소리가 나는 쪽으로 머리를 돌리었다. 그가 우려하던것이 종내 오고야말았다. 세대의 적기 편대가 바다위로 낮추 떠서 이권을 향해 날아들고있었다. 적의 《그라망》이었다. 그중 한놈이 대렬에서 떨어지더니 박로인의 머리우에서 원을 그리었다. 푸른 바다우에 홀로 떠있는 잠수사돌선을 발견한것이였다. 놈은 배를 향해 기수를 숙이였다. 따르록... 기총소사를 하며 스킬듯이 획-머리위로 날아지나갔다.

순간 박로인은 허벅다리에 쇠몽둥이로 후려갈기는듯한 강한 타격을 받았다. 그는 그 자리에 무너지듯 풀썩 주저앉았다.

정신이 아찔해났다. 대뜸 바지가랭이로 피가 내배고 갑판우에도 얼룩이 지기 시작하였다.

하나 그는 그런 경황속에서도 뿔프손잡이만은 손에서 놓지 않았다. 아니 놓을수가 없었다.

하긴 옷자락을 찢어 허벅다리아래를 지혈시키면 흐르는 피를 멈춰세울수 있었다. 그러면 자기 하나는 무사할수가 있을것이였다. 그러나 그럴려면 뿔프손잡이를 놓아야 할것이고 놓게 되면 물속에 들어간 형도는 숨이 막혀 질식해버리고말것이다. 늑은 자기의 목숨 하나가 아가와 아들과 같은, 자기 아들이 목숨으로 구원해준 저 끝날같은 형도를 희생시킬수는 없는 일이었다. 치쿵치쿵... 그저 아무일도 없은듯 단조롭게 울리는 뿔프소리만이 잔잔한 수면위로 조용히 퍼져나갈뿐이었다.

박로인은 어쩐지 자꾸만 눈앞이 흐려났다. 고통과 혼미해지는 의식때문에 그의 몸은 부지불식간에 비칠거리었다.

하늘에서는 여전히 적기가 딱장벌레처럼 붕붕대며 돌아치고있었다.

(쓰러지지 말아야 할텐데... 의식을 잃으면 어떻게 한다? ... 형돌 불러야 하지 않을까?)

이때 적기가 곤두박질하듯 대가리를 숙이더니 또 다시 기총소사를 하며 지나갔다. 배주변에 와서 뽀얀 물보라를 일으키며 팍팍 탄환이 들이박히였다.

(불러서는 안되지. 올라왔다간 이 복새판에 그가지 잘못될수가 있어. 나 하나만 고통을 이겨내면 될텐데...)

그는 아픔때문에 움찔거려지는 자신이 미워났으며 자칫 잘못하면 뿔프손잡이를 놓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는 팔대신 온몸으로 손잡이를 눌렀다. 그리고는 허리를 폈다 구부렸다 하며 뿔프질을 계속했다.

몸을 움직일 때마다 몸부림이라도 치듯 찌그덕대며 배마저 함께 기우뚱거리었다.

적기들이 꼬리를 사린뒤에도 팍로인은 흐릿해지는 의식을 가까스로 가다듬어가며 여전히 한본새로 치쿵치쿵 뿔프질을 계속해댔다.

그는 형도가 물박으로 나온것도, 발동기를 끄집어내온것도 미처 몰랐다. 그저 기계적으로 지긋게 하나의 동작만을 반복하고있을뿐이었다.

갑판으로 올라선 형도는 두눈을 둥그런채 목석처럼 그 자리에 굳어졌다.

온몸으로 덮치듯 뿔프손잡이를 그러안은채 간신히 몸을 돌려 뿔프질을 계속하고있는 로인의 모습이 그 어떤 영웅의 조각상처럼 숭고하게 안겨왔다.

피기가신 핏색한 얼굴, 피투성이 된 다리-형도는 설명없이도 이 바다우에서 어떤 사태가 벌어졌다는것을 한눈에 짐작할수가 있었다.

그는 저 로인이 무엇때문에 저토록 자기 희생을 무릅쓰면서까지 뿔프질을 계속하는가를, 그리고 무엇때문에 자기를 호출하지 않았던가를 알았다.

순간 그의 가슴속에서는 불덩어리같은것이 육하니 치밀어오르고 눈앞이 휘뿌애났다. 아, 로인의 말대로 저녁편에만 나왔어도 이런 일은 없었을걸...

형도의 가슴은 미어지듯 아파났다. 무거운 회오의 감정에 휩싸인 그는 급히 로인에게로 다가가 뿔프손잡이를 틀어잡았다. 팍로인은 그체서야 인기척을 느낀듯 일손을 멈추고 조용히 머리를 추켜들었다. 개가 풀린 눈을 들어 형도를 바라보는 그의 땀흐르는 이지러진 얼굴에 한가닥 안도의 빛이 떠올랐다. 그는 어딘가 애정이 비긴 눈으로 형도의 몸을 어루만지더니 갈증으로 터갈라진 입술을 떨며 조용히 중얼거리듯 말하는것이였다.

《이 사람 형도, 잠수복 입고 물속에서 나온 임잘 보니 어쩐지 죽은 아들생각이 나네그려.》

《네? 죽은 아들이라니요?》

형도는 두눈을 홑뜯채 놀란 목소리로 반문했다. 군대에 나간 아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도 그가 죽었다는 말은 금시 초문이었었던것이다.

《우리 애두 잠수부였지.》

팍로인은 숨을 토틀아올리듯 잠시 말을 끊었다가 다시 이었다.

《임자두 인젠 몸이 완쾌되었으니... 소원대루 군대에 나가게. 그래서 위대한 수령님께 다하지 못한 내아들의 몫까지 싸워주게.》

그리고는 맥없이 그 자리에 쓰러진채 의식을 잃었다.

순간 형도의 가슴 한가운데로는 뜨겁고도 쓰린 물결이 밀물처럼 거슬러오르고 역바우같은 사나이인 그의 두눈에선 툭툭떨어지는 주먹같은 눈물방울이

떨어져내리었다.

아! 저런 모진 상처를 가슴에 안고서도 털끝만한 내색 한번 내지 않다니? 그런줄은 모르고 오히려 로인의 그 아픈 상처에 소금을 끼얹었으니?...

형도의 가슴은 찢어지는듯했다. 몸부림을 쳐서라도 이 애라는 가슴을 풀어던지고싶었다. 그는 로인에게로 다가갔다. 가슴속에서 끓어오르는 격정을 더는 이길수가 없어 와락 그의 품에 얼굴을 묻었다. 그리고는 목멘 어조로 부르짖었다.

《아바이!》

그의 어깨는 세차게 들먹거리었다.

그로부터 얼마후 기암산기슭의 도래굴이에 세사람이 어깨를 가지런히 하고 서있었다. 지평이를 짙은 팍로인과 형도, 옥단이들이었다.

팍로인은 2년전 아들을 바래주던 이곳에서 오늘은 전선으로 떠나는 형도를 또다시 바래우게 된것이다.

《후방은 넘려말구 가서 잘 싸워주게. 임자에겐 역시 여기보다 전쟁판이 더 어울릴거네. 편지랑 자주 하게. 그리구 전쟁이 끝나거든...이리로 다시오게. 물고기를 같이 잡자구.》

팍로인의 부탁의 말이였다.

《고맙습니다. 아바이, 승리한후에... 꼭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때까지 부디...몸성히 계십시오.》

이렇게 대답하는 형도의 목소리는 갈려있었다.

옥단이 형도에게로 조용히 다가가더니 배낭뒤주머니에 무언가 집어넣어주었다.

그러는 그의 두볼에 살짝 홍조가 비끼였다.

형도는 돌아섰다. 씩씩한 걸음걸이로 걸어갔다.

그는 걸으면서 혼자속으로 생각하는것이였다.

...우리는 이 전쟁에서 귀중한 사람들을 많이 잃었다. 혁명전우들과 혈육들,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웃들을... 과연 조선사람들치고 슬픔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으랴!

하나 저 팍로인과 같이 자기자신의 아픔을 가슴속 깊은곳에 묻어두고 오로지 목숨보다도 더 귀중한 조국의 운명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것을 다 바치는 우리 인민이기에 우리는 이 전쟁에서 그토록 거대한 승리를 이룩해가고있는것이 아니냐고...

어느덧 마지막 굽인돌이에까지 온 형도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보았다. 그때까지도 두사람은 발에 뿌리라도 내린듯 그냥 그 자리에 서있었다.

형도는 손을 저었다. 팍로인과 옥단이도 손을 높이 들어 오래오래 흔들어주었다.

승리를 기약하며 헤어지는 사람들의 뜨거운 마음을 깊숙이 담아실은 검푸른 바다가 조용히 술렁이였다.

사랑을 다해 (외 1 편)

리종섭

분가루같은 벼꽃이 온몸에 배여선가
노을이 물든 보물에 얼굴 씻군해선가
복스럽게 한창 피어나는 농산반치녀
제초기를 몰아 하루해를 떠밀어보내더니
달이 좋은 이 밤 어디로 가는것인가

회관창문엔 텔레비존 파란 빛이 어리고
어디선가 둥기당당 가야금도 울리건만
개구리가 놀라뛰는 논뚝길을 따라
머리수건 날리며 바빠 걷는 처녀
주머니엔 달빛 맺힌 온도계가 반짝!

꽃나이 스물여섯 나이 찬 시절
그 누구와도 속삭여도 탓하지 않으련만
아는지 모르는지...
차마 만나보지 않고선 못견디어
이 밤도 찾아가네 벼포기 벼포기들을...

옥금이는 어쩔 일밖에 모를가...
아낙네들 미워않는 그 말속에서도
수집계 웃으며 농사에만 정을 붙였으니
한랭전선이 몰아오는 아무리 큰 가물도
생명수로 다 적시자고 판 우물은 그 얼마?
모살이를 돌보며 지낸 밤은 또 얼마?

가없는 논벌에 수억만의 포기포기
어버이수령님께서 죄다 넘려하신다고

땅도 물도 주체농법대로만 다루며
아기처럼 벼를 알뜰히 키우는 처녀
어느 모서리에 숨어선 벼포기도
낮이 익어 정겨이 쓰다듬고야 지나네

주절대는 물고도 사뿐히 건너뛰고
이 배미 저 배미 물온도를 재여보며
물이 차면 벼들이 감기라도 들킬라...
아 살뜰한 그 정성 그 사랑이 깃들어
포기마다 이삭패고 꽃이 핀다네

이제 덩실 벼가마니 높이 쌓아
하늘이 건듯 들리는 가을이 오면
올해도 만풍년! 어버이수령님께서 기뻐하시리
충성의 선물을 마련한 그 마당에서
처녀는 수집어 아니하고 춤을 추리라

아, 젊음을 바쳐 충성을 다해 얻자는 행복
얻자는 행복이 이 하나뿐이나니
허리치는 벼바다 한복판에 잠겨서서
무궁한 행복속에 폭 빠진듯
너무 좋아 머리 드니 달이 먼저 웃는가

하늘도 땅도 마주 웃는 밤
처녀는 농장벌에 소문없이 나와있어도
얼굴도 일숨씨도 다 함께 고운
너를 다 보라고 은빛을 드리우며
둥근달도 중천에 멈춰섰구나

아바이전사

이 하늘은 누구들이 이고사는 하늘인데
저 바다 건너 미국놈들이 날치는거나
어제는 재너머 학교에 불을 지르더니
오늘은 문전옥답에도 폭탄을 퍼붓는구나

여보 내대신 보탑을 잡소
하늘이 타고 땅이 타오!
소를 몰아 밭갈이도 중하지만
회초리만 들고있을 때가 아니요

한뼉 땅을 두졌어도 제 흙한줌 못쥐여본
우리 머슴들에게 장군님께서 주신 땅
해마다 땀으로 갈구어 복을 안아내던 논밭을
피를 물고 물어뜯는 저 폭탄소리
가슴에 분통이 터져 못참겠소

억울할 때 죄없는 땅만 치던
머슴군 돌쇠는 이 세상에서 없어지고
땅의 주인, 나라의 주인인 이 덕삼이
어버이장군님의 품에서 새로 태어났으니
마땅히 주인구실을 해야 하지 않겠소

내 비록 마흔고개를 내다보지만
원쑤치는 일에 나이가 무슨 상관이겠소
장군님께서 찾아주신 땅을 불속에서 건져내야 할

나도 나라의 한 아들임에는 다를 배 없소

여보, 걱정일랑 아예 마오
황지주님을 걸이대로 패던 이 손이 있고
풍년을 가꾸며 십년은 더 젊어진
그 힘이면 그간놈들 제낄수 있소

우리함께 이십년 모진 세월을
피땀에 젖어 헤쳐나오지 않았소
다시는 쓰디쓴 종살이 하지 않기 위해
장군님을 위하고 나라를 지키는 일에
내 불속인들, 물속인들 마다하겠소

자, 여보 내대신 후방을 맡아주오
나는 땅을 갈기전에 원쑤를 갈아엎고
가을을 기다려 난알을 털기전에
원쑤를 이 땅에서 다 털어버리고서야
공세운 병사로 집으로 돌아오겠소

어디 겨뤄보자, 이 원쑤 미제승냥이놈들아
네놈들의 검은 속통을 내사 다 안다
우리를 먹자고 벌린 피아가리에
삼태기로 총알을 퍼먹일
범바위꼴 이 덕삼이도 총을 들고 나간다!

위대한 태양의 빛발아래

조현동

저 멀리 북녘하늘에서
별들이 흘러내린다
깊어가는 지하아지트의 밤
로동계급의 전위들이 엄숙히 손들어
나의 입당을 보증하고있다

욕된 세월의 사슬을 끊며
피로운 사색과 번민 속에
반백이 넘도록 살아온 이 몸,
아, 목숨보다 귀중한 정치적생명을 지니고
이 세상에 두번 다시 태어나거니

남조선혁명을 줄기차게 이끌어가는
피끓는 심장, 불사의 녀들이
하나의 맥박으로 고동치고 숨쉬는 여기서,
오늘의 이 영광, 이 행복으로
나를 키워 이끌어준 혁명조직앞에서
내 이제 무슨 말을 해야 하는가

되돌아와... 되돌아와...
굽이쳐흐르는 세월의 물결이여!
지난날의 그 모든 이야기 다 할수는 없어도
위대한 태양의 빛발아래 깨우친
생활의 진리, 투쟁의 진리만은 말하고싶어
내 이 시각 동지들앞에 기쁜 눈물 흘리며
입당의 맹세로 이 노래를 부른다.

1

나는 굳이 믿었다, 일찌기 짧은 시절,
오로지 삶의 목적, 삶의 보람은
과학의 진리를 탐구하는 길에 있다고-
지평선 멀리에 비낀 무지개인양
저녁녘 교묘속에 들려오는 음악소리인양
한없이 신비로와... 그래서 더더욱 귀중한 그
무엇인양
희망의 꿈 살쫂이 가슴속에 자리잡았나니,

나는 맹세했다, 일생을 학문에 바치겠노라고-
벼랑턱우에서 나래펼치고
구름과 태양을 향해 솟구치는 산매처럼
탐구의 언덕으로 치달아오를제,
지곳은 나의 자존심과 세찬 열정은
번개와 우뢰를 휘잡아 길들일것 같았고
하늘의 별들도 따올듯만싶었다.

아, 분방한 공상으로 잠못이루던 밤이여
심오한 지식에 대한 갈망으로 가슴 불태우며
아낌없이 노력을 쏟아붓던 나날이여
끓으며, 설레이며, 안타까이
희망의 종적을 찾아 헤매였던만
인간의 지혜와 양심이 돈에 팔리고
인간의 권리와 존엄이 여지없이 짓밟히는
죄악으로 가득찬 남조선에서
내 운명은 어데로 흘러갔던가,

내 생활은 갈갈이 찢겼노라! 피흘렸노라!
눈길을 돌리는곳 그 어데나
사대와 굴종의 느낌을 흘리며
반동사상의 메가폰을 불어대는 어용학자들,
세상 버린 도사의 녀두리를 읊조리며
《자아의 동굴》에서 푸덕거리는 박쥐무리들,
위선에 물젖은 언행, 변덕스러운 심리들,
표독스런 눈빛, 사나운 이발들-

날이 가고 세월이 흐를수록
더럽고 악취 풍기는 탁류속에서
슬기롭던 젊은 예지는 무디어지고
인생의 보람도 행복도 간직하지 못한 가슴
원한의 열물에 젖어들었다.
머리는 무겁고 생각은 구슬퍼...
기쁜 날, 환희로운 순간도 없이
마음속에 즐거움을 주는것 하나도 없이
고통스러운 체험의 불안속에서

고뇌의 주름살만 얼굴에 깊어갔다...

순결한 량심을 지녔던 탓에,
보호받지 못한 정직성을 지녔던 탓에
나의 꿈, 나의 지향, 나의 노력은
행복한 사회의 멸시와 비웃음만을 받았나니
오, 밤의 아수라-질감스러운 어둠이여, 밀창 없는
어지러움이여

사람이란 모욕과 고통을 받기 위해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인가?

과학의 진리는 어디에 있는가?
삶의 목적은 어디서 찾아야 하는가?
불맞은 새처럼 몸부림쳤노라
가슴 밑바닥에선 오열이 터져올랐노라

속임받은 정열, 상처입은 나의 벗은
칼벼랑처럼 머리를 추켜들고
그 무엇인가 격랑찬 변동을 열망했건만
아아, 신념 없고 해빛 없는 이 가슴엔
거친 물결만이 세차게 울부짖었노라!...

2

동지들이여, 용서하라
이렇게 흘러간 세월-
혼가의 정신적 위기에 머리가 회고
혼자의 슬픔과 피로움에 몸부림치면서도
외세에 얽매인 남녘의 수난과
파쑈의 칼날에 찌혀 신음하는 겨레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살아온 나를 용서하라.

찬비내리는 서울의 포도우에서
동냥을 빌고 선 고아들의 손에
동전 몇알을 쥐여줄수는 있었어도
그들의 여윈 얼굴, 텅빈 가슴에
웃음과 미래를 안겨주지 못할 때
값싼 그 동정, 부끄러운 그 자선이
버림받은 생명들에 대한 모욕이 아니었던단말인가.

기울어져가는 판자집에서, 토굴에서, 다리밑에서

생존의 권리를 거부당한채
고역과 주림에 지쳐 쓰러진 민생을 두고,
인민의 피기름우에 솟은 고루대각에서
신음소리, 통곡소리 음악삼아 들으며
환락의 향연을 베푸는 흡혈귀들을 두고
《부익부 빈익빈》의 부조리와 죄악상을
날날이 해부하지 못한 나의 허약한 리성을
내 이제 무슨 말로 변명할수 있단말인가.

용서하라 오, 동지들이여 나를 용서하라!
끊어진 강토, 갈라진 겨레,
이 땅을 짓누르는 미제침략자들의 구두발소리
오열하는 이 민족상을
피치못할 숙명으로 생각한적도 있었노라
민주주의 근본정신과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안고
내 민족, 내 겨레를 구원할 맹세를 품고
또다시 4월의 광장에 펼쳐나선 청년학도들이
피의 폭풍으로 강산을 흔들며
《청와대》로 육박하던 그 날에조차
장엄한 항쟁에 내 발걸음을 합치지 못했노라,

애국의 붉은 혈조가 역사를 물들이던 그때
방관의 언덕에서 스스로가 민족정신을 모독했거니
나의 몸을 감싸흐르는 피- 그 피가
반역아의 검은 피를 물려받은것은 아니었던만
무엇때문에, 무엇을 바랬기에
동요와 망설임의 질은 그늘밑에서
비겁한 달팽이의 치욕스런 락인을
내 얼굴에, 내 이름에 찍었더란말인가!

부끄럽다, 헛되이 흘러간 청춘시절이여
저주롭다, 한숨쉬며 고민해온 지난날의 모든것이여
죽음보다 무서운 교훈을
내 이미 깨달은지는 오래다
허나 항시 심장의 터지는 아픔을 지니고있다
자책의 예리한 칼날이
지난 생활의 씻을수 없는 오점들을
사정없이 이 가슴에서 도려내고있기에...

3

살아서 삶이 아니었다
자유와 권리가 없을진대
목숨은 있어도 죽은 몸이었다
자주와 창조의 숨결이 없을진대
해묵은 마음의 상처를
남앞에 벌겋게 드러내놓기 저어하면서
입술을 깨물며 침묵을 지키고있을 때
동지들이여, 그대들은
내 집문을 두드리며 찾아왔었다

우리들은 말없이 한동안 서있었다
우리 서로 방안에 마주앉았을 때
그대들의 목소리 조용히 울렸다
-지성과 량심이
감옥으로 묶여흐르는 남조선에서
순수한 과학을 연구한다는것은 거짓입니다
조국의 운명과 동떨어진 개인의 이상,
이것은 허영이며 자기기만입니다

나는 머리를 떨구고
묵묵히 담배를 빨고있었다
깊은 설음과 울분이
크나큰 죄를 지은듯한 괴로운 감정이
내 가슴을 꽉 사로잡았다

절절하게 울리는 그 말을
나는 준엄한 생각으로 듣고있었다
한마디한마디 놓치지 않고
모두 심장속에 간직하려고
봄비는 창밖에 소리없이 내리고있었다...

잇을 길 없다, 아- 그 밤을 잇을 길 없다
동지들이여, 그대들이 가슴에 소중히 품고 온
민족의 태양 **김일성** 주석님의 로작들을
두손으로 받아안던 그 밤을 잇을 길 없다.

캄캄한 절망의 심연밑에서
희망의 봉우리에 날아오른듯
수령님의 위대한 혁명사상을
밤밝혀 아로새기던 그날부터

슬픔과 고뇌의 질은 안개를 털어버리며
쌓이고쌓인 세월의 더께를 밀어던지며
소생과 전변의 눈석이는 시작되었거니-

낡은 과거가 무너져내리는 장엄한 진동인가
광광- 거센 흐름으로 여울쳐내리는 해빙의 물결,
그 물결우에 솟아오르는 은백색 찬연한 봉우리,
그 봉우리에 잇닿은 하늘가에 터져흐르는
봄우뢰소리...

아, 신념이 없어 해빛이 없어
몸부림치며 흐느끼던 나의 가슴은
태양을 안았노라!
태양을 안았노라!

오, 주체사상의 광휘로운 해발이여!
압제의 멍에에 짓눌렸던 수난자들에게
자주와 창조의 거세찬 숨결을 안겨주고
삶의 아름다움이 압제를 들부시는 폭풍속에 있음을
깨우쳐주며 밝혀주며 심장속에 흘러드는
위대한 사랑의 철학이여!
자유를, 민주를, 조국통일을 절규하며
노도처럼 내닫는 힘, 뿔뿔이 혈맥, 폭풍치는 함성을
하나의 의지로 묶어 투쟁으로 이끄는
우리 시대 혁명의 위대한 기치여!

인간재생의 장쾌함이여, 황홀함이여
맑고 깨끗이 정화된 나의 정신은
혁명의 태양에 초점을 맞추었노라
혁명이여, 혁명이여, 아, 투쟁하는 삶이여
나의 두눈은 환희의 빛을 내뿜었노라
고뇌의 얼음장밑에서 은밀히 타고르던 정열은
폭발의 분화구를 찾아 용암처럼 터져올랐노라

나를 유혹했던 《상아탑》의 무지개와 부질없는
공상,
눈감고 참아온 그 모든것과 깨끗이 결별하고
민족의 태양 **김일성** 주석님께서 밝혀주신
조국통일방침을 따라
미제침략자들을 이 땅에서 몰아내고
우리 힘, 우리 손으로 자주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싸움에,

박정희파쑈교형리의 《유신》 독재를 때려부시고
 남조선혁명을 위한 결전에
 늦으나, 서슴없이 펼쳐나설제
 나는 잃었던 청춘을 다시 찾았노라!
 나는 생활의 진리를 비로소 찾았노라!

4

끝없이 숭엄한 마음으로
 나는 지금 서있다, 정신세계의 절정우에
 어버이수령님의 영상을 우러러
 입당의 맹세를 가슴깊이 새기며
 남녘혁명의 전위적기치,
 통일혁명당대오에 동지들과 함께 서있다

나는 생각한다
 혁명의 사령부를 목숨으로 지켜
 수령님께 충직했던 항일선렬들처럼
 혁명가의 영예를 빛내이며
 우리결을 떠나간 남녘의 투사들이
 최후의 결전장에서 남긴 말은 무엇이었던가
 -우리가 들었던
 주체의 기치를 더 높이 들어달라,
 주체사상으로 싸울 때
 승리는 우리의것이다!

얼어붙은 파쑈의 빙하우에서도
 수령님 계시기에 통일혁명이 이룩될것을
 굳게 믿어 굴함없는 그들이였기에
 살아도 수령님 위해 살고
 죽어도 혁명을 위해 죽는것이
 조선공산주의자들의 신념임을
 온 세상에 소리높이 선언하며
 주체의 해발아래 남녘땅에 펼쳐질
 찬란한 인민의 미래를 안고
 영생의 언덕으로 뿔뿔이 걸어가지 않았던가!

아아, 삶이여, 혁명전사의 숭고한 삶이여
 나도 그 삶의 높이에서 살며 싸우리.
 간고한 시련이 앞을 막아도
 우리의 향도의 리념이며 등대인
 주체의 기치를 높이 들고 나아가리

살아도 죽어도 영광인 혁명의 길에서
 목숨바쳐야 할 준엄한 시각이 온다면
 혁명을 위하여 한목숨 서슴없이 바치리

혁명의 넓은 불길처럼 솟구친다!
 파감한 사색은 폭포처럼 맹렬하다!
 원쑤 섬멸의 증오여, 무자비한 복수여
 민족의 숙원으로 집약된
 조국통일의 성스런 임무를
 우리 세대에 완수하지 못한다면
 우리 어찌 수령님의 전사와 말할수 있으랴.

민주냐, 독재냐?
 삶이냐, 죽음이냐?
 엄숙한 판가름의 이 시각,
 민족사는 거례를 부르고
 겨레는 혁명의 기수들을 피타게 부르나니,

이 땅우에 비낀 《유신》의 먹구름도,
 파쑈폭압과 총칼의 발광도,
 반목과 대결의 장벽도,
 미제를 등에 업고 미쳐날뛰는
 새 전쟁 도발책동과 《반공》소동도
 박차며 짓밟으며
 투지를 한껏 가다듬고
 통일혁명의 성전에 앞장서 나아가리라!
 강토를 안고, 겨레를 안고
 비틀거리는 독재의 아성을 향하여
 반파쑈민주항전의 포화를 퍼부으리라!

아, 천지와 백록담을 잇는 억만가닥의 해살이
 30여년! -긴긴세월 두 동강으로 찢렸던
 이 땅우에 다리를 놓고
 삼천리강토가 그대로 환희의 춤바다되어
 남북상봉의 대축전을 맞이하는 그날,
 눈물에 젖어 기쁨에 젖어
 조국하늘에 터져오르는 통일의 축포를 바라보리라
 통일광장의 단상에 높이 모신
 오매에도 그림던 어버이수령님을 우러러
 남조선혁명승리의 보고를 삼가 드리리라!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다함없는 충성의 마음

-가사 《직포공의 마음》에 대하여-

리유근

가사 《직포공의 마음》은 어버이수령님의 크나 큰 은덕아래 우리 인민이 체험하고있는 행복과 창조적로동의 희열을 높은 사상예술적경지에서 훌륭히 표현하고있는것으로 하여 인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이 가사에는 우리 당의 정책적요구가 민감하게 반영되어있고 우리 인민의 정서와 감정에 맞는 예술적형상수단들을 통하여 인민대중의 사상정신적 념원과 지향이 깊이있게 반영되어있다.

당정책가요 《직포공의 마음》이 인민들속에 그토록 널리 불려지고있는것은 무엇보다도 이 노래의 가사가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직포공들의 다함없는 충성의 마음을 잘 표현했고 그를 통하여 우리 인민들의 절절한 념원과 생활감정을 진실하게 노래했기때문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혁명적인 노래를 창작하는데서 가사를 잘 쓰는것이 중요합니다. 가사를 내용있게 잘 써야 합니다.》

《가사는 시적이면서도 정치적내용이 풍부하여야 합니다.》

좋은 가사는 좋은 음악을 낳을수 있는 바탕이며 선결조건으로 된다.

혁명적인 좋은 노래의 바탕으로 될수 있는 잘된 가사란 정치적내용과 생활이 풍부하게 담겨있을뿐 아니라 그것이 시적으로 표현되어있어야 한다.

가사의 정치적내용을 풍부하게 보장하려면 시대의 정신을 민감하게 반영해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의 두리에 굳게 뭉쳐 3대혁명의 붉은 기치밑에 속도전의 혁명적열풍을 일으키면서 조국통일과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높은 령마루를 향하여 노도처럼 진군하는것- 이것이 오늘 우리 인민의 전투적기상이며 시대정신이다. 가사가 시적으로 된다는것은 바로 이러한 벽찬 시대정신을 뜨겁게

체험하고 거기서 종자를 찾아내며 그것을 예술적으로 잘 가공한다는것을 의미하는것이다.

이러한 현실적요구를 옹계 반영하고있는 가사 《직포공의 마음》에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마련하여주신 사회주의락원에서 보람찬 창조적로동으로 조국의 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수놓아가는 직포공- 우리 인민의 충성의 념원이 깊이있게 아로새겨져있다.

어버이수령님께 바치는 불타는 충성심이 아름다운 비단천우에 꽃으로 피어나고 어버이수령님의 높이신 뜻을 받들어가는 그 길우에서 조국의 아름다움은 더욱 빛을 뿌릴수 있다는것이 바로 가사가 담고있는 사상적알맹이이다.

시인은 이 종자를 객관적립장에서가 아니라 직접 노동하는 직포공들자신의 심정으로 꽃피움으로써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충성심을 우리 시대 인간들이 지닌 가장 아름답고 숭고한 리념으로 것처럼 감명 깊게 표현할수 있었으며 그 충성의 열도가 낳은 모든 지향과 념원, 고귀한 창조적결실들에 대하여 그 령듯 격조높이 노래할수 있었던것이다.

필필이 아름다운 비단천우에
직포공 우리 정성 곱게 피였네
천만송이 목란꽃 가슴속에 피워
충성의 우리 마음 수를 놓았네
아 충성의 우리 마음 수를 놓았네

보는바와 같이 가사의 제1절에서는 가슴속에 천만송이 목란꽃을 피워 필필이 아름다운 비단천을 수놓아가는 직포공들의 충성의 념원이 제시되고있다.

천만송이 꽃처럼 피어나는 우리 인민의 행복한 생활의 갈피갈피에는 그 어느 하나에도 어버이수령님의 은덕이 깃들지 않은것이란 없으며 해빛보다도 따사로운 사랑이 비치지 않은것이란 없다.

하기에 우리 인민은 철따라 새라세옷을 갈아입을 때나 귀여운 자식들이 새 교복을 타입고 기뻐뛰노는 모습을 바라볼 때나 지신들이 누리는 행복을 두고 어버이수령님의 크나큰 은덕에 대하여 가슴뜨겁게 돌이켜보게 되는것이다.

강반석어머님으로부터 받으신 귀중한 돈 20원을 소중히 간직하고 다니시다가 마안산의 혈벗은 아이들에게 옷을 해입히도록 하신 그 뜨거운 사랑의 손길로 조국땅 가는곳마다에 비단공장을 일떠세우시고 우리 인민들의 세기적념원을 해아리시여 남부럽지 않게 잘살게 하시려고 어버이수령님께서 바치신 그 로고와 은정을 어찌 다 이야기할수 있겠는가.

가사의 이 구절을 읽으면서 우리는 우리 인민들에게 돌려주시는 어버이수령님의 이처럼 크나큰 은덕에 목이 메여 감격의 눈시울을 적시게 되는것이다.

이러한 감정은 가사가 생활의 진실을 아무런 보탬도, 구김도 없이 생동한 느낌을 통하여 보여준데서 오는것으로서 이는 어버이수령님께서 안겨주신 사회주의제도에 대한 열렬한 사랑과 보다 희망찬 래일에 대한 끝없는 량만과 생활긍정적열정을 나타내주었다. 이러한 생활긍정적열정은 어버이수령님의 령도의 현명성과 높은 덕성을 더욱 부각하고 우리 인민들로 하여금 다함없는 충성의 열정을 솟구치게 하는것으로 하여 더 의의깊은것으로 되었다.

인민대중의 정신적지향에 대한 옳은 반영, 예술적형상의 소박성과 진실성은 가사의 제2절에 이르러 한층 심화되면서 창조적로동이 낳은 생활의 끝없는 량만으로 고조를 이루어 격조높이 울려나오고 있다.

끝없는 행복이 넘치는 땅에
아름다운 비단을 꽃물결치네
비단필로 이 강산 수놓으라 하신
수령님의 높이신 뜻 꽃피워가네
아 수령님의 높이신 뜻 꽃피워가네

어버이수령님께서 계시어 오늘의 행복이 있고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있기에 래일의 찬란한 희

망도 있다는 우리 인민의 드림없는 신념이 얼마나 절절하고도 뜨겁게 흘러나오는것인가.

이러한 드림없는 신념을 간직하였기에 우리 인민은 어버이수령님의 높이신 뜻을 꽃피워가는 그 길 위에서 자신의 모든 지혜와 재능을 다 바쳐 일하고 있으며 거기서 가장 큰 삶의 보람과 긍지를 느끼고 있는것이다. 가사의 이 구절은 우리 인민의 창조적로동이 낳은 생활의 보람과 희열을 서정적주인공의 내면세계를 통하여 참신하게 보여준 생동한 모범이다.

제1절에서 발현된 서정적주인공의 충성의 열정은 이처럼 제2절에 이르러 더욱 승화되면서 무궁무진한 생활력을 낳는것으로 제시되었다. 이는 생활반영의 합법칙적과정을 바로 하나의 전일적인 체계속에서 관통시켜보여준 좋은 실례로 된다.

위대한 수령님께 바치는 불타는 충성심이야말로 《끝없는 행복이 넘치는 땅》에 비단옷으로 꽃물결을 이루게 하고 번영하는 조국의 앞날을 더 아름답게 수놓아가고있는것이 아니겠는가.

가사의 이 형상을 통하여 우리는 어제날 토스레 옷마저 매 사람에게 차례지지 않아 단 한벌로 3대가 물려입으며 모진 가난과 멸시 속에서 인간이하의 피눈물나는 생활을 강요당해오던 우리 인민들에게 사철 비단옷을 입고 잘살수 있도록 해주신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다함없는 감사와 충성의 정을 더욱 가슴깊이 간직하게 된다.

어버이수령님의 은덕을 한시도 잊지 않고 그이의 원대한 구상을 하루빨리 실현하기 위하여 불타는 충성심을 남김없이 바쳐가는 서정적주인공의 이 아름답고 숭고한 정신세계- 우리 인민모두가 노래하고싶고 칭송하고싶은 그 절절한 심정을 가사가 그대로 대변하고있기에 그 정서적여운이 주는 느낌 또한 그만큼 강렬해질수 있었다.

가사는 어디까지나 시적으로 되여야 하며 통속적이면서도 사상예술적품위가 높아야 한다는 일관한 요구에는 바로 이처럼 가사가 예술적형상의 모든 요구를 원만히 체현함으로써 생활 사실을 생경한 론리로써가 아니라 심오한 정서적느낌을 통하여 설득시켜야 한다는 의미가 포함되어있다. 그러자면

서정적구조로부터 색조, 어감 등이 여운있고 감칠맛이 있어야 하며 매개 행과 절,련들이 하나의 전일적인 체계에 맞물려있으면서 주자는 사상이 명백하고 논리정연하게 제시되어야 한다.

가사 《직포공의 마음》 제3절에서는 이 모든 요구가 원만히 구현되어있음을 볼수 있다.

은실로 수를 놓아 꽃피운 행복
금실로 수를 놓아 넘치는 기쁨
남녘의 저하늘 필필이 늘어서
삼천리를 비단필로 수놓아가리
아 삼천리를 비단필로 수놓아가리

여기서 우리는 이때까지 1, 2절에서 축적되어오던 감정이 최고 절정의 높이에서 세차게 분출되고 있음을 볼수 있는데 이는 가사가 제기한 궁극적목적 즉 조국통일에 대한 우리 인민의 절절한 숙망을 그렇듯 커다란 시대정신의 높이에서 천명할수 있게 한 중요한 요인의 하나로 되었다.

오늘 우리가 쌓아가는 모든 창조적결실들은 결코 우리 북반부인민들의 행복만을 위한것이 아니다.

한겨레의 피줄을 이은 우리 민족이 남북으로 갈라져 30여년! 얼마나 피땀한 원한과 말 못할 사연들이 쌓이고 쌓여 모진 진통을 겪으면서 흘러갔던가! 기쁨 때나 즐거울 때나 더없는 생활의 보람과 행복을 누릴 때나 미제와 그 주구 박정희괴뢰도당의 파쑈적학정속에서 헐벗고 굶주리는 남녘땅형제들을 한시도 잊지 않고 사는 우리들이다.

《은실로 수를 놓아 꽃피운 행복》과 《금실로 수를 놓아 넘치는 기쁨》을 남녘의 저 하늘에도 필필이 늘어서 삼천리를 비단필로 수놓아가리라는 이 절절한 념원- 바로 이러한 절박한 념원을 간직하였기에 우리 인민은 사나운 풍랑과 시련의 고비들을 헤쳐넘으며 오직 조국통일의 그날을 위하여 역세게 싸워나가고있는것이다.

가사 《직포공의 마음》이 거둔 사상예술적성과의 다른 하나는 형상적형식이 매우 간결하며 일련의 독특한 특색을 보이고있는데서도 나타났다.

우선 가사의 서정적구조가 짚고 작품의 색채가 배우 밝으며 우아하고 선명한것이 특징이다. 선택된 시어들이 모두 민족적정서가 폭 배인것들이고 인민성이 풍부한 어휘들로서 부드러운 어감과 소박한 체취를 느끼게 한다.

3. 4조의 전통적인 민요형식의 틀조를 살려서 현대적미감에 맞게 적절히 배열한것이라든가 3절 1. 2행에서 보는바와 같이 대구를 이루는 형용어들, 매개 절 끝행에서 제시된 반복적인 수법들을 능숙하게 활용하여 절별 내용을 부각하고 총체적으로는 작품의 사상을 형상적으로 더욱 뚜렷이 해준 실례들이 그것이다.

절별 내용에 따라 느껴지는 감정도 다양한 양상을 띠고있다.

직포공들의 생활적랑만과 충성심을 노래한 1절과 2절에서 마지막 행들이 지속성을 가지고 경쾌한 여운을 끌어주는가 하면 그들의 불타는 결의를 담은 3절의 마지막결구는 격정적인 파동속에서 강렬한 열정을 불러내기도 한다. 그러면서도 하나하나의 행, 절들이 류창하고 감미로우며 친근감을 자아내면서 심오한 뜻을 내포하고있다. 하기에 가사가 풍기는 사상정서적체취는 봄하늘처럼 다정하고 우아하며 가을날의 호수처럼 그윽하고 정가롭다.

가사의 이러한 형상적특성은 부르기 좋고 귀맛이 있으며 정서적감정이 풍부한 곡을 낳을수 있는 전제조건으로 되었다. 그리하여 운율화된 시어들은 부드럽고 다감하며 풍만한 정서를 담고 흐르는데 이는 사람들로 하여금 번영하는 조국의 앞날과 로동하는 인간들의 아름다움에 대하여 어버이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와 한없이 고마운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에 대하여 거듭 깊이 생각하게 하는것이다.

가사 《직포공의 마음》을 통하여 우리는 언제나 인민을 위해 심려하시는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열화같은 충성심을 더욱 가슴깊이 간직하게 되며 헐벗고 굶주리는 남녘땅 형제들을 하루속히 구원하기 위하여 조국통일의 그날을 하루빨리 앞당겨와야 하겠다는 불같은 결의를 가다듬게 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30돐기념 전국문학예술작품현상모집요강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문학예술부문앞에 나선 중요한 과업은 근로자들을 공산주의세계관으로 무장시키기 위한 혁명적인 작품들을 더 많이 창작하는데 있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창건하시고 이끄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30돐(1978년 9월 9일)을 뜻깊게 기념하며 광범한 근로대중속에서 문학예술작품창작사업을 더욱 활발히 벌리도록 하기 위하여 전국문학예술작품현상모집사업을 다음과 같이 조직한다.

1. 응모작품종류

-문학작품

소설: 장편소설, 중편소설, 단편소설

시: 서사시, 서정서사시. 서정시, 가사

아동문학: 장편소설, 중편소설, 단편소설, 동화, 우화, 동시, 동요, 가사

극문학: 장막희곡, 중막희곡, 단막희곡

문학론설

-음악작품

성악곡(아동곡포함)

기악곡(아동곡포함)

음악론설

-예술사진작품

흑색사진, 천연색사진, 합성사진

2. 응모작품의 주제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영광찬란한 혁명력사와 불멸의 혁명업적, 령도의 현명성과 고매한 덕성을 내용으로 한 작품 그리고 조국을 보위하고 사회주의제도와 혁명의 전취물을 수호하기 위한 투쟁을 내용으로 한 작품, 조국해방전쟁, 사회주의혁명과 사회주의건설, 사회주의적애국주의, 조국통일, 국제혁명력량과의 련대성 등을 내용으로 한 작품.

3. 응모자격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민(해외공민포함)은 누구나 다 참가할수 있다.

4. 응모작품 보낼곳과 보내는 방법

-보낼곳

문학작품: 평양시 외성구역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

음악작품: 평양시 외성구역 조선음악가동맹 중앙위원회

예술사진작품: 평양시 외성구역 조선사진가동맹 중앙위원회

-보내는 방법

우편 또는 직접 가지고 올수 있다.

※ 예술사진작품은 견본사진(15×20)과 사진 원판을 첨부하여야 한다.

응모작품에는 이름, 성별, 생년월일, 현직장 직위를 정확히 밝혀야 한다.

5. 응모작품 받는 기간과 심사결과 발표

응모작품 받는 기간은 1977년 6월 1일부터 1978년 6월 30일까지이며 1978년 9.9절을 전후하여 심사결과를 발표한다.

* 현상모집결과를 중앙통신을 비롯하여 방송, 《평양신문》, 《로동청년》, 각 도일보, 문예잡지들을 통하여 발표한다.

6. 응모작품에 대한 표창 및 처리

우수한 작품을 낸 당선자들에게는 해당한 표창을 한다.

근로자들속에서 사상예술적으로 특출한 성과작을 낸 당선자들은 해당한 동맹 맹원, 후보맹원으로 받아들일수 있다.

응모작품들중 우수한 작품들은 출판물에 발표한다.

* 투고된 작품은 반환하지 않는다.

1977년 5월 30일

조선문학예술총동맹 중앙위원회